

염색장

글 김지희 · 사진 최원진



글 김지희

1939년생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및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

일본 동경예대 대학원 염직 연구 과정

대구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대학장 및 디자인대학원 원장

국전 문공부장관상 및 특선 3회

'98 유네스코 공예 1등상 · 제6회 목양공예상

파리시 초대 한국현대미술초대전 최고상

대구광역시 문화상 수상 및 우수섬유미술가상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미술대 공예디자인과 교수

(사)한얼전통천연염색연구협회 이사장

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저서

『날염디자인』 (공저)

『한국 전통천연염색공예』 (공저)

『한국의 공예기술』 염색편

『한국 복식문화 사전』 천연염색편 등 다수

사진 최원진

1962년 생

홍익대학교 대학원 사진과 졸업

일본대 사진연구소 수료

현 혜천대 영상디자인계열 교수

개인전 4회

『한밭문화제 멀티미디어영상전』 기획 전시

『미디어 미래전』 기획 등



염색장

전여미·정미화 재 제 115 호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요무형문화재 기록 도서



중요무형문화재 제 115 호

염색장

글 김지희 — 사진 최원진

화산문화

‘중요무형문화재’ 시리즈를 발간하며

‘중요무형문화재’ 시리즈는 중요무형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의 하나로 기획된 것입니다.

무형문화재는 그 대상의 형체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기능과 예능에 의해 전승됩니다. 그런 까닭에 유형의 문화재보다 쉽게 사회적·문화적 환경 변화에 노출되어 변형되거나 급격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1995년도부터 중요무형문화재 개별 종목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도서를 제작·발간하여 중요무형문화재의 역사와 현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시리즈 각 권에는 국가가 지정한 개별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 실연 과정 전체와 역사적 전승 양상 등을 기록·고증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을 수록하였고, 전통 문화만을 고집스럽게 담아온 사진 작가들의 사진을 실어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편집하였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시리즈로 이번에 발간하는 『염색장』은 천연 염색의 역사와 개념, 쪽염의 재료와 도구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였고, 문평 명하 쪽 염색, 나주 샛골의 쪽 염색, 나주 쪽염의 전수와 발전 등 현재 재현되고 있는 쪽 염색의 전승 실태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습니다.

모쪼록 새 역사의 시작을 맞이하여 ‘중요무형문화재’ 시리즈가 전통 문화 유산을 지키고 유지하는 한편 중요무형문화재를 올바르게 전승해 나가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전통 문화의 토대로 자리매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2. 12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에는 보유자 윤병운과 정관채의 염색 기술을 현장에서 면담하여 기술하되, 염색 중 지정된 종목이 쪽물이지만 지정명이 염색장이기에 전체 염색의 간략한 기초 부분을 제시하고, 두 보유자의 쪽물 재배 및 염색의 제작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두 보유자의 전승 계보 및 생성 과정과 활용 등 쪽물을 생성시킨 지역적 전수, 문화 환경과 발전 방향을 사진과 함께 제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천연 염색은 옛날 사람들이 아름다운 색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의 꽃이나 열매, 잎, 뿌리, 껍질, 그리고 동물, 광물, 해조류, 암균, 버섯, 이끼류 등에서 색을 나타내는 물질을 추출하여 이용해 왔다. 예전에는 염색의 원료가 대부분 식물 염재였는데, 그 중 쪽 염료는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일반적으로 식물성 섬유에 주로 염색되었고, 견이나 양모와 같은 동물성 섬유에도 잘 물들여졌다. 또한 황토와 숯검정 같은 광물 염색까지도 염색하여 조선 시대까지 의복의 색으로 신분과 역할을 구분하는 생활 속의 염색과 전통 공예로도 자리잡아왔다.

남(藍)이라는 말은 단순한 식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남(藍)의 색소를 함유하는 초목을 총칭하는 것이며 우리 나라나 중국, 일본 등의 문헌에서는 남(藍)이라 기록되어 있지만 전통적으로 한글 용어로는 쪽이나 쪽물이라고 불렀다.

쪽(남)의 시작은 인도, 이집트를 시작으로 전파되었고, 우리 나라는 인도를 거쳐 중국, 한국, 일본으로 건너갔다. 중국의 문헌 근거로서는 기원전 3세기, 중국의 순자가 권학편(勸學篇)에 ‘청출어람(靑出於藍)’ 이

라 하여 청(靑)은 남(藍)에서 나와 남보다 푸르다라는 문구로,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아 기원전 3세기 때부터 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염색의 기록 중 『삼국지』의 오환선비(烏丸鮮卑)동이전(東夷傳) 제30권 부여조에 “……증수금계(繒繡錦麗)라 하여 수를 놓고 비단으로 지은 옷과 털옷……”라는 내용이 있다. 부여족이 실을 물들여 자수를 놓은 비단옷을 입었다는 것은, 염색한 옷을 이미 입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 이후 백제 고이왕 때 복색 착용 제도를 정비하고 신라 때에는 염관에 11인의 염장(染匠)을 두었고 염곡전(染谷典)을 두어 염료 식물 재배와 수확 등을 관장했으며 흥전, 능색전, 소방전 등의 염색에 관련된 부서가 있었다. 고려에 와서는 사염 공장과 관염 공장에서 염색을 관장하기 위해 직염국(織染局)에 도염서(都染署)를 두어 전문 장인인 염료공과 염색공을 두어 염색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 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경공장에 청염장, 홍염장, 황단장 등 염색을 분업화시켜 염색을 색깔별로 관장하면서 염색 기술이 고도화되어 갔다. 이러한 국가 및 관청에서 관리하던 염색 기술이 중기 이후에는 민간 수공업으로 전환되어 민가의 부업이나 가내의 생필 목적으로 자급 자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염색 직물이 민간 부업이 됨과 동시에 반가 이상의 서민층에서도 염색의 욕구가 고조되어 혼사시의 혼수품으로 의류 및 이불, 생활용품, 보자기 등 다양한 전통 염색이 가내의 비법으로 발달되어 왔다.

이러한 염색 전통이 민간을 통해 전수되어 오다가 1856년 합성 염료

의 출현과 6·25를 거치면서 잠시 단절되었던 염색이 다시 1970년대 후반부터 계승·재현되어 지금에 와서는 일반 대중들 사이에 가장 선호하는 전통 공예로 부각되고 있는 분야이다. 우리 나라의 쪽물 염색 중 쪽의 생엽염, 잿물만을 사용하는 쪽 침출액 잿물 염색, 석회를 쓰는 침전쪽(남), 쪽의 복합염 등이 있고, 복합염 속에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중 나주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현재까지 계승·전수되어 온 명하쪽 윤병운 보유자와 셋골쪽 정관채 보유자의 침전쪽인 쪽물 염색은 쪽물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석회 제조 및 염색 과정과 그 발전 방향이 각기 차별화되면서도 보유자마다의 좋은 특기를 보유하고 있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의의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은 고문헌 『규합총서』, 『임원경제지』, 『산림경제』, 『본초강목』, 『천공개물』, 『동의보감』, 『산방정례』, 『조선왕조실록』 등과 이 염색장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당시의 보고서, 염색 연구가 등의 조사서와 실제 현장 조사시의 내용을 토대로 보유자가 사용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사진과 함께 서술하였다.

쪽풀의 재배는 일반 농사의 재배와 동일한 방법과 도구로 사용되나 쪽염의 색소가 가장 많이 포함되도록 재배하는 기술이 핵심이며, 쪽물 염색의 도구도 일상 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독 항아리를 비롯한 생활 도구를 활용한다는 점이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다. 다만 재배부터 석회 제조, 잿물 만들기, 침전쪽 제조, 염색을 위한 발효 과정, 정련, 염색 등의 긴 시간과 힘든 노동이 함께 요구되는 점이 어려운 점이다. 그러나 무더운 삼복 더위 속에서 인고의

결실로 나타나는 하늘색과 쪽빛 바다와 같은 깊이 있으면서도 위풍있
는 아청색(雅靑色)과 더불어 청명한 청색 계열의 다양한 색의 창출은
한국의 미를 상징하는 향기로운 염색 기술의 총채라고 느낄 만큼 자연
의 색깔을 깨워 준다.

이번 책자는 문화재연구소에서 기획한 사업으로, 기록 영화와 기록
책자를 병행하고 있다. 영화는 영화만이 가질 수 있는 동적인 감동과
입체감을 느낄 수 있고, 책자는 영화에서 다루지 않은 섬세한 제작 기
술 부분과 보유자의 전수 발전 상황을 사진과 함께 다루어 염색(쪽물)
의 공예 기술 전승 및 전수 교육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모쪼록 이 책이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자긍심을 높여줌과 동시에
염색이 지니는 한국 고유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
대한다.

2002. 12

김지희

발간사	4
-----	---

머리말	6
-----	---

1 천연 염색의 역사와 개념

1. 천연 염색의 역사와 색	13
2. 고문헌의 근거	35
3. 쪽 염색의 의미와 특징	53

2 쪽염의 재료와 도구

1. 천연 염색의 종류와 매염제	57
2. 쪽풀의 종류	66
3. 쪽의 재배와 채취	73
4. 쪽의 재배 및 염색 도구	86

3 문평 명하 쪽 염색

1. 황토 바닥 가마 석회 제조	99
2. 대량 생산 잣물 만들기	112
3. 염색 과정	118

4 나주 섯골 쪽 염색

- | | |
|----------------------|-----|
| 1. 황토 가마 석회 제조 | 140 |
| 2. 가내식과 대량 생산 잿물 만들기 | 149 |
| 3. 염색 과정 | 157 |

5 나주 쪽염의 전수와 발전

- | | |
|-------------------------------|-----|
| 1. 운병운 보유자의 쪽 염색
전승과 활용 | 188 |
| 2. 정관채 보유자의 쪽 염색
전승과 활용 | 197 |
| 3. 나주의 문화 환경과 쪽 발전의
지역적 조건 | 210 |

6 국가적 지원과 향후 과제

- | | |
|-----------|-----|
| 1. 국가적 지원 | 215 |
| 2. 향후 과제 | 216 |
| 참고문헌 | 219 |

일러두기

- 전시회 명칭과 미술단체명은 《 》 속에 표기한다.
- 작품 또는 유물의 명칭은 〈 〉 속에 표기한다.
- 서적과 보고서 명은 『 』 속에, 논문명은 「 」 속에 표기한다.
- 제작 공정의 설명에서 도구 이름은 「 」 속에 표기한다.
- 인용구 및 강조사항 ‘ ’ 대화의 인용 “ ”
- 작품이나 유물에 대한 자세한 캡션과 출전은 각주로 처리한다.

사진 촬영 협조처 및 제공처

- 서울대 출판부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I · II』, 고구려편
- 국립 현대미술관
- 국립 민속박물관
- 프랑스 국립 기메 동양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국립문화재연구소)
- 국립 대구박물관
- 조선일보 출판, 「고구려편」
- 김지희 천연 염색 염재 및 염직물 제공
- 윤병운 명하 쪽물 공방
- 정관채 셋골 쪽물 공방

1 천연 염색의 역사와 개념

1. 천연 염색의 역사와 색

염색은 인류가 탄생하여 색채를 자연의 재해나 질병으로부터 피하고, 또 굶주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신(神)을 위로하고 악마나 영혼의 재난에서 피하기도 하며 외적에 이기기 위한 주술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염색의 자연 발생은 처음에는 소복을 입고 자연을 돌아다님으로써 자연스럽게 묻혀진 녹청접(綠靑摺)이나 포도나 산딸기 등, 과일이나 열매 등을 따먹음으로써 옷에 묻었던 착색으로, 꿇여서 들이는 염색 이전의 원초적인 행위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 후 몸에 상처나 화상을 입었을 때 자연물에서 약을 취하는 방법으로 잎을 따서 바르거나 그 약을 즙으로 내거나 꿇이는 과정에서 염착되는 염색이 발생되었다.

염색의 시초는 BC 300년 경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 지역, 고대 미라의

전포에서 홍화색과 쪽 염색을 발견할 수 있고, 중근동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류 등에서부터 시작하여 인도의 모헨조다로(Mohenjodaro) 유적에서 꼭두서니 염색 목면 단편을 발견할 수 있다.¹⁾

고대 식물 염료로 물들인 염색포의 유품으로서는 인도의 모헨조다로 유적에서 출토된 꼭두서니 염색 목면 단편이 있었다. 그리고 『세계염색 자료집성』에 수록되어 있는 고대 이집트 직포의 분석에 의하면 BC 3000 년경의 이집트 미이라의 전포(纏布)의 색을 조사한 결과 담황색, 짙은 황갈색, 황갈색에 흑갈색의 줄무늬가 있는 등 이들 전포에 함유된 황색 유기 염료는 홍화에서 추출한 황색 염료와 동일하다는 것이 실증되었다. BC 2500년 그 이전부터 이집트에서는 홍화가 황색 염료로써 사용되고, BC 1000년경에는 홍색도 염색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확실하게 쪽염이라 추정되는 푸른 전포도 있었다.²⁾ 동물 염료로는 BC 1600년경에는 웨니아 인(페니키아 인)에 의해 뮤렉스(Murex)고둥에서 Tyrian Purple이라는 자색(紫色)의 색소로 물들이는 패자염(貝紫染)이 행해졌고, BC 1200년 경에는 고치닐이라는 연지충(胭脂蟲)을 열탕(熱湯)으로 죽여 건조시켜 분말로 만든 염료를 사용하기도 했다.³⁾

그리고 광물 염료로 최초로 사용한 것들은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에서 볼 수 있으며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가죽이나 천에 자연 염색을 하였으리라 추측된다. 또 청동기 시대에는 토기에 철분이 많은 광물을 입혀 색이 붉거나 검은색이 된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산서성 서음초 유적에서 반으로 분할된 고치와

1) 渡邊素舟, 『中國古代文様史』, 雄山閣, pp. 63~64.

2) 이영주, 『한국고대염직문화에 대한 고찰』, 홍익미술 10호, 1989, p. 158 재인용.

3) 김지희, 『염료식물 재배 및 염직물 제작에 관한 연구』, 교육부, 1993, p. 137.

동시에 도기와 암석으로 만들어진 방추차(紡錘車)가 나온 것을 보고 채
도기(彩陶期)의 것이라 추정했다는 기록⁴⁾도 있다.

중국 고대의 염직물과 같이 한국의 직물은 금(錦), 수(繡), 능(綾), 나
(羅), 기(綺), 환(紬), 곡(穀), 사(紗), 모직(毛織), 마포(麻布), 갈포(葛布)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직물들이 알려지고 있다.⁵⁾ 색채도 오방색과 오간
색을 중심으로 100여 가지의 다양한 천연 염색 색채를 사용해 왔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거처온 한국의 고대 염직술은 기법에 있어서 교힐
(皎緝), 갈힐(葛葛緝), 협힐(纈緝)의 고도한 기법을 사용했고, 다양한 식물염
료로 이중(복합)염색한 우아한 염직물들은 고대 한국의 기술자들이 만
든 것과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 일본 동대사 정창원⁶⁾에서도 보이고 있다.

1) 상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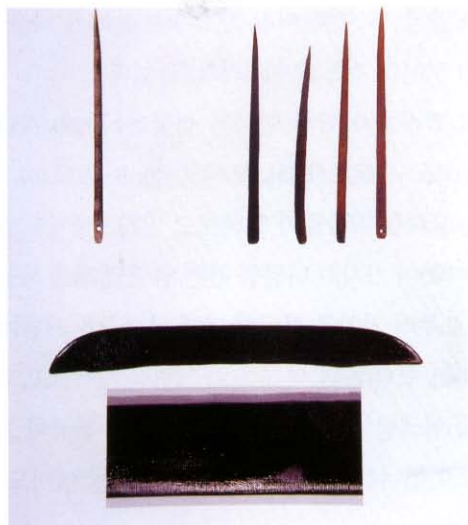
상고시대인 구석기 시대는 수피로 몸을 가리고 5000년 전 웅기군 송
평리 궁성 행염면 지경동의 유적에서 철제 바늘만큼 가는 구멍이 적은
골침(骨針)이 출토되었으니 이것은 천을 짜거나 깎는 제직술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다. 5000여 년 전의 신석기 시대는 그들이 제작한 단도마연

4) 이재(李濟): 1926년 고고학자가, “안더슨(Anderson)박사가 발견한 앙소(仰韶) 출토품과 같이 나
은 청동기가 모직물에 쌓였던 흔적이 있었고 장강(長江)의 마왕퇴(馬王堆), 신강(新鄧), 위구르
지구의 아스타나(Astana) 고분군에서 발굴된 견직물과 마포도 많이 출토되었다. 청동기시대를 지
나 철기시대에 들면서 무덤의 부장품 가운데 주철, 흑철의 철기류가 많이 출토되었다.”라고 기술.

5) 関吉子, 「우리나라 고대직물연구」, 『國民大 論文集』, 17, 1980, p.299.

6) 정창원 · 최재석, 『正倉院 소장품과 統一新羅』, 일지사, 1996.

정창원(正倉院)은 756년 6월부터 일본의 왕과 왕족 및 부호들이 사용했던 각종 물품을 보관해
온 일본의 보물창고로서, 처음에 일왕 성왕(聖王)이 애용했던 600여 점의 물품(國家珍寶帳에 기
록)을 봉헌한 데서 비롯되었다. 거기에 염료와 염색물이 다른 공예품과 함께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



골침1(4.5cm), 2(11cm)와 바디 세트, 초기 철기, 김해박물
관, 광주박물관(국립 대구박물관 도록).

토기(丹塗磨研土器)에서 채색 토기 문화 유입을 볼 수 있어 이 색료의 채취 및 응용은 색의료(色衣料) 실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에는 의창 다호리 유적에서 청동기류와 철기류를 발견하였고 또한 평양의 낙랑 유적에서는 철기류가 나왔는데, 철기류의 주칠(朱漆), 흑칠에서 염료의 기술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염직에 대한 기록으로는 『후한서』(後漢書)⁷⁾ 권 85 「동이 열전」(東夷列傳) 75 읍루(挹婁)에 나타나 있는데, “(초락)……의복은 모두 금수(錦繡)로 만들고 금은(金銀)으로 장식한다(衣服皆錦繡金以自

7) 『후한서』(後漢書)

중국 후한의 역사서. 중국 남조 송나라(宋)나라의 범엽(范曄)이 지었다. 본기 10권, 열전 80권 지(志) 30편으로 되어 있다. 지(志)는 진나라의 사마표가 지은 것이다.

飾)……(하략)”라고 되어 있다. 이는 화려한 무늬 비단과 지수 놓은 의복을 만들고 금은으로 장식한다는 뜻으로 색깔실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보아 염색 기술이 벌써 들어와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책에서 “(초략)……오곡과 삼베가 생산되며(五穀麻布出)……(하략)”라는 기록이 있다. 이는 삼베 생산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朱新矛, 『中國絲綢史』, 1997. (淸) 染坊中之染缸·染棒·擰紋砧

『후한서』(後漢書) 권 85 「동이열전」(東夷列傳) 75 마한조(馬韓條)에 “마한 사람들은 농사짓고 누에치는 방법을 알아서 면포(綿布)를 짰다(馬韓人知田蠶作綿布)……(하략)”라는 기록으로 보아 명주와 면포가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또 같은 책에 염직의 근거가 되는 곳은 주⁸⁾에 설

8) 동서(후한서) 권85, 동이열전 제75, 진한조(辰韓條)

“(초략)……누에치는 법을 알아 겐포(縑布, 여러 올을 섞어 짠 직물)을 짰다(知蠶桑作縑布)……(하략)는 것에서 이미 섬유 발전이 상당히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동서(후한서) 권 115 부여조

“(초략)……어떤 사람은 변(弁)을 쓰고 비단옷을 입는다(或冠弁衣錦)……(하략)”에서 화려한 화려한 무늬옷을 금실과 함께 짠 것을 째 입었다는 기록이 있다.

명하였다. 위의 그림에서 물들이는 것을 보여주듯이 조선의복채수중국(朝鮮衣服彩隨中國)이란 내용을 볼 때 기자조선(箕子朝鮮) 때에 중국의 채색된 의복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이미 염료를 사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¹⁰⁾ 그리고 고대 부족 국가 중에서 다양한 염직물이 문헌에 나타나 있다.¹¹⁾

『삼국지(三國志)』¹¹⁾ 권13 오환선비(烏丸鮮卑) 동이전(東夷傳) 30 변진(弁辰)에도 “(초략)……누에치는 법을 알아서 겹포를 짜서 쓰고(饒蠶桑作縑布)……(하략)”라는 기록으로 보아 명주와 여러 가지 실을 섞어 짠 교직물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책 부여조에서 “(중략)……부여인은 외국에 나갈 때는 수를 놓은 비단으로 지은 옷과 털옷을 입는다(出國則尚縑繡錦)……(하략)”에서 색실로 수를 놓은 비단과 털옷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로써도 염색의 근거를 알 수 있다.

『후한서동이전』(後漢書東夷傳)¹²⁾의 기록을 보면, 변진에서 청색을 금한 기록이 있는 것은 청색이 빈번히 사용되었음을 말함이니, 이 기록에서 우리가 이미 쪽물 염색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 한치윤, 『해동역사(海東繹史)』, 권20. 권18.

11) 삼국지(三國志) 권13 오환선비(烏丸鮮卑) 동이전(東夷傳)제 30 변진(弁辰).

동지에 “(초략)……땅에 비료를 주어 오곡과 벼농사를 짓고 합사 시킨 비단천(겹포(縑布))을 만들고 역시 폭이 넓고 올이 가는 천(廣幅細布)을 만들었다(요감상작겹포(饒蠶桑作縑布)……亦作廣幅細布)……”라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는 발전된 제직 기술로 합사한 비단과 넓은 폭의 제직을 이미 했음을 알 수 있다.

동지 진한조에는 “뽕과 고치를 쳐 가장 좋은 것은 햇빛에 회게 바라는 것을 익혀 옷을 만들었다.”에서 마전(정련 및 표백) 기술을 나타내고 있다.

동지 권 97 열전(列傳) 제 67 동이(東夷) 진한(辰韓)에서 “(초략)……풍속이 누에치는 법을 알아서 겹포(겹포(縑布))를 잘 짠다(俗饒蠶桑善作縑布)……(하략)”라는 기록이 있다.

12) 泥萍, 『後漢書』, 卷 百十五.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부여(夫餘)의 기록¹³⁾ 을 보면, 부여(扶餘)¹⁴⁾에 있어서는 회(繪), 수(繡), 금(錦) 등의 다양한 의복에 염색이 실시됐음을 알 수 있고 당시 양잠이 성행했던 부여에서 견직물을 많이 짚기 때문에 다양한 천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금(錦)은 금실과 함께 비단실로 문양을 짜 넣은 포(布)나 색실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문양을 화려하게 짠 것까지를 말하며 금같이 귀히 여겼다.¹⁵⁾

2) 고구려시대

고구려의 염직 문화는 당시의 고분 벽화에 신상을 비롯하여 식물, 인물 등 각양각색의 것이 있는데 그 시대의 생활상과 남녀 인물이 사냥하는 광경들, 혹은 춤추는 남녀 등 색채가 찬란하게 웅장한 기법과 기상으로 그려져 있다.¹⁶⁾

고구려의 색채 문화는 웅장하고 화려하며 담대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무용총 벽화의 색은 주, 적, 황, 녹색 등으로 적색, 황색이 주조가 되어 화면이 밝아지고 있고, 후기의 통구사신총(通溝四神塚)의 벽화는 단주(丹朱), 녹색(綠靑), 담자(淡紫), 황토(黃土), 갈토(褐土), 호분(胡粉) 등의 색이 나타나 상고시대나 고려 초기의 것보다 색채가 다양해지고 화려해지고 있다. 이의 색상은 색깔 안료를 사용했다. 『후한서(後漢書)』 동

13) 석주선, 『한국복식사』, 보진재, 1971, pp. 18~20.

“부여 백성들은 백색 옷을 숭상하여 출국할 때는 백색의 소매 긴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족신을 신었다.”(「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부여(夫餘))

14) 李能和, 『朝鮮女俗考』.

15) 中國, 紡織大學(現 同和大學), [纖維博物館].

16) 金鍾太, 『中國繪畫史』, 一志社, 1977, p. 330.

이전(東夷傳) 등의 고구려 조에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을 위한 공회시에 의복은 수금(繡錦) 금은(金銀)으로 장식하였으며¹⁷⁾……”라는 기록으로도 화려한 염색과 수옥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왕은 비단관에 녹의를 입고 금화가 붙은 혁대를 하였으며 대신은 청라관(靑羅冠)이나 비단 장식(羅珥)을 쓰는데 양 옆에 새 깃털을 꽂고 금은으로 장식하였다고 나와 있다. 청라관은 쪽물로 물들인 비단관이고 왕이 녹의를 입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쪽의 생엽염이나 쪽과 치자나 괴화의 복합염으로 초록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또 『신당서(新唐書)』 동이전(東夷傳) 고구려조에 의하면 “왕복은 오채복(五彩服)이라 하여 색깔옷을 착용하였으며 왕관은 금테를 두른 흰 비단을 쓰고 금화를 장식한 혁대를 댔으며 대신복은 청라조우관(靑羅鳥羽冠), 일반 관인은 강라조우관(絳羅鳥羽冠)……” 그리고 “서인(庶人)은 갈의(葛衣)를 입고…….”¹⁸⁾ 라는 기록이 있다. 즉 푸른 비단관에 새깃을 꽂은 관을 썼다. 일반 관인은 진붉은 홍색 비단 새깃관에 금은으로 장식한 것을 썼고, 의복은 통포삼(筒褒衫)과 넓은 바지[大口袴]를 입었으며, 흰색 혁대를 메고 황색 가죽신을 신었다. 그리고 서민은 갈의를 입고 변(弁:고

17) 주서(周書) 권 49 열전 41 이역상(異域上) 고구려(高句麗), 고구려 인 의관에서 “(초략)……붉은 비단(라사)으로 만들고(以紫羅爲之)……(중략)” 자색 물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대출판부, 1997. p.52.

19) 수서(隋書) 제81·열전(列傳) 제46.

문헌상의 색채는 백(白), 자(紫), 청(靑), 비(緋), 강(絳), 황(黃), 적황(赤黃), 오(烏)색이고, 서민은 소색(素色)인 갈의(葛衣)를 입었다. 귀인의 색은 자색이며 의복의 형태는 큰 것이 상층계급의 전형이었으며, 공회 의복으로 모두 금수의(繡繡衣)를 입고 금, 은으로 장식하였는데, 소꿌이라는 귀인의 관은 자주색 비단으로 만들고 역시 금, 은으로 장식하였다. 바지는 남녀 모두 착용되었으며 폭은 넓고 좁음에 따라 계층 구별을 하였을 것이고 바지 색깔은 자색, 적색, 적황색, 검은색, 소색, 분홍색, 고통색 등 점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깁)을 썼으며 여자는 머리에 두건을 하였다.

고구려의 위계에 따른 복색 제도¹⁹⁾는 백제, 신라에 비해 그 분화의 정도가 적으며 계층의 구분은 관모의 종류와 그 색으로 차별을 두었다. 의류를 통한 형태와 염색 색채를 벽화별로 설명하면, 집안 통구 지방의 오실총(다섯무덤)의 안칸 북벽 연대 위의 신선의 옷은 쪽색으로 물들인 옷이며 안의 옷은 홍화로 물들인 색이다. 그리고 삼실총에 나타나 있는 인물의 의류 색채를 살펴보면, 사신총(四神塚)에서는 어두운 자색 바탕에 홍색운문(紅色雲紋)으로 채색이 되어 있고, 각저총(角觝塚)에서는 어



위 왼쪽) 통구다섯무덤벽화의 안칸 북벽 연대 위의 신선(쪽색 옷) 고구려 집안.

위 오른쪽) 각저총 안칸 안쪽벽 부인도 (고구려)

아래)개마총(고구려)

두운 자색 바탕에 흑점문(黑點紋), 등색(藤色) 바탕에 홍점문(紅點紋)이다. 그밖에 대동군(大同郡) 개마총(鎧馬塚) 인물 의류에는 붉은 바탕에 흑점문, 자주 바탕에 백색 사격문(斜格紋)으로 되어 있다. 무용총 벽화에 있는 복식을 보면 저고리의 상대 복식의 기본형으로 선장식이 있고 허리에 띠를 메어 여미었다. 이 옷은 소매가 긴 저고리로 무용수나 악인 등 특수한 경우에 착용하였다. 그리고 무용총(舞踊塚)의 의류에서는 흰 바탕에 홍점문(紅點紋), 자황(柞黃) 바탕에 홍점문(紅點紋), 흰 바탕에 홍점문(紅點紋)으로 되어 있다. 또 무용총 벽화에서 보면 서민 계급에서는 통이 좁은 바지를 착용하여 활동을 편하게 하였고 바지부리를 오무려 보온의 효과를 거두었다. 역시 무용총 벽화에 있는 통이 넓은 바지는 귀족이 입는 옷으로 귀족은 화려한 문양을 넣은 옷감의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바지부리를 오무렸다. 무용총 벽화에서는 고구려 복식의 기본형인

포(袍 : 두루마기)는 남녀 상하 모두 구별 없이 방한을 위해 착용한 것으로 귀부인은 크고 넓은 소매의 포를 입었는데 이는 추위를 막기 위한 것보다는 의례적인 것이다.

무용총 벽화의 인물은 둥근 것의 자색 포를 입고 있다. 또 벽화에서는 소매가 직선이고 좁은 포에 띠로 여미고 깃, 도련, 소매 끝에 선장식을 하고 있다.

또 무용총 벽화에 띠를 앞에서 맨 저고리와 띠를 뒤에서 맨 포를 보면 저고리의 매듭과 겹치지 않도록 띠를 맺고 있



통구 안악총 벽화의 귀부인(왼쪽)과 시녀(오른쪽)(고구려).



쌍영총 벽화 그림에서 두 부인의 주름치마 (고구려).



수산리 벽화, 안간(현실) 서벽 여자 주인공 귀부인 오색치마(고구려).

다. 이상의 고구려 복식을 보면 직조, 염색, 문양 기술을 알 수 있다.

안악 벽화의 귀부인과 오른쪽 시녀는 홍화를 염색한 옷을 입고 있다. 쌍영총 벽화는 서민은 활동에 편하게 소매통이 좁은 저고리를 입었으나 귀족은 소매통이 넓은 소매의 저고리를 입었다. 또한 쌍영총 벽화의 상고시대 여인은 폭이 넓고 길이가 땅에 끌릴 정도의 긴 주름치마를 입었다. 고구려의 수산리 벽화에서는 고구려 귀부인이 오색으로 된 치마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상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고구려인(高句麗人)의 의복에 물들인 색은 매우 화려하였고 식물성 염료의 수도 고조선 이후보다 고구려 때부터 많이 늘어났으며 염색술도 많이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기 벽화의 염색색은 문헌을 근거로 한 복색을 <표 1>에 나타냈다.²⁰⁾

20) 趙孝順, 『朝國服飾風俗史研究』, 一志社, 1988, p. 338.

<표 1> 고구려 고분 벽화에 나타난 복색(服色)

고분명	연대	색	벽화인물	유(儒)
안악 3호	357	황 갈 색 황 갈 색	노동녀 동수묘	포(袍) 포(袍)
덕흥리 고분	408	황 갈 색 황록 색	기마인, 우차부, 마사회도 시녀, 우차옆시녀, 현실시녀	포(袍) 포(袍)
	5세기	백 색	왕녀(王女)	포(袍)
	5세기	백 색	직녀(織女)	포(袍)
	5세기	황 색	시자(侍者)	포(袍)
	6세기	황 색	신선	유(儒)
수산리 고분	5세기	흑 색	두 남자와 여인	포(袍)
감신총		자 색	주방도 시중	포(袍)
		백 색	인물도	유(儒)
		적 색	수렵도 기마인	고(袴)
		토황색(홍점무늬)	정좌주인(正坐主人)	포(袍)
		흑 색	여인도	고(袴)
쌍영총		백색(흑점무늬)	기마동 인물	유(儒)
		백색(홍색점무늬)	기마도 인물	고(袴)
		백 색	여인도	고(袴)
		주홍색 줄무늬	차마도 기마 찰갑무사	찰갑
		적 갈 색	주실 북벽	포(袍)
개마총		홍 색	쌍각안 인물상	유(儒)
		적 색	마부	유(儒)
		자 색	마부	유(儒)
		토황 색	마부	유(儒)
		흑 색	인물도	포(袍)
무용총		백색(홍무늬)	무용도	포(袍)
		두 록 색	주실북벽	포(袍)
		회색(홍무늬)	부부도	포(袍)
사신총		회색(흑점무늬)	전별도	고(袴)
각저총		황색(홍색점무늬)	부부도	고(袴)

3) 백제시대

백제의 염색은 백제(BC 180~660年) 고이왕(古爾王: 235~285) 때 관, 의 대, 색채로 준비 귀천의 신분 계급을 가리는 복색 착용 제도를 지정함으로써 염색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공주에 있는 송산리 벽화고분(6호) 벽화에 사신도, 일월도가 있고 부여 능산리 고분 벽화의 사신도, 연화문, 운문을 볼 수 있고 주황, 청, 흑색의 색채를 보여 이를 나타내고 있다.

『신당서』동이전 백제조에서는 “왕복은 자색 명주포(袍: 도포)에 청색고(靑色袴: 바지)를 착용하고 여기에 소피대(素皮帶: 염색 안 한 가죽띠)를 매었다.”라고 하였듯이 자색, 청색으로 염색했고, 왕을 비롯한 대신들의 복색은 붉은색 계통이며 이 당시 많이 사용한 색은 자색, 적색, 청색, 황색, 조(阜)색, 비(緋)색 등이다. 백제시대의 특징은 일반 서민에게 자의(紫衣)와 비색 착용을 금함으로써 치자와 피치자와의 구별을 하는 금색법을 남겼다.

백제는 관식과 의대식으로 품위를 가리었다. 백제의 의대색은 1품에서 7품까지의 상위층은 자색(紫色)을 착용하도록 하고 점차 흑색, 적색, 황색, 백색으로 등위를 나누었다.²¹⁾

백제 5대왕 근초고왕(近肖古王)은 왜사자(倭使者)에게 오색채견(五色

21) 김영자, 『복식미학의 이해』, 경춘사, 1998, p. 166.

衣色은 1~16품까지 『구당서(舊唐書)』, 『동이전(東夷傳)』, 백제조에 보면 왕복을 대주자포(大紬紫袍)에 청금포(靑錦袍) 『주서(周書)』, 열전, 『이역상(異域上)』, 『백제조(百濟條)』라 하였으며, 평민은 왕의 복색이던 자색은 물론 관료들이 착용하던 붉은색도 못 입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관복의 색을 紫·紫·緋·朱·赤·靑·白으로 나누어 자색을 귀한 색으로 여기고 황제나 귀족의 상징적인 색으로 채택하였다.

彩絹)을 보냈으며 재봉녀 직공 야금, 반주 기술자 등을 전후에 보내어 일본 공예에 큰 발전을 이루게 했다.²²⁾ 그리고 일본에서의 근거로는 일본 정창원(正倉院)에 소장되어 있는 당시의 실물 중 「진초목협힐」(塵草木夾纈)을 보면 일본풍은 안보이고 대륙풍으로 염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당시 중국이나 삼국 중에서 건너간 것이라고 추측된다.²³⁾

이상의 기록들을 살펴볼 때 당시 백제의 염색술은 매우 발달하였을 것이며 식물성 염료의 종류 및 제조 방법 등도 크게 발전하였다. 그리고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근거²⁴⁾로는 AD 603년 성덕태자에 의해 전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4) 신라 및 통일신라시대

신라는 신분상 특징으로의 색은 공복 제도로서 제23대 법흥왕 7년(520)에 제정되고 동왕 10년에 개정되었는데, 『삼국사기』 색복조(色服條)²⁵⁾에 나타나 있다.

신라 초기의 복식 제도는 신라 6부 사람들의 복색과 상하, 존귀를 가려 복식제도²⁶⁾를 정하고 백제, 고구려의 자(紫), 비(緋)의 복색 체제가 아닌 신라 고유의 색채 상징에 의한 등위(等位)를 가졌다.

22) 李丙濤, 『韓國古代史研究』, 傳英社, 1976, p. 467.

23) 金芝希, 『韓國傳統織物染色』, 대구광역시 문예진흥기금, 1992, p. 7.

24) 山崎青樹, 『草木染技法 全書 I』, 『薩染・瀟染基本』 美術出版社, 1997, p. 114.

백제는 서기 260년에 간위 16계제가 정해졌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복식의 계급적 분화가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특징이며, 백제의 관위제도는 AD 603년 성덕태자(聖德太子)에 의해 일본에 처음으로 관위십이제를 제정시켜 고대일본 복식제도의 초석이 되었다.

25) 김부식, 『삼국사기』, 색복조

26) 김부식, 『삼국사기』 권 제33 잡지, 권2 색복.

신라의 염색은 514년 법흥왕 때 육부인 색금지 제도를 정하고 7년(520년)에 색의공복제(色衣公服制)를 정하여 그 직위에 따라 자색, 비색, 청색, 황색 등이 있는데 왕옷은 자황색(柞黃色)으로 32대 우왕 이전까지 입었다. 제군관 제도에서는 옷 깃색으로 녹, 자, 벽, 비(緋), 적, 황, 흑, 벽(碧), 청, 계(鬍), 자백, 청적, 황청, 벽황, 청백, 백흑, 흑청 등이다.²⁷⁾

흥덕왕 9년 골품 제도의 직위에 따라 자황색(柞黃色), 멸자색, 자자분, 금설, 황설 등의 색을 금하는 내용²⁸⁾으로 염관에 11인의 염장(染匠)을 두었고 염곡전(染谷典)을 두어 염료 식물 재배, 수확 등을 맡고, 홍전(紅典), 능색전, 소방전, 조하방, 찬염전, 금전(錦典), 침방장인(針房匠人)이 옷을 만들었다.²⁹⁾

당시 쓰여진 색을 보면 자(紫), 비(緋), 청(靑), 황(黃), 녹(綠), 흑(黑), 적(赤) 등이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당시 색에 대한 관념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홍계통에는 비, 적, 자가 분별되었고, 청계통에는 녹, 청, 벽이 분별되어 있었으며, 흑색과 황색도 사용하였으니, 신라인의 의복 색채가 얼마나 찬란하였으며 식물성 염료의 종류가 다양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남천저본색(藍茜沮本色)'³⁰⁾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어 '꼭두서니'와 '쪽'이 당시의 대표적인 식물성 염료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통일신라 이전의 공복에 사용되었던 염색을 살펴보면, 『삼국사기』³¹⁾에 자, 비, 청, 황, 록, 자, 비, 흑, 적, 청 등으로 직을 표시하는 품계에 따른

27) 一然, 『三國遺事』, 卷 40, 잡지 직관, 乙酉文學史, 1976, p. 327.

28) 一然, 浼 錄, 卷 4.

29) 一然, 浼 錄, 卷 39, 직관.

30) 一然, 浼 錄, 卷 4.

31) 유희경, 앞의 글.

색을 사용하였다.³²⁾

그리고 통일신라시대의 등차(等差)는 자황(柞黃), 자(紫), 멸자(滅紫)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진골녀에게는 9색이 허용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서 나타난 색명으로 자(紫), 자분(紫粉), 금설(金屑)이라 하여 금분(金粉)을 뿌린 것처럼 문양을 만든 기법으로 황설(黃屑)이라 기록된 것도 있다. 홍(紅), 황설(黃屑), 비(緋), 멸자(滅紫) 등의 7가지 색(色)으로 사용하였다. 또 홍색 계통에는 비, 적, 자가 사용되었고, 청색 계통에는 녹, 청, 벽(碧)이 구별되어 있었으며, 백, 흑, 황색의 사용과 더불어 오정색과 오간색의 전 색상 계열의 사용이 두드러져 있다.

5) 고려시대

『고려사』여복지(興服志)³³⁾에 기록되어 있는 색이 명칭을 종합하면 적, 청, 황, 조(阜), 현(玄), 훈, 백, 녹, 주, 상, 치자, 자황(柞黃), 흑, 홍강, 비, 자, 단색 등 색의 분류(分類)가 많이 되어 있다.

『고려사』여복지에 나타난 고려시대의 왕의 조복의 색은 국초에는 간황색(紵黃色), 문종(11대) 때는 홍, 황색으로 중지색(中之色), 군지색(君之色)이라 하여 일반에게 금지되었으나 고려에서는 왕이 이를 입었으며

32) 『삼국사기(三國史記)』 권 제삼십삼(卷 第三十三) 잡지제이(雜志第二) 색복(色服) 신라조(新羅條)

공복제도(公服制度)를 십칠등(十七等) 관계(官階)로 나누었다. 진골이상급(眞骨以上級) 자의(紫衣), 육두품급(六頭品級)은 비의(緋衣), 오두품급(五頭品級)은 청의(青衣), 사두품급(四頭品級)은 황의(黃衣)를 입었다고 한다. 또한 이십삼대(二十三代) 법흥왕(法興王)때의 무관직제(武官職制)를 보면 「록고(綠袴), 자고(紫袴), 비고(緋袴), 흑고(黑袴), 벽고(碧袴), 적고(赤袴), 청고(靑袴) 등의 바지를 사용하여 그 직을 표시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33) 김종서·정인지, 『高麗史』.

의종 때는 치황색(梔黃色), 예종조 18대에는 자황색, 충렬왕 25대에는 중국 제도를 그대로 따라 지황(芝黃)으로 하다가 다시 황색을 착용하였다. 공민왕(恭愍王) 19년에는 적색포로 착용하게 되었다.³⁴⁾

『고려도경』에 나타난 왕의 상복은 상색(緇色)인 담황색포(淡黃色袍)이었으나 고려 말기에는 2등체강원칙에 따라 자, 혹은 대홍색이 되었다. 대체로 상색(緇色)과 붉은색이 합쳐진 황색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려도경』에 사색공복에 의한 관품이 표시되어 있다.³⁵⁾

고려시대의 의복 색상은 황색계(黃色系)로 상색(緇色), 금색, 황색, 괴색(壞色), 자황(柘黃), 자황(赭黃), 적색계는 강(絳), 홍, 자, 주, 훈(纁), 적, 비(緋), 청색계는 녹, 심천(深淺), 창(蒼), 흑색계는 조(阜), 오(烏), 흑(黑), 현(玄)이며 백색과 설금(屑金) 등이 사용되었다. 서민은 백, 황의 농담, 홍, 흑색 등을 주로 착용했으며 주된 복색은 백색이었다. 여자 복색³⁶⁾을 보면, 왕비는 대홍색(大紅色)에 회수(繪繡)를 놓았는데 서민복에는 이를 금하였다.

이렇게 색에 대한 표현이 많은 것을 보아서 고려인의 색채 감각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식물성 염료의 개발

34) 유희경, 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98, p. 116.

35) 『高麗圖經』에 나타난 사색공복(四色公服)에 의한 관품의 표시는 제5대 경종원년(景宗元年)에 제정된 직산관(職散官) 각품의 전자과(田柴科)에도 나온다. 자삼(紫衫)은 1~8품, 단삼(丹衫)은 문반 1~10품, 잡업 1~10품, 무반 1~5품, 비삼(緋衫)은 문반 1~8품, 잡업 1~8품, 녹삼(綠衫)은 문반 1~10품, 잡업 1~10품에서 착용되었다.

36) 전은주, 우리 나라 전통 복식의 계층별 착용색과 색명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p. 162.

귀부녀의 복식은 영주 부석사 조사당 벽화에 나타난 귀부인의 착용한 모습에서 대주(大袖)인 홍색포(紅色袍)를 입고 홍색선의 무늬가 있는 녹색계의 표를 두르고 있어 역시 통일신라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는 계속 그 복식 형태가 유지되어 내려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매우 활발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다. 기록에서 살펴보면,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상의국에 “어의(御衣)를 물들이는 홍지초를 1년 쓸 만큼 준비한 외에는 많이 거두어 들이지 말라.”³⁷⁾ 라는 기록이 있다. 또 “공양왕(共讓王) 2년에 유구국이 사신을 보내어 소목(蘇木)을 바쳤다.”³⁸⁾ 라는 말이 있다. 『고려사』³⁹⁾에는 홍화, 자황(柘黃), 치황(梔黃)이라는 식물성 염료의 명칭이 나와 있다.

이러한 기록 및 실물로 보아 고려시대의 식물성 염료는 그 이전보다 많은 수가 개발되었고, 중앙 부서에 도염서(都染署)⁴⁰⁾가 있어 직조된 천에 기량을 다하여 염색 가공을 하였다. 즉, 고려는 사염 공장과 관염 공장에서 염직물을 생산, 특히 염색을 관장하기 위해 직염국(織染局)에 도염서(都染署)와 상의국(尙衣局)에 장복서(掌服署) 등의 제도가 있어 전문 장인인 염료공과 염색공을 두어 염색을 담당, 왕복은 자황색이었으나 우왕부터 대홍색(大紅色)으로 바뀌었다. 그 중에서 자초염(紫草染)은 중국에서까지 인정하는 우수한 염색 기술을 보였다.

6) 조선시대

태종은 백관복 제정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여러 의례에 대한 준비를 위해 ‘관복색’을 설치하여 관리하였다. 백관의 조복·제복·공복·상복의 제도가 완성된 것은 세종대(8년 2월)였으며, 이때 의례상정소로 하여금 경제속육전(經濟續六典)을 올리게 했고, 집현전으로 하여금 오례

37) 『高麗史節要』, 卷 1, 민족문화추진회, 1968, p. 217.

38) 『韓國文化史大系』, 卷 3,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68, p. 349.

39) 김종서·정인지, 『高麗史』, 中卷, 연대동방학연구소, 1955, p. 561.

40) 『高麗圖經』, 卷20. 亞物亞 文化史, 1972, p. 121.

의주(五禮儀註)를 상정시켰으며, 제8대 예종대에 『경국대전』(經國大典)으로 완성시켰던 것이다. 조선시대의 염색과 포(布)를 <표 2>에 나타내어 복식명도 함께 표시하였다.⁴¹⁾ 또한 조선시대는 경국대전 복식금제제도, 경공장(京工匠)에 청염장(靑染匠), 황단장(黃丹匠) 등 염색장이 분업화되어 염색을 색별로 관장하였다. 태종은 국초에 백색 금지, 경천사상으로 쪽염을 많이 했으며 왕복은 자색을 띤 홍색으로 하였고 궁중의 염색 색깔은 오방색, 오간색 등으로 다양한 염색 기술을 보였다.



염색(쪽물들이기) 프랑스 국립 기메 동양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조

<표 2> 조선시대 복식에 염색(染色)된 색명과 포명

색(色)	복식의 포명(布名)	단겹(單袂)	복식명(服飾名)
아청(鴉靑)	면 포(綿布)	단(單)	단령(團領)
회색(灰色)	면 포(綿布)	겹(袂)	담호(塔胡)
유청(柳靑)	주(紬)	겹(袂)	첩리(貼裏)
백, 소색(白, 素色)	주(紬)	겹(袂)	이두(裏肚)
토홍(土紅)	면 포(綿布)	겹(袂)	직령(直領)
흑(黑)	마 포(麻布)	겹(袂)	첩리(貼裏)
백(白)	저 포(苧布)	겹(袂)	첩리(貼裏)
흑(黑)	사 피(斜皮)	겹(袂)	유화(油靴)

41) 『高麗圖經』, 卷 23, p. 121.

위 <표 2>를 보면 아청(鴉靑), 유청(柳靑), 회색, 흑색 등의 색은 쪽물을 염색했던 것이며 백, 소색은 천의 자연색 그대로의 색을 나타내고 토홍색은 황토색으로 흑색은 쪽 이외의 숯검정이나 먹을 이용하거나 오배자와 쪽의 복합 염색 등의 복합색으로 물들여져 그 당시의 섬유 포(布)와 복식에 염료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조선 시대의 유물의 색을



오방색
(김지희 작)



오간색
(김지희 작)



12등 적의(翟衣) 수본(앞) 조선조, 길이 154.4(중앙박물관, 대구박물관 도록).



12등 적의 수본(뒤) 조선조, 길이 154.4(중앙박물관, 대구박물관 도록).

보면 석주선 박물관 소장인 <원삼(園衫)>(1822~1844, 덕은공주민속유물 제211호 길례용 공주대례복의 연두색)과 <자라쭈치, 땡기>(제212호)에서도 홍화로 염색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당의>(1822~1844, 공주소례복 제1호인 자색 당의와 제2호인 녹색 당의), 215호인 <청삼>과 제210호인 자색 <누비 저고리>는 자초로 물들인 귀한 유물 자료에서 전통색을 볼 수 있다.

또 중앙박물관 소장인 유물로 <12등 적의(翟衣) 수본>은 앞뒤에서 볼 수 있는 한지에 쪽색으로 물들인 바탕으로 핑 문양이 화려하게 나타나 있다.⁴²⁾ 그리고 조선시대의 왕비의 <당의와 대란 치마>에서 두록색과 쪽색의 염색을 볼 수 있다.

회화에 쪽물로 그린 유물은 프랑스 기메 박물관 소장 <화조도 병풍>

42) 국립대구박물관, 『한국전통복식 2천년』, 2002, p. 86.



당의 · 대란 치마 조선시대, 세종대 박물관 재현(국립대구 박물관 도록)

쪽으로 그린 화조도 병풍(프랑스 국립 기메 동양박물관 소장)



옷장시(난장에서 염색직 물을 팔고 있는 근 거)(프랑스 국립 기메 동양박물관 소장)



에서 섬세한 회화 기술을 볼 수 있으며, 또 같은 소장처에서 볼 수 있는 <옷장사>에서 조선시대 후기의 염색이 민간 수공업으로 넘어가 궁중의 류에 상납하거나 또는 자급 자족의 가내 수공업식 염색으로 물들여 옷 장사로 나타난 유통 상황을 볼 수 있다.

2. 고문헌(古文獻)의 근거

아래의 고문헌이나 기능 보유자의 구전을 근거로 천연 염색의 역사와 관련 염재 및 염색 방법을 유추할 수가 있으나 지면 한계의 사정상 구전은 생략하였다.

1) 『본초강목』(本草綱目)⁴³⁾

『본초강목』에서는 천연 염색으로 물들일 수 있는 염재와 약효과를 동시에 나타내주고 있다.

“치자(梔子), 쪽, 닭의장풀(鴨跖草), 잇꽃, 맥문동, 꼭두서니, 천초(茜草), 소방목(蘇枋木), 자초(紫草), 회나무(冬靑), 황백(黃芑), 회화나무(梔花 : 槐花), 물푸레나무, 검양옷나무, 소귀나무, 매자나무(小蘗), 울금, 오리나무, 수수, 참나무(橡實), 붉나무의 오배자(五倍子)”

43) 李時珍, 『本草綱目』, 高文社, 1973, pp. 58~1270.

본초강목(本草綱目)은 명나라의 이시진(李時珍)이 1590년에 펴낸 본초학(本草學)의 연구서(研究書)로 1892種 7항목에 걸쳐 52권에 해설해 놓은 책으로 식물성염료(植物性染料)에 관해서 많은 수가 기록되어 있다.

쪽에 대한 기록을 보면, “남(藍, 쪽)은 실지로 냇가나 또는 평평한 못
가에서 자라는 것으로 그 줄기와 잎은 푸른색(靑色)을 물들이는 데 사용
한다. 또 줄기와 잎을 모두 청염(靑染)에 사용한다(藍實生河內平澤, 其莖
葉可以染靑).”고 나와 있다. 여기에서는 쪽이 남실(藍實)이라 표현되고
있다.

2) 『동의보감』(東醫寶鑑)⁴⁴⁾

『동의보감』에는 쪽씨를 남실(藍實)이라 하여 열매로 기술하고 그 외의
천연염색의 약효있는 염재를 제시해 주고 있다.

상기의 염재인 약재에 대한 약효를 설명하고 특히 쪽의 약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쪽잎은 즙을 내어 짐승의 독, 사강독, 독약, 화살촉 등의 독을 다스리는 금
석(金石) 같은 약으로 천행열, 광유평열, 독종·독비, 피를 토하는 홍창을 치
유한다(藍葉汁殺百藥毒解狼毒射岡毒毒藥毒箭 金石藥毒治天行熱狼遊
風熱毒腫毒鼻洪血吐金瘡).”

상기의 『본초강목』이나 『동의보감』에서는 쪽(남초)의 씨를 약으로 쓸
경우 남실(藍實)이라 기재되고 잎을 사용할 경우 남(藍)이라 기술되어
있다.

44) 許浚, 原本『東醫寶鑑』, 南山堂, 1969, pp. 723~731.

동의보감은 1611년 허준(許浚)이 지은 의학(醫學)책으로 약간의 식물성염료(植物性染料)가
기록되어 있다. 남실(藍實), 천근(茜根), 자초(紫草), 소방목(蘇枋木), 홍남화(紅藍花), 상실(橡
實)중에서 상각(橡殼), 압척초(鴨跖草), 꼭두서니(茜草)』

3) 『규합총서』(閩閩叢書)⁴⁵⁾

(1) 남(藍)에 관한 기록으로는, ‘홍화(紅花), 매실(梅實), 오미자(五味子), 쪽잎, 갈매, 괴화(槐花), 왜황련(倭黃蓮), 황백(黃栢), 울금(鬱金), 황단(黃檀), 고동근(苦棟根), 치자(梔子), 뽕나무’라고 되어 있다. 해설문은 다음과 같다.

쪽잎이 둥글고 두꺼워 두툼두툼한 것이 중국종 좋은 것이고 얇고 귀난 것은 좋지 않다. 날이 몹시 더울 때 잠시 동안에도 쉬어 빛이 붉어지니 서늘한 날을 가려 들여라. 쪽잎을 물에 담고, 독에 물을 많이 길어 붓고, 비단과 명지를 담가 놓고, 큰 바가지에 쪽 가는 돌을 들여세우고 물을 처가며 힘써 갈아, 얼음 얼려 다른 그릇에 체에 받쳐, 감을 넣어 들여라. 연 쪽빛은 물을 조금 섞고 얼음을 많이 꽃아 손을 재게 놀려 너비를 잇아야 쉬지(쉬다=물빛이 상하다) 않는다. 물속에 잠긴 것은 누른 빛이 있어, 물빛의 옅거나 짙게 뚫을 알기 어려우니 위에 얼음을 놓아 밑에 비치는 것으로 짐작한다.

질은 쪽빛은 여러 번 들이면 산뜻하지 못하니 물을 타지 말고 전국을 받쳐 들여 냉수에 얼음 넣어 여러 번 급히 행귀 빙수에 한동안 담가 두면 빛이 산뜻할 것이다. 만일 손 놀리기를 천천히 하면 물빛이 상하고 두드려 빨면 빛이 곱지 못하니, 꼭 배틀어지게 짜서 대에 꿰어 그늘에서 힘써 잡아당겨 부쳐 마르거든 줄에 걸고 오래 부채질하여 감추어야 물빛이 상하지 않는다.

45) 憑虛閣李氏, 『閩閩叢書』, 寶晉齋, 1975. pp. 150~154.

정조조(正祖朝) 병허각(憑虛閣) 전주 이씨(全州李氏)가 지은 책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다.

쪽의 해석은 지면상 생략하고 핵심 부분만 설명하면 여기서 남의 생엽 염색의 여름에 상하지 않게 얼음을 사하고 물속에서 산화시킨 후 짜고 난 후도 공기 중에서의 산화를 잘해야만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2) 쪽의 옥색

옥색의 해석으로과 같다.

옥색은 늘 쪽빛 들인 끝에 들이므로 눈이 푸른데 현란하고, 또한 나뭇잎이 우거진 때니, 자연히 지나치게 푸르기 쉬우니, 먼저 쪽즙을 내어 약간 얼음물에 섞어 들이고 여러 번 얼음물에 행귀 부쳐라. 겨울에 쪽 없는 때, 옥색을 들이려면 갈매 개오기(再染染色)와 새 야청 조각을 더운 물에 각각 빨아 다른 더운 물에 두 가지 빨 물을 반반하여 슬쩍 섞어 백반 곱게 가루로 하여 조금 치고 고루고루 들여라.

이 내용에서 쪽철에 천을 염색하여 개오기로 사용했다가 겨울에 그 쪽색을 개워 내도록 하여 백반 매염제를 쓰도록 한 것이 특징으로 생엽 염의 견뢰도를 높이는 데 주의하고 있다.

(3) 쪽 색깔인 반물

반물(藍物)의 해석으로 다음과 같다.

반물빛을 곱게 들이려면 쪽잎 성한 것을 가려 큰 사항아리에 담고 물을 붓고 쪽대를 씻어 우뚝고 돌로 눌러 두어라. 이튿날 넣던 때에 꺼내어 물을 쏟으면 푸른 빛이 약간 있을 것이다. 그 전에 명아주 잿물을 내려두었다가 그 물에

치고 삼대를 왼손에 잡고 저어라. 금방 푸른 꽃거품이 일거든 모시와 무명을
들이면 곱기 청대 반물보다 훨씬 낫되, 그 물이 다만 하룻밤 재우고 들이고 오
래 두지 못하므로 오직 쪽이 있을 때만 들인다. 사문류취에 이르기를 이후 주
말년에 궁인이 다 푸른 옷을 입으니 청대꽃이 성할 때, 비가 와서 똑똑 떨어지
는 것으로 물들이고 부르기를 천수벽이라 하였다 한다.

여기에서 청대꽃이라 함은 쪽꽃을 말함인데 쪽으로 청대를 만드니 청
대꽃이라 하였고 비온 뒤 쪽을 담갔다는 내용과 그 색을 천수벽이라 하
였다는 말이다. 그리고 반물빛을 들이려면 재배가 잘된 쪽잎만을 가려
서 담아 그 위에 쪽대를 덮어 침전하는 방법과 그 중 잿물을 명아주 잿
물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4) 팔유청

팔유청의 해석으로는 다음과 같다.

쪽빛을 검은 빛이 나도록 푸르게 들여 위에 황백을 진히 먹이면 곱기 연듯
빛보다 낫다는 뜻으로 쪽빛과 황백의 복합염을 말한다.

이 내용은 쪽빛과 황백의 복합염을 말하며 녹색의 염색 중에서는 연
듯빛보다 팔유청인 진한 녹색을 선호함을 말하고 있다.

(5) 보라

보라의 해석으로는 다음과 같다.

여자의 옷은 짙은 옥색을 들이고 연지를 들이라. 나이 어린 남자 옷은 연쪽 빛 위에 연지를 들이되, 연지를 함께 많이 씻고 먼저 신국을 쳐들이면 얼룩지니 단물을 따뜻하게 하여 연지를 조금씩 차츰차츰 마음대로 들인 후, 나중에 오미자국을 쳐 깨워야 채진 것이 없다.

이 내용은 옥색과 연지의 복합염의 순서와 연지를 녹여 물들이는 방법으로, 오미자산을 염색 뒤에 가하여야만 얼룩이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한다.

(6) 괴화(槐花)와 쪽의 복합염

괴화(槐花)와 쪽과의 복합염에서 얻을 수 있는 초록 복합 염색의 황색 염색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유월에 느티나무꽃이 채 다 피진 않고 막 반쯤 필 무렵 따서 썬 말리어 두었다가 들일 임시, 쇠불이를 꺼리리, 통노구에 볶아서 진히 달여 채워라. 노란 재를 살려 불꽃이 막 한창 필 때 시루에 담고 물을 부어 불이 물 속에 소리나게 내려서 다섯 번만 되받쳐 독하고 미끄럽게 하여 느티꽃물을 (옷)감에 진히 들인 후 이 잿물에 빨면 혹 속히 누르러진다.

이 경우는 초록색을 들이기 전의 괴화의 황색 염색을 먼저 서술하고 있다.

(7) 삼비(조개풀)와 쪽과의 복합염

삼비(조개풀)와 쪽과의 복합염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삼뱌(조개풀: 황색염료)을 달여 이 법으로 들이면 빛이 더 고우니 두 가지 중
 들어 부쳐 말린 후, 당쪽을 뿌리와 꽃만 따고 정히 씻어 반은 가마에 물 많이
 붓고 쪽대째 진하게 고아 식은 후 얼음을 많이 채워 둔다. 반은 연한 줄기와
 잎을 얼음 얼려 돌에 갈아 두 가지 즙을 체에 받쳐 반반 섞어 누른 밀거리에
 들이되, 짙은 초록은 두 물쯤 먹이고 연한 것은 한 물 먹이라. 늘 몹시 뜨거울
 때 들이니, 눈 깜짝할 사이에 쉬어 상하기 쉽다. 초록은 물빛이 병든 후는 다
 시 고칠 수가 없으니 오로지 얼음을 만히 채우고 손을 재게 놀려 대에 꿰어 그
 늘에서 켜 부쳐야 윤나고 산뜻하다. 으스러지게 짙은 초록은 숙남을 섞고, 짙
 은 이의 봄버들빛 오련한 초록인 숙남(미리 고아서 식혀 놓은 쪽 즉 익은쪽)은 얇
 고 곱지 못하니 밀거리를 짙게 하고, 생쪽 진하게 간 전국을 들이라.

이 내용에서 두 가지라 함은 <삼뱌>라고 되어 있는 조개풀과 상기의
 <괴화> 중 선택하여 황색을 물들이고 당쪽이라 칭하는 마람류의 쪽을
 숙남 즉 미리 고아서 식혀 놓은 쪽으로, 익은 쪽과 생쪽염과의 염색되는
 색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8) 황벽(黃蘗)의 두록⁴⁶⁾ 복합 염색

해석은 다음과 같다. 황벽은 쪽과의 복합염에 사용되니 본 고에 기술
 한다.

왜항련 '담근' 물이 으뜸이나 '귀하여' 능히 많이 들이기 어려우니, 두메

46) 두록 염색시 왜항련이나 황백나무로 황색을 먼저 드린 후 쪽의 옥색을 물들이 은행색을 얻고
 붉게 누른 살구빛이 도는 황색을 원하면 심황을 갈아 염색한 후 쪽색을 진하게 염색하면 유청빛
 이 된다.

황백 큰나무에서 벗기되 두껍고 비늘같이 무늬진 것이 좋은 것이니 잘게 뜯
되, 쇠붙이를 꺼리니 손으로 뜯어야 한다. 칼로 베면 물이 곱지 못하다. 한 번
만 깨끗이 씻어 찬물에 담가 추운 때는 며칠 두어 진하게 우려나(거든) '물이
미끄럽고 걸거든 바야흐로 들이되' 물빛의 짙고 옅음은 마음대로 들여라. 물
들일 거리를 담가 밤 채우면 빛이 상하니 바로 들이라. 나이 많은 사람은 질
은 옥색에 들이면 은행색으로 곱게 든다. 두릅이 너무 짙은 노랑색이면 아리
맵지 못하니 겨우새끼 갓 간 빛이 좋되, 혹 붉게 누른 살구빛 취하기가 원하거
든 심황을 잘게 썰어 물에 담가 흙백 불려 강판 같은데 갈고, 찌꺼기는 돌절구
에 죄 쪼어 물 쳐서 고운 체에 받쳐 황백 들인 위에 진히 먹이면 유청빛이 된
다.

이 내용은 두릅색의 염색으로 왜황련이 좋으나 비싸니 우리 나라 황
벽을 사용하되 칼로 베지 말고 손으로 베어서 찬물에 담가 두었다가 물
들이되 쪽의 옥색 들인 뒤에 들이면 은행색이 되며 누런 살구빛을 원하
면 심황을 잘게 썰어 물에 담가 강판에 갈고, 절구에 쪼어 체에 받쳐 황
백 염색 후 진하게 들이면 유청빛이 된다고 하였다.

4)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⁴⁷⁾

소방목(蘇方木), 소귀나무(楊梅), 아랑오, 측규화(접시꽃), 괴화(槐花)나
무, 살구나무, 오리나무, 꼭두서니, 비름, 노목, 황백(黃佰), 당리나무, 금잔

47) 서유구, 『임원경제지, 전공지』, 보경문화사, 1983, pp. 510~517.

임원십육지(林園十六志)라고도 하며 서유구(徐有)가 지은 책으로 형수인 규합총서를 토대로
『천공개물』 등 중국의 책에서도 많이 응용하여 염료(染料) 및 염색법(染色法)이 자세히 나와 있
다.

화, 쪽, 갈매나무, 사과나무, 붉나무, 물푸레나무, 갈대, 버드나무, 매화나무, 연자, 호두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물들이는 법을 기록한 문헌으로 쪽에 관련된 것만을 기술한다.

『동염(凍染)』에는 명주, 비단, 면직, 삼베 등을 다 염색할 수가 있는데, 면직, 삼베보다 명주와 비단이 더 염색이 잘 되므로 잠속(蠶續) 아래에 연결하여 기록되어 있다.

(1) 남(藍)이라 기록되어 있는 쪽염

“6,7월 요람(蓼藍)엽이 살찌고 즙이 성할 때에 그 잎을 깨끗한 그릇 안에 넣고 찢어서 뽕아 즙을 취해서 물을 들이되, 경복(庚伏: 복이 들어 있어서, 아주 더울 때)에는 쪽물이 변색되기 쉬우니 반드시 조빙(照永: 얼음을 섞어서)해야 한다(六七月蓼藍葉肥津盛時取葉于淨哭內撈水淸碎取汁染之染藍每當庚伏易致蒸范變色故源照永).”

이 내용은 쪽(남)염의 생엽염을 말하며 얼음 섞어서 염색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2) 취람천람(翠藍天藍)

이는 쪽염에서 물들여지는 색을 말하는 것으로 “두 색은 다 쪽물로 염색되는데 진하고 얼음만이 다르다(二色俱 水分深淺).” 이 내용은 쪽물염색의 농담색을 말한다.

(3) 아청색(鴉青色) 염색

“연한 쪽잎을 깨끗이 씻어 항아리에 넣고 물을 부어 3일간을 담갔다 가 3일 되는 아침에 찌꺼기는 걸러내고 다시 쪽잎에 물을 부었다가 3일

째 아침에 전과 같이 한다. 동이에 항아리 물을 나누어 담고 동이마다 쑥
갯물(蓬蒿灰) 3사발을 섞어서 3일 동안을 그치지 말고 사람을 교대하면
서 젖고, 하루 뒤에 진한 청색이 붉은 빛을 띠게 되면 염색하는데 여덟
번이면 극히 아름답다(採嫩藍葉淨洗納注水三日朝渡去滓更納藍葉注水三
日朝又如之以盆量中水每一盆和蓬蒿灰三鉢動盪之連三日易人揚之待一
日後深青揚赤色染之凡染八度極妙).”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쪽의 침적일
과 갯물의 종류를 나타내 주고 있다.

(4) 천청색(天青色)

“쪽 항아리(靛甕)에 넣어 열게 염색하고 그 위에 소목(蘇木)물로 짙게
물들인다(入靛甕淺染蘇木深蓋).”고 되어 있는데, 이는 쪽과 소목과의
복합염을 말해준다.

(5) 포도청색(葡萄青色)

“쪽항아리에 넣어 짙게 염색하고 그 위에 소목으로 짙게 물들인다(入
靛甕淺染蘇木水深蓋).”에서 쪽과 소목과의 염색에서 포도색과 같은
복합염을 나타낸다.

(6) 단청색(蛋青色)

“황백으로 염색한 후에 쪽항아리에 넣는다(黃栢水染然後入靛甕).”고
되어 있는데, 황백과 쪽과의 복합염으로 초록색을 물들일 수 있다.

(7) 현색(玄色)

“쪽물로 깊은 청으로 염색하고 노목과 양매(楊梅)껍질을 같은 분량으

로 닳여서 위에 염색한다. 또 한 방법은 쪽대와 잎을 물에 담근 후에 청반(靑礬)과 오배자(五培子)를 넣고 옷감을 같이 담근다. 이렇게 물들인 옷감은 쉽게 상한다(靛水染深靑蘆木楊梅皮等分煎水盖于法劣 藍芽葉水浸然後下靑礬培子同浸令布帛易朽).”⁴⁸⁾

현색은 쪽물로 들일 수 있는 검은 쪽물색인데 매염제로 청반과 오배자를 동시에 넣고 염색하는 것으로 색은 좋으나 섬유가 손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8) 자색(紫色)

소목과 쪽(청반물)과의 복합염으로 “소목물로 들이고 청반물에 담근다는 소목과 쪽물의 복합염을 말하고, 동양인이 자색을 염색할 때는 먼저 소목을 물에 끓여 타각(打脚)하고, 자초를 냉수에 오랫동안 담가 두었다가 찌꺼기를 걸러내고 포백을 염색하고 다시 노린재나무회즙(黃灰木灰汁)을 가지고 표백한다(蘇木爲地靑礬尙之 東人染紫先以蘇木煎水打脚乃以紫草浸冷水中停久節去滓浸 染布帛更用黃灰木灰淋水漂)”는 내용이다. 이는 먼저 소목을 끓여서 염색한 후 다시 자초 염색을 한 후 노린재나무 잣물로 후 매염한다는 뜻이다.

5) 『천공개물』(天工開物)⁴⁹⁾

중국의 고문헌으로 『임원경제지』의 저자인 서유구가 이 『천공개물』에 서 많은 참고를 하였다. 여기에서도 쪽과의 복합이나 쪽염에 관련된 것만

48) 송응성(宋應星), 『天工開物』, 明鍾廣言注釋, 中華書局, 1978, pp. 113~115.

49) 宋應星, 『天工開物』, 明鍾廣言注釋, 中華書局, 1978, pp. 113~115.

을 기술하되, 『임원경제지』와 중복된 내용인 천청색, 포도청색, 단청색, 휘람, 천람, 현색 등은 피하고 그 이외 것만 제시하였다.

(1) 아황색(鵝黃色)

황벽과 쪽의 복합염으로 “황백(黃柏)을 닳인 물에 염색하고 그 위에 쪽물로 들인다(黃柏煎水染靛水蓋上).” 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초두록색(草豆綠色)

황벽과 쪽의 복합염으로 “황백물로 염색하고 그 위에 쪽으로 들인다. 근래에는 잎이 작은 쪽인 소엽람(小葉藍)을 닳여 사용하는데 그 색이 아름답고 초두록(草豆綠)이라고 부르는데 매우 선명하다(黃柏水染靛水蓋今用小葉藍煎水蓋者名草豆綠色甚鮮).” 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의 소엽람이란 최근 재배하고 있는 요람류를 말하는 것이며, 요람류의 쪽을 닳여서 복합염으로 사용하였다.

(3) 대홍관록색(大紅官綠色)

괴화와 쪽의 복합 염색을 말하는 것으로 “괴화 닳인 물에 염색하고 위에 쪽으로 들어 열고 길게 하는데 다 명반을 쓴다(槐花煎水染藍澱蓋淺深皆用明礬).”에서 괴화와 쪽의 복합염을 말하며 녹색의 농담을 매염제로 명반을 사용했다.

(4) 월백초백이색남염(月白草白二色藍染)

이 두 색은 다 쪽물에 열게 염색한다. 근래의 방법은 현람(莧藍)⁵⁰⁾을 살

50)현람(莧藍): 『천공개물』에는 茶藍이나 藍이라 기록되어 있다. 1637.

작 닳여 염색한다.”의 내용에서 생략되어 있다.

여기서의 쪽은 송남류의 쪽물을 닳아서 염색하는 것으로 가열 염색을 말한다.

(5) 괴화(槐花 : 鮮黃色)

괴화는 쪽과 복합 염색하기 때문에 본고에 수록한 것으로, 괴화꽃에 대한 설명과 쪽과의 복합 염색을 말한다.

“괴화(槐花)는 수십 년이 지나서 비로소 꽃과 열매를 맺는다. 꽃봉오리가 벌어지려 하고 아직 벌리지 않은 것을 괴삽(槐澁)이라 한다. 이것을 녹염색에 사용하는 데는 홍화(紅花)에 의해서 홍색으로 물들이는 것과 같이 한다. 단 꽃은 물로 한 번 찌내고 말리어 휘저어 떡모양(병상·餅狀)으로 한다. 꽃봉오리가 벌어진 꽃은 색이 황색이 된다. 보존하는 데는 석회를 조금 넣어 햇빛에 바래면서 휘저어 섞어 저장한다(凡槐樹十餘年後方生花突。花草拭未井者日槐澁⁵¹⁾綠衣所需, 技紅花之成紅也。取者張度與 稠其下而承之, 以水煮一沸, 鹿干, 捏成餅, 入染家用。旣方之花色漸入黃, 收用者以石灰少許晒拌而藏之)。”

이 내용은 괴화나무와 꽃에 대한 설명과 쪽과의 복합 염색을 홍화의 염색과 동일하다고 하고 괴화의 꽃봉오리 보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6) 『상방정례(尙方定例)』⁵²⁾

『상방정례』에는 주로 홍화에 관련 내용이기여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51) 괴예(槐蕊), 괴삽(槐澁), 괴화나무(槐나무) 꽃술.

52) 英祖 28年(1752), 『尙方定例』尙衣院에 定例로 編成된 것

7) 『산림경제(山林經濟)』⁵³⁾

(1) 쪽(藍)의 재배 과정은 2장의 쪽재배에서, 생쪽과 익은 쪽의 복합염 제조와 물들이기는 4장에 기술하니 여기는 생략한다.

(2) '청대(靑黛)' 라고 되어 있는 『한중록』⁵⁴⁾에서 인용되었던 쪽(藍)염의 재배, 김매기, 거름주기, 염색법과 쪽염의 2수, 3수를 나타내 주고 있다. 이 내용은 '2 쪽의 재배와 채취' 에서 서술하니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8) 『악학궤범』⁵⁵⁾

악사와 무용수의 관복과 의물에서 염색된 근거를 많이 찾을 수 있다. 『악학궤범』의 출처는 『아악진설도설』, 『속아악진설도설』, 『당악정재의물도설』, 『연화대복식도설』, 『정대업정재의물도설』, 『관복도설』, 『처용관목』, 『무동관복』, 『여기복식』등의 문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악학궤범』에 나타난 색채는 오방색 계열을 사용하고 있으며 오간색 계열도 오방색 계열에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청색 계열색은 청남삼, 녹초삼, 남주의, 청방의, 초록실, 남주, 청색, 청상피, 남주, 청색, 청사피, 남단이 있고, 녹색 계열 중 압두록색이 나타나나 그 색은 흑색 계열에 속할 만큼 어두운 검은 녹색이다.

53) 洪萬選, 『山林經濟』, 숙종대(18세기)

홍만선(洪萬選)의 산림경제는 식물의 재배, 염색부터 의약·경제·도구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54) 『한중록(閑中錄)』, 조선조 21대 영조대 혜경궁 홍씨가 지은 내간체의 책 사본.

55) 金芝希, 『樂學軌範』, 『服飾과 儀物의 색채』, 國立國樂院 國樂院論文集 第3輯, 2001.

9) 『한국복식자료선집』(韓國服飾資料選集)

이외에도 『한국복식자료선집』⁵⁶⁾, 이금익(李肯翊)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⁵⁷⁾ 등에 염료의 명칭 및 염색법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 『천공개물』은 중국의 고문헌이며 연희식은 일본 고문헌이다. 염색기술은 삼국이 서로 연관되어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우리 나라의 염색은 고조선부터 조선왕조까지 식물성염료에 의한 염색법이 매우 다양하게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한국복식자료선집』 문헌에서는 (1) 곤지(丹脂) (2) 도화면(桃花面) (3) 담화 (4) 연지(臙脂) (5) 오주연문장전산고(五州衍文長箋散稿)⁵⁸⁾ (6) 오주쇄록(五洲瑣錄) (7) 물리소지 (8) 농정전서(農政全書) (9) 중화고금주(中華古今注) (10) 예소(禮疏) 등에 기록되어 있으나 본고는 쪽물 중심으로 기술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10) 『연희식』(延喜式)

일본의 고대 염색술이 가장 많이 기술되어 있는 『연희식(延喜式)』⁵⁹⁾이

56) 金英淑, 『韓國服飾資料選集』.

57) 이금익(李肯翊),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pp. 109~545.

58) 오주연문장전산고(五州衍文長箋散稿).

59) 延喜式: 韓國植物染色考(李良燮)에서 延喜式에 대한 한문만의 내용을 발췌하여 本研究者(金芝希)가 한글로 해석하여 고찰한 것이다. 800년대 日本 평안초초기(平安朝初期)의 관선법문(官選法文)으로서 조정년중의식(朝廷年中儀式), 백관임시작법(百官臨時作法), 제국(諸國)의 정례(定例) 등을 상기시킨 최귀(最貴)의 고전(古典)이다. 염색법(染色法)에 있어서는 가장 오래 것이고 당시의 염색법(染色法)은 中國, 韓國, 日本에 共通點이 있었다고 사료되며, 특히 이 秘法 중에는 韓國式 홍화염법(紅花染色法)이 소개되는 것으로 이것은 귀화인(貴化人)들에 의한 비법(秘法)이었다.

라는 고문헌으로 홍화, 소방, 꼭두서니 염재로 비단, 갈포에 물들이는 방법과 양이 기술되어 있다.

11) 국역 『조선왕조실록』

상고시대부터 남(쪽) 염색을 했다는 기록과 이 조선조 27명 임금의 실록인 『조선왕조실록』에서도 기록되어 있으며 고문헌에서 이미 제시하는 이외의 구전(口傳)과 재현도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의 복식과 공예, 복식사와 천연 염색을 통해 남(쪽) 염료를 이용한 근거를 제시한다. 『조선왕조실록』⁶⁰⁾의 기록은 “태종 16년 7월 17일(병오)에 6대언에게 백저포 각각 모시 2필을 하사하고 군신의 여름철 관복 색깔 정해준다.”⁶¹⁾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 중에서 염색 중 남색(쪽색)에 관한 기록을 보면, “(조락) …… 염색(染色)을 하여서 입게 하고 여러 신하의 옷을 짙은 남색(藍色), 혹은 붉고 검은 빛(紅黑色)을 쓰고……(하락)”라고 되어 있다. 내용은 쪽물의 짙은 남색의 쪽의 홍흑색을 기술하고 있다.

“세종 22년 10월 30일(기해)에 예조 판서 민의생이 관리 의복의 색상 변경을 건의하다.”는 기록에서 예조 판서 민의생(閔義生)이 아뢴다.

“지금 조정의 관리들이 모두 푸른 빛깔의 옷을 착용하는데, 물들이는 값이 매우 비쌉니다. 이제부터는 각각 심홍(深紅)·토황(土黃)·옥색·남색 옷을 착용하도록 함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옥색은 국초에 숭상

60) 『朝鮮王朝實錄』, 이조실록이라 기록되고 27 임금의 실록이 기록된 고문헌.

61) 태종 16년 7월 17일(병오)에 『朝鮮王朝實錄』 제1집, 2집 129면, 왕실·사급(賜給), 의생활·관복.

하던 것이나, 그러나 고려 사람이 흰옷을 입기 좋아한다는 말이 중국의 사전(史傳)에 보이고, 토황색 옷은 중국에서 흉복(凶服)으로 여기며, 심홍색 옷은 여자의 옷에 가깝고, 남색 옷은 왜인의 옷(倭服)과 유사하니 모두 불가하다. 푸른 빛깔의 염료가 비록 값이 높다고 하더라도 군사(軍士)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미 갖추었은즉, 어찌 어려울 것이 있겠는가. 더구나 항상 입는 옷도 아닌데서라, 또 초록색·다할색(茶割色)·유청색(柳靑色)은 입어도 가하나, 그것은 다시 의논하도록 하라.”⁶²⁾

“성종 10년 6월 10일(을미)⁶³⁾에 제주도 표현인 김비의 등으로부터 유국 풍속과 일본국 사정을 듣다.”는 기록은, “(초략)……염색(染色)은 남청(藍靑)을 쓰고, 속옷은 백포(白布) 세 폭을 써서 볼기[臀]에 매었으며, 부인의 옷도 같았으나, 다만 속치마를 입고 속옷이 없으며 치마도 푸른 빛을 물들였다.”에서 쪽물을 부인 옷에 물들였다는 근거를 제시해준다.

“성종 16년 11월 21일(무진)에 전조에 조사들이 입던 복색이 지금 없는 이유를 하문하니 승지가 그 이유를 아뢰다.”에서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내가 듣건대, 세종조(世宗朝)에 조사(朝士)들이 입는 원령(圓領)은 더러는 압두록(鴨頭綠)으로 염색하고 더러는 감다갈(紺茶褐)로 염색하고 더러는 아청(鴉靑)으로 염색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런 복색(服色)이 없으니, 금하는 영(令)이 있어서 그런가, 사람들이 스스로 입지 않는 것인가?……(하략)”⁶⁴⁾

62) 『朝鮮王朝實錄』 제1집, 4집 322면, 의생활-관복(官服), 왕실-의식(儀式).

63) 『朝鮮王朝實錄』 제1집, 1집 76면, 의생활.

64) 『朝鮮王朝實錄』 제1집, 1집 77면, 의생활-예복(禮服), 역사-전사(前史).

이 기록에서는 쪽물의 복합염에서 얻을 수 있는 압두록색과 감다갈색을 제시하고 쪽의 아청색을 알 수 있다.

“선조 29년 3월 2일(기사)에 백관의 복색이 발란하다고 정비를 명하다.”에서는,

“(조락)……당상(堂上)은 평소와 같이 남색(藍色)을 쓰고, 당하(堂下)는 베(布)에다 흑색을 물들여 쓸 것이며 자황색은 일체 엄금하라. 만약에 흑색으로 염색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 절반쯤 청색으로 염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것은 장만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참작해 의논하여 조처하게 하라.”⁶⁵⁾

하여 색의 금제와 남색과 흑색을 나타내주고 자황색의 금제를 가리키고 있다.

“중종 20년 7월 15일(임신)에 상의원이 가뭍으로 인해 의대를 염색할 쪽풀이 고갈됨을 아뢰다.” 상의원(尙衣院)이 아뢴다.

해마다 준례가 쪽(藍)으로 의대(衣帶)를 물들이는데, 공용(公用)쪽이 가뭍으로 말라버렸기 때문에 염색을 끝내지 못했으니, 사사 쪽을 구입하여 염색을 끝내고 싶습니다.……(하락)”⁶⁶⁾

여기에서 공용 쪽과 사사 쪽의 기록을 보아서도 관청 이외에 민간의 쪽을 염색을 알 수 있다.

65) 『朝鮮王朝實錄』 제1집, 22집 654면, 군사·전쟁(戰爭), 외생활·관복(官服).

66) 『朝鮮王朝實錄』 제1집, 16집 436면,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상업(商業), 과학·천기(天氣).

“연산 10년 8월 23일(경진) 상의원으로 하여금 저사 다홍색 2필 등을 짚 실을 염색하도록 전교하다.” 에서 보면,

“저사(紵絲) 다홍색(大紅色) 2필 · 자색(紫色) 1필 · 아청색(鴉青色) 1필 · 다할색(茶割色) 1필 · 사(紗) 자색 3필 · 황색 2필 · 다홍색 2필과, 라(羅) 다홍색 2필 · 자색 3필 · 아청색 1필 짚 실을 상의원으로 하여금 염색하도록 하라.” 하였다.⁶⁷⁾

하는 기록에서 모시로 물들인 다양한 염색 중에서 아청색 1필이라는 기록이 있다.

위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염색된 포종류에서 염재의 양(量)과 색채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3. 쪽 염색의 의미와 특성

1) 쪽 염색의 의미

우리 나라 전통 색채 개념은 음양오행적(陰陽五行的) 색채관에 근거를 둔 것으로 다섯 가지의 오정색과 다섯 가지의 간색을 기본색으로 하여 오행(五行)의 원리에 따라 인식하고 사용하였다.

적, 청, 황, 백, 흑색은 오정색, 또는 오방색으로 동방의 청색과 중앙의 황색은 간색으로서 녹색이 있고, 동방의 청색과 서방의 백색은 간색으

67) 『朝鮮王朝實錄』 제1집, 13집 658면, 공업(工業), 22집 654면.

로서 벽(碧)색이 있고, 남방의 색과 서방의 색은 간색으로서 홍색이 있다. 북방의 흑색과 남방의 적색은 간색으로서 자색이 있고, 북방의 흑색과 중앙의 황색은 간색으로서 유황색(黃色)이 생긴다. 이러한 색을 오간색(五間色) 또는 오방잡색(五方雜色)⁶⁸⁾이라고도 말한다. 오정색 가운데에서 남방의 적색과 동방의 청색은 양색이라고 말하고 서방의 백색과 북방의 흑색은 음색(陰色)이라고 말한다. 위의 오정색 가운데 청색은 쪽염으로 물들여진 색이다.

쪽염재로 염색을 하여 나타내었던 푸른색 계열의 색명으로는 청색·아청색(靑靑色)·갈매색, 벽색(碧色)·검푸른색·반물색·심청색(深靑色)·녹색·유록색(柳綠色)·두록색(豆綠色) 등이 있었다. 이중 오색에 포함되는 청색은 오행법상 본위(本位)로 동방을 나타내는 색이라 하여 흰옷을 즐겨 입던 당시 토서민(土庶民)에게 흰 옷 대신 항상 권장되었던 색이었다. 궁중에서는 성종 이전까지 왕세자의 복식이 녹색이었고 백관(百官)의 복색이 아청색, 또한 대비 중전의 치마가 남(藍)스란 또는 남(藍)대란이었으며, 청색은 일반에게도 허용되었던 색인 만큼 조관에서 선비 그리고 평민에 이르기까지 널리 사용되었으며, 옷옷으로 입혀졌던 도포의 길복에 청색을 사용하기도 했다.

복식에 사용된 푸른색의 염료로는 남(藍 : 쪽), 닭의장풀이 가장 널리 사용되었고 그밖에 닥나무의 잎, 수장나무의 열매 등이 쓰이기도 하였다. 단색성 염료중에서 남 염료는 건염염료(建築染料)로 그 성분이 인돌 유도체(Inderivative)이며 요람(蓼藍), 인도남, 승남, 대청, 유구남, 마남, 보라조개 등이 여기에 속하며 건염 염료로 남(藍)과 같은 불용성 색소를 알칼리로 환원시켜 염색하고, 공기 중에서 산화 발생시켜 불용성 색소

68) 정시화, 『한국인의 색채의식에 관한 연구 조형통론』, 국민대, 1983.

로 돌아가게 되어 건뢰도가 좋고 그 중 쪽(남:藍)염이 가장 건뢰도가 우수한 염료이다. 특히 쪽은 천연 염료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고 고대에 우리 나라의 청은 남이라 불리었으며 쪽색이야말로 초목염의 시작이라 생각할 수 있다.

2) 쪽 염색의 특성

옛날부터 쪽은 '쪽빛하늘', '쪽빛바다' 라는 말은 국어에서 상용되는 말로 남(藍) 빛을 의미하며 쪽의 주성분은 인디고(Indigo : $C_{16}H_{10}O_2N_2$)이다. 어원적으로 살펴볼 때 라틴(Latin) 어의 인디칸(Indican : $C_{14}H_{17}O_6N$)이라 하고, 중국에서는 청람(靑藍)이나 남전(藍靛)이라 하며 이 쪽의 특성은 수분과 열을 가하여 발효시키면 가수분해하여 인독실(Indoxyl)이 생성되며 이 색소물이 공기와 접촉하여 산화시켜 불용성의 염료가 되는 원리이며, 상기의 인디칸이라는 용어로 보아 쪽물의 명칭으로 인도로부터 수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후에 인디고(Indigo)라고 하여 청색 염료(染料)를 지칭하게 되었다.⁶⁹⁾

쪽은 여뀌과 및 마디풀과(polygona ceae)에 속하는 요람(蓼藍)류의 쪽풀로 이 종류를 우리 나라의 고문헌에는 남, 소람, 종람, 남, 쪽으로 불리 어지며 1년초 염료 식물(학명 : *Persicaria Tinctoria* Gross)이며 인류 역사상 식물 염료로서는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이 바로 쪽풀이다.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인도, 중국, 페르시아 사람들이 푸른색으로 염색하여 사용했는데 이것은 쪽물에 의한 염색인 것으로 추정되고 그때의 쪽 염료 제조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쪽의 품종이 세계적으로 300여 종이나 되고 우리

69) Encyclopedia Britannica Vo 22 Dyeing.

나라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은 대부분 여뀌과 식물이다. 줄기는 마디가 있고 뿌리 근처에 털이 나와 있으며 키는 60~70cm 가량으로 장타원형 잎이다. 7~8월에 이삭형의 꽃이 필 무렵 즉 꽃대가 올라올 때 잎에서 남빛 색소를 분리 추출하여 자연 염료로 널리 이용한다.

대부분 재배되는 품종은 우리 나라에서 일본으로 실크로드를 통해 건너갔다가 다시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쪽이 재배되고 있으나, 나주에서 재배되는 쪽 품종은 요람 이외에 우리 전통 토종 쪽이라고 하는 여뀌과 식물의 요람(蓼藍)이 동시에 많이 재배되고 있다.

쪽염색의 특성인 색은 다른 색과는 다르게 자연에서 바로 재현할 수 없다는 것이며, 조개 가루(消石灰)와 잿물의 매염제로 형성되는 자연 염료로 산화와 환원이라는 화학적 변화를 거치면서 살아 있는 미생물의 발효 작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고도의 숙련된 경험과 매우 복잡한 공정 과정을 거쳐야 쪽염료를 얻을 수 있다.

쪽은 특수한 염료이고, 동시에 건염 염료인 일반 스텐 염료와 기본적인 성질은 같아도, 쪽염색은 일반 스텐 염료와 극히 다른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인디고를 특징 지우는 모든 성질을 기술하면, 쪽의 인디고(Indigo)는 본질적으로 환원성의 바트(Vat)염료이고 소량의 환원제와 알카리를 가하여 얻은 침전물을 다시 발효 조건에 맞춰 환원시켜 레이코(leuco)화하여 얻은 염료로 염색하여 다시 공기에 산화 발색시키는 원리이다.

2 쪽염의 재료와 도구

1. 천연 염색 종류와 매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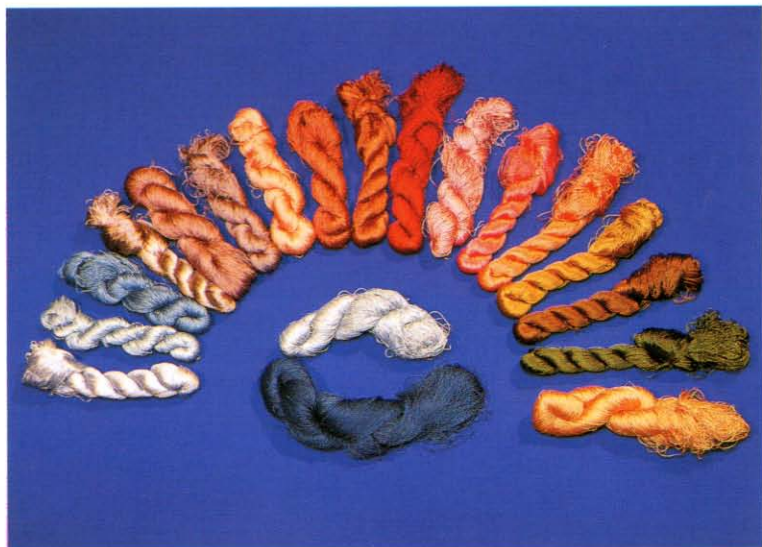
1) 천연 염색 종류

(1) 식물성 염료

문헌에 나타난 전통 염재로 사용한 식물의 종류는 50여 종이나 매염제와 염색 방법에 의해 전통 색채명이 105여 가지의 색채를 낼 수 있었음을 기록⁷⁰⁾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중 실을 물들인 천연 염색과 쪽, 황벽, 홍화화 소목 등을 물들인 천의 색을 제시하였다.

식물 염료는 식물의 잎과 꽃, 열매, 껍질, 심재와 뿌리 등인데 한 종류의 염료로 한 색상만이 염색되는 단색성 염료와 각종 매염제와의 결합으로 많은 색이 염색되는 다색성 염료가 있다. 다색성 염료는 식물 염료

70) 金芝希, 『염료식물재배 및 염직물 제작에 관한 研究』, 교육부 지역개발연구비 지원, 1993.



천연염색 명주실



쪽풀과 쪽물로 염색된 모시포

황벽으로 물들여
진 무늬 실크천과
생명주



홍화로 물들인 모
시, 무명, 생명주,
명주, 실크로 물들여
짠 천



소방목과 각 매염
제로 물들여진 명
주, 생명주, 무명으
로 들인 천



의 대부분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매염제에 의하여 그 색이 여러 색으로 변화 발색되는 매염 염료이다. 꼭두서니, 자초(지치), 밤, 도토리, 억새, 게장초, 괴화, 복목, 옥과 양매, 노목, 오배자, 상수리나무, 석류, 매실나무, 떡철죽, 감, 홍로, 호도, 소방목, 동백, 솔나무, 쑥, 차, 등황 등이 이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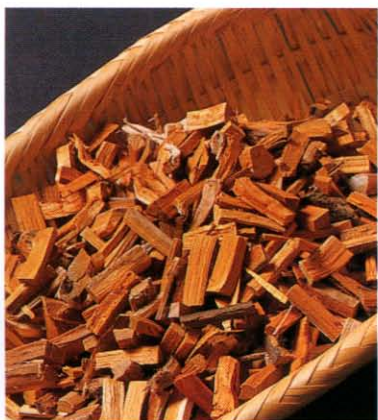
꼭두서니 뿌리



자초 뿌리



오배자.



소방목.

이것들의 염색법은 가열하여 추출하거나 찢어서 바로 염색하는 방법으로 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직접성 염료인 치자, 황백, 사프란, 울금이 있고, 건염 염료인 쪽으로 요람과 목남(인도남), 숭남, 대청, 유구남, 마남, 보라조개가 있다. 염기성 염료로 황벽, 황련과 화염계 염료로는 압척초,



치자 열매



황벽



쪽풀을 말린 것



황련 뿌리



홍화 말린 것.

봉선화, 산남, 딸기, 홍화 등이 있다. 본 내용이 주로 쪽물에 관한 것이 중심이기에 쪽의 종류 및 품종은 많으나 보유자와 관련되는 품종만을 제시하고 다른 품종은 1장에서 미리 문헌에 의한 것을 근거로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요람류의 생태적 내용은 앞서 쪽의 특성에서 기술하였고 그 요람 중에서도 우리 나라에서 재배했던 다양한 종류⁷¹⁾가 있어 그 종류만을 제시한다.

① 잎이 약간 둥글고 계란형이며 줄기의 마디가 초록빛이고 꽃은 흰색인 남 품종.

② 잎이 길쭉한 타원형이고 줄기의 마디가 초록빛으로 되어 있다가 가을이 되면 붉은빛으로 되고, 꽃은 대부분 흰꽃이나 꺾지 않고 가을까지 두면 붉은색으로 변하는 쪽.

③ 잎이 타원형이고 줄기의 마디가 초록빛을 띠고 꽃은 흰꽃에 분홍빛이 겹드려진 쪽.

④ 잎이 둥글고 타원형이며 두텁고, 두툼두툼하며 검푸른색이며 꽃은 붉은꽃을 나타내는 쪽.

⑤ 잎은 둥근 타원형이며 줄기가 가늘고 자주색으로 붉으며 꽃도 붉게 피는 품종. 이때의 줄기의 초록빛을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초록 계열의 색을 푸른빛이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한다.

⑥ 키가 크고 잎이 크며 끝이 뾰족한 여뀌류 및 마디풀과인 여뀌, 즉 개쪽 및 큰개쪽(犬藍)이 있다.

이상의 품종에서 개쪽을 빼고 흰꽃 계열이 3종류, 붉은색 계열이 2종류이다.

71) 김지희, 위의 글, pp. 154~155.

72) 김지희, 앞의 글, pp. 141~145.

전술했던 논문⁷²⁾의 <표 3>에서 남(藍) 품종의 분류 및 재배 지역에서 남(藍)은 다양한 품종이 있었으며 중국의 남과 우리의 남(藍) 종류를 제시하였으니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그 중에서도 두 보유자가 만들고 있는 청대(靑黛)에 관한 내용은 1장에서 기술되었기에 간략하게 소개하면, 청대(靑黛)를 청딤, 청화(靑花), 전화(靑花)라고도 하며 청대(靑黛 : 청딤)란 쪽잎과 조개가루로 만든 쪽 침전물의 꽃거품을 건조하여 곱게 분쇄하여 색소로 약용으로 쓰고 전화(靑花)로 만들어 눈썹 그리는 침전남의 건조 분말로 두 보유자 모두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앞서 조사시에 촬영한 바가 있었다.

(2) 동물성 염료

코치닐(cachineal), 커미즈(kermes : 독일말로는 겔메스), 보라조개, 오배자, 합환목충(lac), 오징어 등이 있으며 또 흑색으로 본 블랙(Bone Black)이라 하여 동물의 뼈를 태워서 얻은 투명한 흑색 등이 있다. 이것은 다색성 염료로 매염제를 사용해야 하는 염료이다.



오배자

(3) 광물성 염료

광물성 염료는 엄밀히 염료라기 보다는 안료로 섬유를 금속염으로 처리한 후 염색하여 섬유 중에 불용성 안료를 생성하는 것으로 자연 염료 중 처음 흙으로 바르는 식의 광물질이 이용되었다. 이 광물은 무기성과 유기성 안료로 나누어진다.

①무기 안료

산화물, 황화물인 안료이기 때문에 찰싹미음이나 아교나 동물의 기름 등을 전착제(展着劑)를 사용해야 하며, 이 안료는 벵가라(Bengala), 진흙, 적토, 황토, 숯, 연단(鉛丹), 은주(銀朱), 주묵(朱墨), 주사(朱砂), 군청(群靑), 감청(紺靑) 등이 있다. 최근에는 천이나 한지에 많이 사용하지만 천연상태의 것을 갈아서 동굴의 벽화를 그릴 때 사용하였다. 이 외 흰색으로는 백악(白堊) 혹은 화분이라 하여 벽화의 바탕색으로 사용해 왔다.⁷³⁾

②유기 안료

수지(lake)라고 하며 용해한 염료에 조제를 가하여 추출하여 수용성이 되도록 한 것이다. 이 안료는 남봉채(藍棒彩)⁷⁴⁾, 홍채(紅彩)⁷⁵⁾, 황채(黃彩), 백채(白彩), 코치닐 수지(cochineal lake라하여 선인장에 기생하는 벌레를 분말로 만든 염료인데 주로 묘화용, 음식류, 화장품류에 사용한다) 등이 있다.

<표 3>에서 천연 염색의 분류와 색상 및 성분⁷⁶⁾을 분류 제시하였다.

73) 정종미, 『우리 그림의 색과 칠』, 학고재, 2001, p.40.

74) 남봉채(藍棒彩):요람(蓼藍)에서 색소를 추출하여 봉상(棒狀)으로 굳힌 것인데 회화용으로 사용한다.

75) 홍채(紅彩):홍화를 알카리로 추출하여 홍적갈색소를 얻어 다시 산으로 중화시켜 얻은 홍색소를 얻은 것.

〈표 3〉 천연염색의 분류와 색상 및 성분

	염료분류	염료색소를 함유한 식물·곤충	색상	성분분류
단색성염료 (單色性染料)	전염염료 (建染染料) vat dye	요남, 인도남 송남(藍), 대청(大靑) 남번소송목(南藩小松木), 유구남(琉球藍), 마남(馬藍), 패자(貝紫)	남(藍) 자(紫)	인돌 유도체 (indolderivative)
	직접염료 (直接染料) direct dye	치자(梔子), 홍목(紅木), 샤프란(Saffron), 울금(鬱金)	황(黃)	카로티노이드類 (carotinoide) 디케톤類 (diketone)
	염기성염료 (鹽基性染料) basic dye	황벽(黃蘗), 황련(黃連), 벨버리	황(黃)	이소키노린유도체 (벨베린) isoquinolinederivative
	화염계원시 염료 (花染系原始 染料)	압적초(鴨草), 봉선화(鳳仙花), 두약(杜若), 산남(山藍)	화색염색 염착력(染着力), 일광(日光), 수세 건뢰도는 약함	안토시아닌類 (anthocyan) 크로로필 (chlorophyll)
		홍화(紅花)	홍(紅)	칼콘유도체 (chalcone- derivative)

2) 매염제

매염제(媒染劑)로는 명반, 백반(白礬), 록반(綠礬), 청반(靑礬), 석회(石灰 : 고막, 굴, 조개를 태운 가루), 철장, 목초산철(목청), 진흙, 막걸리 식초, 현미초, 오미자초, 오매초(烏梅), 술, 단술, 미음, 아교, 콩즙, 잿물(灰汁) 등

76) 김지희, 앞의 책.

이 기록되어 있고, 잣물의 재료는 버짚, 찰벼, 명아주, 콩깍지, 매밀대, 홍화대, 쪽대, 동백나무, 사스레피나무, 뽕나무, 솔나무, 다복쭉, 봉호재(蓬蒿灰), 따복대 등으로 잣물을 만들어 사용하였던 기록이 있다. 이중 윤병운 보유자는 자연산 굴껍질을 석회 매염제로 사용하고 정관채 보유자는 굴껍질과 석회 분말의 양과 질이 좋다고 떡굴껍질을 함께 사용한다. 잣물로는 이상의 전통 잣물 재료는 많으나 윤 보유자는 쪽대 말린 것을 사용했으며 정 보유자는 찰벼짚, 콩대와 쪽대 말린 것을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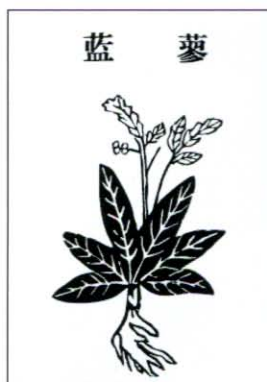
현대에 와서는 천연 매염제와 성분이 같은 매염제가 있으나 되도록 공해문제가 있어 세계천연염색학회에서도 그것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듯이 천연 매염제를 쓰는 것이 시간이 걸리고 까다로우나 사용하는 것이 천연 염색의 의의에 맞게 자연 보호와 공해에서 인간을 보호하는 길 이 될 것이다.

2. 쪽풀의 종류

우리 나라에서 생육되었던 문헌에 있는 쪽 종류를 열거하면, 우리 나라와 중국의 문헌에는 같은 품종을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지만 성질별로 크게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요람류(蓼藍類)

쪽이라 하여 『훈몽자회』⁷⁾, 『증보산림경제』, 『규합총서』에 나타나 있



요람 (蓼藍: 본초강목)



일반적인 요람 쪽 중의 한 종류.

고, 요람(蓼藍)은 『본초강목』,⁷⁸⁾ 『농정전서』, 『통지』, 『훈몽자회』, 『해동농서』(海東農書)⁷⁹⁾, 『임원경제지』에 기록되어 있다. 『훈몽자회』에는 소람(小藍), 『증보산림경제』에는 남(藍), 『교사신서』⁸⁰⁾에는 종남(種藍), 향남종(鄉藍種)⁸¹⁾ 등 다양한 용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모두 1년초 마디풀과 종류의 요람류를 말한다. 소람이라 하는 것은 요람 종류 중 잎이 작고 쪽대 가 가는 종류이지만 같은 요람류 속에 속하고 종남이라 표현된 것은 종자로 사용하기 위해 남겨 놓은 쪽풀을 일컫고, 향남종도 요람류 중의 조금씩 다른 종류를 생육하여 앞서 논문⁸²⁾에 제시한 바와 같이 요람류이다. 『본초강목』에 있는 그림이 요람과 마람이 잘못 그려져 있고 마람의 그림은 승람과 유사하다.

77) 崔世珍 『訓蒙字會』, 叡山本 中 色彩 黑玄, 東洋學研究所, 影印本 92.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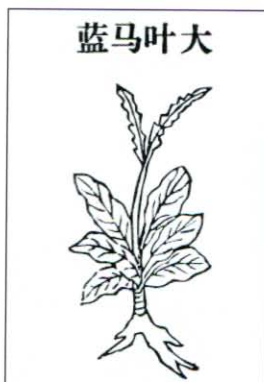
78) 李時珍, 『本草綱目』, 위의 책, 人民衛生出版社, 2002, p. 30.

79) 『海東農書』, 중국문헌, 卷 3, 草類의 재배법.

80) 『攷事新書』, 중국문헌, 卷之十 農圃門 上 種藍.

81) 尙方定例 英祖 28年(1752), 尙衣院에 定例로 編成된 것.

82) 김지희, 앞의 글.



대람(大藍) · 마람(馬藍)
(본초강목)



우리 나라 토종 쪽(요람)

2) 마람류(馬藍類)

마람(馬藍), 대람(大藍), 괴람(槐藍), 판람(板藍), 청대(靑黛)라 하여 『훈몽자회』에 세 종류 기록되어 있다. 이 종류도 동일한 당남종(唐藍種 : 상방정례), 전(청대 : 『증보산림경제』), 종전(種靛 : 『교사신서』), 당쪽(『규합총서』) 등이 모두 2년초 쪽 종류로 잎이 크고 뿌리로 종자를 이식하는 쪽 종류인데 이 품종은 잎이 생육하고 있는 품종⁸²⁾으로 가장 색소가 많고 약효가 되는 청대를 만드는 쪽 종류이다. 이 종류는 꽃이 분홍이며 잎이 요람의 3배 정도는 크며 잎 모양이 다르다. 『본초강목』에는 마람 · 대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림은 실물과 조금 차이가 난다.

(1) 청대(靑黛), 청대, 청화(靑花), 전화(靛花)

『본초강목』에는 청대(靑黛)란 본래 전화(靛花) 또는 청합분(靑蛤紛)으

82) 김지희, 앞의 글.



토종쪽(요람)



토종쪽의 분홍꽃



일반 요람쪽밭(윤병운 보유자 밭)

로, 파사국(波斯國, 페르시아)에서 전래되었던 것이지만 요즈음은 전(澱)으로, 즉 침전쪽을 만들 때 항아리에 뜨는 자벽색(紫碧色) 거품을 사용하여 만든다. 또 『훈몽자회』(訓蒙字會)에는 '대(黛)란 청대 대이다. 나합(螺蛤)으로 만들어 눈썹을 그릴 때 사용한다' 라고 하였고, 『고금석림』(古今釋林)에는 대람(大藍)이나 마람(馬藍)을 '청덕' 라고 하였다. 즉 청대(靑黛 :청덕)란 쪽잎과 조개가루로 만든 쪽 침전물의 꽃거품의 가루 즉 전화(靛花)로 만든 눈썹 그리는 쪽 재료를 의미하기도 하며, 마람이나 대람(大藍)에서 얻어지는 색소로서의 침전남 중의 가장 남색의 꽃거품의 색소를 침전시켜 가루로 만들어 약으로 사용하는 침전남의 분말을 의미한다.

3) 송람류(崧藍類)

『해동역사』에 송람(崧藍), 청덕, 『증보산림경제』에 전(청덕), 『본초강목』, 『농정전서』에 백송(白崧)이라고도 하며, 현대 국어 사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송람류는 십자화과로 서양의 워드인 대청(大靑)류와 유사하나 우리 나라에 유입된 품종은 중국에서 유입된 절강대청(浙江大靑)류인 감람과 유사하다.



감람(甘藍 : 본초강목)이라 되어 있지만 송람(崧藍)과 유사하다.

(1) 감람(甘藍)⁸⁴⁾

84) 감람(甘藍): 『본초강목』, 『농정전서』.

‘대엽람’(大葉藍) 종류라 하여 크고 두꺼워 삶아 먹으면 맛이 있다. 겨울이 지나면 봄에 다시 핀다. 꽃은 황색이다. 씨는 각지에 맺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송람을 말하고 있다.

(2) 열람(曄藍)⁸⁵⁾

차람(茶藍)의 일종으로 먹을 수 있으며 8, 9월에 뿌리와 잎을 거두는데 뿌리는 껍질을 벗겨 먹는다. 잎은 송람처럼 크고 뿌리를 심는다.

4) 쪽나무

쪽나무라고 일컬어온 쪽 종류⁸⁶⁾는 둥근다정큼나무라고 기술하였는데 염색한 결과 고운 옥색과 분홍이 들어지는 것을 보아 쪽색이라 하였을 것이지만, 쪽나무라고 옛부터 불려온 품종은 다년초인 목람, 산람(이북에서 현재도 생육), 송람, 마람류인 다년초 쪽까지를 쪽나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본다.

(1) 둥근다정큼나무(*Raphiolepis ovata*: Maraba-shyarinbai)⁸⁷⁾

이 나무는 우리 나라의 능금나무과에 속하는 상록활엽(常綠闊葉), 관목(灌木)으로 이 다정큼나무는 색소가 분홍빛과 옥색을 나타내고 나무 가지에서 갈색류 등 견뢰도가 높은 염료를 얻을 수 있는 식물이다.

85) 열람(曄藍): 차람(茶藍)의 일종으로 먹을 수 있으며 뿌리는 껍질을 식용.

86) 예용해: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있으면서 한국의 전통 문화에 관련 보고서와 전통 논문의 지도 중 박복규의 논문을 지도시, 씨를 구입하여 정관채에게 전하여 공동으로 쪽물 재현을 도운 학자로 쪽나무를 둥근다정큼나무라고 지적하였다.

87) 문교부편, 『식물도감』, 三和出版社, 1974, p. 566.

藍木叶槐



목람(木藍) · 괴람(槐藍)
(본초강목)

(2)산람(山藍)(학명: *Mercurialis leiocarpa*)

산람은 중국, 한국, 일본, 태국, 인도지나에 분포하고 다량으로 생육되는 다년초로, 높이 30~40cm, 지하 줄기는 백색으로 건조시키면 푸른색을 띠고 염색을 하면 심남색, 중남색, 천남색, 백남색, 황등색으로 나타나 있으나 산람 종류에 따라 녹색을 띠는 경우가 많다.

(3)목람(木藍)(학명: *Indigofera tinctoria*)⁸⁸⁾

목람류는 인도남, 남전(藍靛), 괴람(槐藍), 동람(冬藍)⁸⁹⁾이라 하는데 생육 분포는 인도, 세이론,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에 생육했지만, 현재는 한국에도 생육⁹⁰⁾하고 있다. 다년초 식물로 염색된 색깔은 농감색(濃紺色)이며 생엽염으로는 옅은 청색과 동매염으로 청자색을 물들일 수 있다.

(4)오람(吳藍)⁹¹⁾

오람은 목람류인데 줄기가 길고 꽃은 희고 2월에 싹이 트면서 씨로 파종을 하고 해열 해독제로 사용한다. 『본초강목』에는 오

藍吳叶蒿



오람(吳藍). 남방계열 목람
(본초강목)

88) 목람(木藍) · 괴람(槐藍) · 동람(冬藍): 『본초강목』, 『농정전서』, 『연려실기술』

89) 이아익, 『연려실기술』: 동남은 목람이다 영남(嶺南)에서 나는데 약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소송)

90) 김지희, 앞의 글.

람과 목람을 분류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본초강목』에 기록된 그림으로도 조금은 유사하나 이 종류는 남방 계열의 목람 품종인 것이다.

(5)여뀌

여뀌료라 되어 있고 이 쪽풀은 냇가에서 자라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마디풀과에 속하니 쪽풀과 혼돈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종류를 개쪽, 큰개쪽이라 부르며 많은 품종이 있다. 황미갈색과 흑색 물을 들일 수 있다.

3. 쪽의 재배와 채취

1) 재배의 전 처리

염료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은 전통적 방법을 근거로 하여 기술하는데 쪽을 재배하기 전에 재배법의 공동 원리를 『산림경제』⁹²⁾에 의해 간략하게 기술하고 윤병운 보유자와 정관채 보유자의 재배 원리는 유사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앞에서 다루고 각기의 재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종자 선택(擇種)

무릇 종자가 쭈그러든 것은 나지 않고 난다 하더라도 견실하지 못하

91) 오람(吳藍)은 『본초강목』, 『농정전서』, 『소송』, 『천공개물』에 기록되어 있는데, 남방에서 생육되는 목람 종류로 실크로드를 통해 오나라에 먼저 유입된 쪽이라 오인(吳人)이 키우며 씨로 파종.

92) 홍만선, 『산림경제』, 『농사직설』, 『한중록』.

다. 마땅히 빛깔이 순일하고 견실한, 잡되지도 쭈글쭈글하지도 않은 것을 가려서 쪽정이는 까불어버린 다음 물에 넣어 뜨는 것은 버리고 다시 건져 습기가 없어지도록 충분히 말린다. 이것을 오쟁이에 담아 높고 시원한 데에 간수하거나 집 들보에 높이 매달아 쥐가 먹는 것을 방지한다.(『농사직설』, 『한중록』) 종자가 혹시 습기에 상하거나 쭈글쭈글하면 벌레가 생기니, 눈 녹은 물[雪汁]에 담가야 한다.(『농사직설』, 『한중록』)



쪽씨(정관채 보유자의 씨)

3) 청대(靑黛)의 재배, 김매기, 거름주기, 염색법

“미리 전년 8~9월 무렵에 땅을 갈고 굽어서 펼쳐 두었다가 섣달 무렵에 다시 한 차례 갈고, 3월에 심을 때에 또 한 차례 갈고 종자를 뿌린 다음, 다시 이리저리 3~4차례 굽어준다. 다섯 잎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즉시 매주고 풀이 나면 다시 매주다가, 5월 무렵이 되면 거두어다가 전청(靛靑)을 타작한다.”(『신은지』)



쪽씨뿌리기(파종)(정관채 보유자와 부인 이희자)

“정월 중에 포대에다 씨를 담아 물에 담갔다가, 싹이 나면 땅에 뿌리고 재와 거름으로 덮는다. 잎이 나기를 기다렸다가 거름물을 주고, 두 치 가량 자라면 줄을 지어 갈라 심고서 거름물을 주어 살린다. 5~6월에 이르는 동안 거름물을 앞사귀에 5~6차례 뿌려 주며 앞사귀가 두꺼워지기를 기다리다가, 땅고의 거리가 세 치쯤 자라면 벤다.”

『신은지』에는 “하지(夏至) 전후에 앞사귀에 파열(破裂) 무늬가 난 것이 보이면 바야흐로 베게 된다.”고 했다. 줄기와 앞사귀를 향아리 속에 담그되, 그 향아리의 대소를 보아 빛깔이 푸른 광회(礬灰)를 다과(多寡)를 헤아려 넣는다.

『신은지』에 “50근(st)의 석회(石灰) 1근을 쓴다.”고 했다. 하루 밤과 낮을 담갔다가 정결하게 걸러 놓고 목배(木扒, 당그레)로 젖되 청색(靑色)이 될 정도로 하다가 가라앉히고서 물을 따라 버린다. 이것을 두전(頭涎,



정관채 보유자의 넓은 쪽밭.



쪽대가 올라오기 전 지게에 쪽풀을 지고 집으로 운반하는 정관채 보유자.



윤병운 보유자와 부인 나정임.



꽃대가 올라오기 전 쪽을 베고 있는 윤병운 보유자.



쪽씨를 추수하기 전 붉은 쪽의 꽃이 피어 있다.

첫 침전)이라 한다. 또한 『신은지』에는 “물에 담근 다음 날 황색으로 변하면, 줄기를 건져 버리고 목배(木扒)로 젖되, 분청색(粉靑色)이 자화색(紫花色)으로 변한 다음 맑은 물을 따라버리면 청대가 된다.”고 했다. 땅에 있는 원 뿌리에 다시 앞서의 방법대로 거름물을 주다 뿌리다 하다가, 거두어 베어다 물에 담가서 제조한 것을 이진(二漚)이라 하고 또한 삼전(三漚)도 뻗 수 있다.(『한중록』)

“지금 사람들은 복전(福漚)을 많이 심는다. 보리를 거둔 다음 그 자리에다 심는데, 큰 비가 종자를 다져버려 나지 않게 될까 싶으면, 소맥(少麥)의 까끄라기에다 거름을 섞어서 덮어준다. 거름물을 주다 뿌리다 하는 것과, 물에 담갔다 제조하는 방법은 앞의 방법과 같다.”(『한중록』)

두전(頭漚), 즉 1수 쪽베기를 마친 후 다시 자란 쪽풀이 꽃을 피워 씨를 맺게 되어 추수하게 된다.

4) 명하쪽의 쪽재배와 채취

문화재청 보고서⁹³⁾와 앞서 연구 조사했던 내용⁹⁴⁾과 현장에서 촬영시 조사한 것을 토대로 기술한다.

윤병운 보유자의 조사시의 간략한 쪽재배를 요약하면, 쪽은 마디풀과에 속하는 1년초인 염색 식물로 타원형의 잎에서 염색 색소가 추출된다.

쪽씨는 3월에 씨를 뿌려 파종한 후 4월이 되면 400평의 밭 3개소에 모종한다. 본밭에서 뿌리를 내려 자라면 주위의 잡초를 뽑아내고 거름을 준다. 음력 7월 10일경 쪽대가 60~70cm정도 자라고 꽃대가 올라오기 전 쪽대를 벤다. 윤보유자는 한 번 베어 내어 담는 것을 1수(전통 용어로 첫 쪽 침전을 두전이라 하였지만, 나주 지역은 1수, 2수라고 하기도 한다) 하고 두 번 베어 쪽물로 담는데 이 경우 쪽 농사 2수를 한다고 한다.

쪽재배와 채취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종자 준비

전년도에 채취한 쪽씨를 자루에 담아서 공기 유통이 잘되는 온돌방에 보관하였던 씨앗을 파종전 잘익은 씨앗을 고르기 위해 바람에 날려서 선별하여 깨끗한 물에 씻어 물이 잘 빠지는 소반에 천을 깔고 씨앗을 올려 놓아 물기를 빼어서 파종 준비를 한다.

(2) 싹 재배관 준비

① 싹 재배관의 지질로는 배수가 잘되고 통풍 잘되며 부식질이 많은

93) 김지희 · 박성실 · 이양섭, 문화재청 조사보고서, 2000.

94) 정명호, 『조사보고서』, 전 동국대 교수, 1990.

사질 양토가 알맞으며 일조량이 충분한 적지를 택해야 한다.

② 싹 재배판 면적은 본밭 100평당 1평 정도로 준비한다.

③ 묘판 설치 장소가 선정되면 완숙된 퇴비 평당 약 100kg을 넣은 후 땅을 40cm 깊이로 파서 퇴비를 흙과 골고루 섞어서 흙을 부은 다음 묘상을 평평하게 만든다.

(3) 파종

준비된 묘상에 준비된 씨앗을 모래와 섞어서 흙에 뿌려서 파종한다. 묘상의 습기 보호를 위해 고운 퇴비 가루를 뿌린 후 상부에 고운 흙을 채로 쳐서 씨앗 지름의 2~3배의 두께로 덮어 준다.

(4) 싹 틔우기

파종 후 소나무 가지를 겹치지 않도록 덮어서 반그늘을 만들어 주며 물은 1회 정도 싹 틔우는 발이 약간 젖을 수 있도록 급수하여 발아를 촉진시켜주며 약 반 정도 싹이 트면 소나무 가지를 제거하여 준다. 파종 후 1주일이면 완전 발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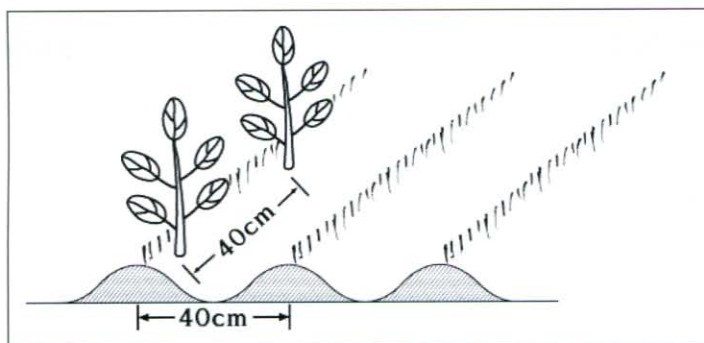
(5) 싹 기르기

발아된 상태를 확인, 성장 과정에 싹을 키운 발에 잡초가 생기면 제거하고 조밀하게 쪽잎의 부분은 솜음질을 하여 건전한 싹을 기를 수 있도록 관리하여 싹 재배밭에서 약 40~45일간 기른다.

(6) 심기

① 본밭 준비

쪽을 심기 위한 본밭은 쟁기를 이용 최대한 깊이 갈아서 두둑을 40cm 정도로 지어준다. 완숙퇴비를 300평당 4,000kg 정도 넣는다. 퇴비를 많이 사용해야만 수확 후 쪽물의 농도가 짙어지며 염색시 착색이 좋아진다.



본밭의 이랑 및 쪽 옮겨심기 상태

② 심기

그림과 같이 두둑 측면에 40cm 간격으로 자란 쪽풀 싹을 1개씩 심어 준다. 우량한 싹은 잎이 5~6잎 쪽풀 길이 15~20cm의 것을 선택해서 심는다.

③ 본밭 관리

본밭에 심어진 쪽풀은 3~4일이 지나면 뿌리가 땅에 내려 성장하게 되는데 본밭에서의 성장 과정을 확인하면서 잡초 제거 및 도복 방지를 위해 복토를 실시해주며 7월 중순쯤 300평당 1500kg 정도의 완숙 퇴비를 추가로 주며 강수량이 부족할 때는 직접 물을 길어 뿌려주어야 한다.

(7) 첫 쪽 베기

쪽이 60~70cm로 자랐을 때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채취한다. 채취시간은 새벽 3시경부터 시작하여 일몰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새벽에 채취하는 이유로는 쪽이 습기를 최대한 흡수한 상태여야 하며, 주간에 채취하여 항아리에 쌓은 후 물을 부으면 쪽이 팽창하여 항아리가 깨질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쪽베기를 할 때 윤보유자 내외와 사남 내외, 삼남 모두 힘을 합쳐 일을 거들고 있었다.

5) 셋골쪽의 쪽재배

문화재청 조사시 보고서와 정관채 보유자와의 석사 과정 내용⁹⁵⁾과 촬영당일 현장조사에 의한 것을 기술하였다.

쪽은 요람(蓼藍) 종류로 토종쪽과 일반쪽, 두 종류를 재배하며 그 특성은, 쪽은 1년초 마디풀과로 중·남부 지역의 고온다습한 논, 밭에서 쉽게 재배할 수 있고 잎의 크기는 보통 8cm 정도의 둥그런 타원형으로 3월 초에 파종하여 8월 초순이 되면 약 60~70cm 크기로 벼 이삭형처럼 흰색과 빨강색의 꽃이 핀다. 줄기는 미끈하고 곧게 뻗으면서 비교적 마디에서 지엽이 많이 난다. 좁쌀만한 삼각형의 진한 자주색 씨앗은 1년 이상 경과되면 발화가 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의 많았던 쪽풀도 쉽게 멸종되었던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저절로 땅에 떨어져 자연에 순화하여 살아남기도 한다.

따뜻한 3월의 봄에 파종 후 7~8월이 되어 뜨거운 여름날 쪽(남, 藍)

95) 정관채, 『한국 전통남염의 현대적 이용방법』,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0.

염료의 추출이 시작되는데 계절적으로 여름의 기온이 가장 높은 삼복 더위가 좋다. 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에서 쪽이 많이 재배되고 쪽염색이 발달한 이유도 고온 다습한 열대지방의 높은 기온이 중요한 이유가 된 것이다. 우리 나라 쪽염료도 주변 환경의 온도 변화와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생산되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모든 공정이 마무리되면 좋다. 따라서 나주 지방은 비교적 쪽의 재배 조건이나 추출에 있어서 기후나 지리적 환경이 좋다.

『산림경제』에 있는 쪽 재배하는 방법과 모친이 하던 방법에 의해 재배하고 있었다.

평지가 좋다. 3월에 잘 갈고 파종한 다음 굵어서 골고루 억새밭로 덮어준다. 아침마다 물을 주다가 싹이 나게 되면 억새 밭을 걷어버린다. 네 치쯤 자라게 되면, 기름진 숙토(熟土)에다 이랑을 만들고 도랑을 쳐 길을 내고, 다섯치 간격으로 한 구덩이씩 심고 『사시찬요』에는 “5월 망종(芒種)때 비가 오거든 습기가 있을 때 쪽을 뽑아 한 구덩이에 세 줄기씩 빨리 심어, 당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날마다 물을 대주며 척박한 땅이면 맑은 거름물을 한두 차례씩 대주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그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재배하고 있다.

촬영 당일은 파종 시일과 날씨가 맞지 않아 밭에서 씨뿌리는 식으로 촬영하였다. 이런 방식은 대량으로 할 때는 편리한 방법으로 행하고 있다.

(1) 쪽 재배판 만들기와 싹 기르기

온실보다는 태양의 빛에서 재배해야 튼튼한 싹을 기를 수 있고 전통적으로 소나 닭의 분뇨를 퇴비로 만들어 사용하며 다량으로 재배시는 화학 비료보다는 잘 숙성된 퇴비와 물빠짐이 좋은 부엽토의 퇴적층 토

양을 사용하고 있다. 발효된 퇴비를 10ha당 3t를 넣고 땅힘을 기른다.

① 3월초 썩 재배판에 종자를 파종하는데 재배 면적의 20:1의 썩 재배판을 설치하는데 퇴비와 섞어서 준비해 둔다.

② 120cm×45cm(둑과 이랑의 넓이) 간격으로 하고 1년이 지난 종자는 썩이 트지 않는다.

③ 10a에 30kg의 종자를 파종하고 고르게 부드러운 흙과 퇴비흙을 고르게 섞어 고르게 씨를 덮고 억새밭을 덮어 마르는 것을 방지한다.

④ 파종 후 2주일 이 지나면 썩이 나오고 쌍떡잎이 보이면 억새밭을 걷어낸다. 쌍떡잎 식물로 5cm정도 되면 맑은 거름물을 주거나 질소질 비료를 물에 섞어서 뿌려준다.

⑤ 일반적으로 전통적 방법으로 땅에서 재배하고 풀베기 등 단계적으로 하나, 다량생산일 경우 비닐하우스나 멀칭 재배로 묘를 튼튼하게 한다.

⑥ 4월 중순 네치썩(20cm정도) 자라면 기름진 숙토(熟土)인 본밭에 이랑을 만들고 비가 온 후 습기가 있을 때 옮겨 심는다.

썩이 자라는 사이 썩염색의 중요한 매염제인 석회가루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한다.

(2) 썩풀 기르기

① 120cm의 둑과 45cm의 이랑을 만들어 마디가 굵고 튼튼한 20cm 정도의 썩 4~5개 썩풀 썩을 50cm 간격으로 본밭에 옮겨 심는다.

② 5월 초순이 되면 썩은 10cm 정도 이상 자라는데 잡초를 뽑아 주어야 하고 계절변화에 따라 잡초의 종류도 다르고 잡초 제거는 적기에 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풀이 무성하게 자라 썩풀이 자라지 못한다. 그리

고 거름물을 이 시기에 5~6차례 뿌려준다.

③ 6월 너무 웃자라거나 무성하면 솎아 주어서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한다.

④ 6월말 잎은 넓적하고 두툼하게 자라고 마디가 굵어 40~50cm로 자란다.

⑤ 7월이 되면 진한 초록색의 잎이 되고 마디는 붉은색으로 꽃대가 형성된다. 꽃이 피기 전이 쪽 채취에 알맞은 시기이다.

⑥ 쪽물이 땅에서 세치 정도 자라면 음력 하지 전후(7월 20일 정도 이후) 쪽잎에 파열 무늬가 나면 쪽을 베기 시작한다. 여름 더위가 한창일 때 새벽이슬이 맺히는 이른 아침 잘 자란 쪽을 베기 시작한다.

⑦ 모친 최영림 여사가 했던 재배방법이나 『산림경제』의 청대 만들기 와 같이 한 번의 쪽베기에서 거치지 않고 거름을 잘주고 가꿈으로써 두 번, 세 번 베어 쪽을 담을 수 있다. 즉 문헌에서 있는 것으로 “땅에 있는 원 뿌리에 다시 앞서의 방법대로 거름물을 주다 뿌리다 하다가, 거두어 베어다 물에 담가서 침전쪽을 제조한 것을 이전(二靛)이라 하고, 또한 삼전(三靛)도 뻗 수 있다.”⁹⁶⁾라는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2번까지 베어 염색 하는 것으로 “2수까지 침전쪽을 만든다”고 했다.

96) 『한중록』, 조선조 21대 영조의 차남인 사도세자의 빈 혜경궁 홍씨가 지은 내간체(內簡體)의 책 사본.

4. 쪽의 재배 및 염색 도구

쪽염은 쪽색소를 많이 얻기 위해 쪽풀 재배가 염색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쪽재배를 위한 도구는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만을 기술한다.

1) 쪽풀의 두 보유자의 제작 도구 및 사용법

명하쪽과 샛골쪽의 제작 도구와 사용법은 쪽재배에 사용되는 도구와 쪽물염색에 사용되는 공통적인 도구를 제시하였다. 이 중의 도구 내용은 앞서의 조사 보고서⁹⁷⁾를 근거로 제시한다.

(1) 명하쪽의 제작 도구

도구 명칭은 앞에서 공통으로 제시하였지만 여기에서는 도구 제목만을 기술한다.

독 10개, 향아리 3, 널베기, 고무래 혹은 당그레, 기발, 시루, 채, 키, 삼태기, 대나무 채반, 삼발, 낫 등 재배 도구와 석회 흙바닥 가마.

(2) 샛골쪽의 제작 도구

도구는 앞서 기술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인 도구로써의 사용법은 향아리 68개, 횃대(당그레, 고무래) 10개, 기발, 시루, 삼태기, 채, 얼그미, 널베기, 염색통 8개(450 l), 수세통 1개(1000 l), 물저장고 13개($600 \times 13 = 4800$ l), 염료 추출실 3중(50톤), 발효실 3중(겨울에는 방, 여름에는 비닐하우스, 봄, 가을에는 지하), 굴껍질 보관소 1중

97) 김광연, 『한국의 농기구』, 문화재관리국, 1969.

(5톤 저장), 굴가루 굽는 황토 가마 1종(1년 5000kg 생산), 잿물 생산 도구 1종,

② 쪽씨묘판→쪽본밭이식→쪽채취→석회제조→잿물→침전남(쪽양금)과정→잿물붓기→발효 과정(물발세우기, 꽃물, 청대, 탁주(탁주초나 단술))→염료완성→풀빼기(정련)→쪽물들이기→잿물빼기→손질→다듬이질(무명이나 명주인 경우)

③ 쪽물 염색의 전 과정은 전통적 방법의 도구를 사용하고, 동시에 2000년도의 전라도 섯골 쪽 축제를 나누시와 준비하기 위해 다량으로 염색할 수 있도록 현대식으로 시설을 개량화 하여 전통 방식과 개량 방식을 각각 준비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고무래3개와 기발(바소걸이에 사용되는 삼각 원뿔대소쿠리)



바가지, 얼그미, 채



2) 쪽의 파종과 본밭을 위한 기구 및 도구

쪽씨를 뿌리거나 심기 위해서는 우선 땅을 일구고 덩어리진 흙을 부수며 바닥을 평평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처음 쓰이는 연장은 팽이, 따비, 극쟁이, 쟁기, 가래, 쇠스랑 등이다. 이 가운데 따비는 가장 원시적인 농기구의 하나로 극쟁이와 쟁기는 이에서 변형 발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극쟁이와 쟁기

논밭을 가는 데 쓰이는 연장으로 쟁기는 깊게, 극쟁이는 얇게 가는 데 쓰인다.

(2) 따비

윤병운 보유자와 정관채 보유자의 재배 방법 속에서도 보이고 있는 따비는 쪽씨를 재배하기 위해 땅이 거칠고 깊고 질어서 소가 들어서기 어렵거나, 돌이 많아 쟁기를 쓸 수 없거나, 쟁기나 극쟁이를 쓸 여지가 없는 작은 땅을 가는 데 쓴다. 그 종류는 송곳형(3개), 상아형(2개), 말굽형 등의 따비가 있다.

(3) 가래

흙을 파헤치는 기구로 날을 끼운 넓적한 몸체에 긴 자루를 박고 몸 윗부분의 양쪽에 줄을 매어 한 사람은 자루를 잡고 두 사람이 줄을 잡아당기어 흙을 파서 던진다. 이는 쪽밭이랑을 일구고 도랑을 치고 쪽밭둑을 쌓거나 깎을 때에 쓰인다.

(4) 쪽재배 도구로 제시했던 팽이

쟁기나 나래가 생기기 전 호미나 팽이 등의 단순한 농기구가 먼저 생겼으며 처음에는 사람의 손으로 쪽밭을 갈았다. 그후도 좁은 땅이나 소나 말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을 가는 연장이다. 윤 보유자나 정 보유자는 쪽 재배 중에서 손으로 하는 곡팽이나 팽이를 사용하였다. 팽이의 사진은 왼쪽에서 첫째, 둘째와 여섯째 도구이다.

팽이는 일반적으로 넓적한 쇠 끝이 ‘ㄱ’자로 구부러져 있고 구멍이 있어 이에 자루를 박은 것이다. 주로 흙을 파고 깨며 골타기, 쪽밭의 김매기 등에 쓰고 밭을 일구거나 정지 작업을 할 때에도 사용된다. 팽이의 종류는 가짓 앞팽이, 곡팽이, 삼팽이, 왜팽이 등이 있다. 그리고 보토팽이와 삼팽이로도 분류 불려지고 있다. 보토팽이는 170cm, 보리밭에 보토히는 흙을 파서 뿌려주는 도구이다.

쪽 재배용 도구. 팽이(곡팽이), 삼팽이(가래), 쇠스랑, 삽, 긴 쇠스랑, 도끼(망치).



(5) 쇠스랑

밭의 흙을 파서 고르거나 흙덩이를 깨거나 씨 뿌린 뒤에 흙을 덮는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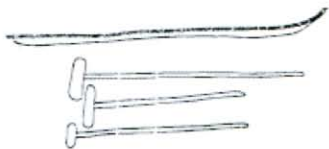
쇠스랑은 그림에서 네 번째이다. 쇠를 갈퀴 모양으로 만들고 ‘ㄱ’자로 구부러진 한 끝에 긴 나무 자루를 박았다. 밭은 보통 세 개가 일반적이나 두 개 또는 네 개의 금속발이 달린 것도 있다. 논둑을 까고 새로 붙일 때 흙을 긁어 올리는 데에도 쓰이고, 밭이 빠지는 논에서도 이것으로 파서 엷고 흙덩이를 깨서 고르기도 한다. 또 밭을 파고 흙덩이를 쳐서 골을 내고 반반하게 고르기도 하며, 씨뿌린 뒤에 이것으로 덮기도 한다.

(6) 땅을 삶는 도구

일구어 놓은 논밭의 흙을 고르고 깨트려서 판판하게 삶아야 즉, 논밭의 흙을 씨레로 썰고 나래로 골라서 노글노글하게 하는 일로써 씨를 뿌릴 수 있다. 삶는 도구에는 씨레, 번지, 나래, 곰방메, 고무래, 밭고무래, 콩게 등이 있다. 이 중 고무래의 기발 속에 3개가 있다. 염색시에 쪽물을 독항아리에서 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7) 곰방메, 고무래, 콩게

곰방메는 짧은 나무토막에 쇠스랑 모양의 밭을 붙인 것으로 논밭의 흙덩어리를 깨뜨리는 데에 쓰이며, 골을 탄 뒤에 바닥을 고르고 씨뿌린 뒤에 흙을 덮는 데에도 사용한다. 고무래는 곰방메와 같은 용도에 쓰이면서 곡식을 말리거나 너는 데에도 쓰인다. 콩게는 역시 씨뿌리기 전에 흙을 고르고 뿌린 뒤에 흙을 덮는데 사용된다. 다음 그림의 첫째, 둘째, 셋째의 도구이다.



곰방메로 쪽씨를 뿌린 뒤에 흙을 덮는 데 사용한다.



고무래로 침전쪽을 치고 돌리는 데 사용.



쪽발 요철 고무래로 발의 흩덩어리를 깨뜨리는 데 사용한다.



쇠스랑. 위는 『해동농서』에 실린 쇠스랑 그림이다.

(8) 쪽씨를 뿌리는 도구

특이한 다래끼, 종다래끼 등 두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씨를 뿌릴 때 사용되는 것이 따로 없고 소쿠리, 바구니, 뒤옹박, 말뚝, 바가지, 양재기 등 간편하면서도 담을 수 있는 것이면 아무 것이나 다 쓰인다.

다래끼는 짚이나 싸리로 만드는데 밭에 씨뿌릴 때에 여기에 담아서 뿌린다. 정관채 보유자는 짚으로 만든 다래끼로 옆구리에 끼고 씨를 뿌리고 있다.

종다래끼(씨앗 망태)는 콩, 팥, 감자 등을 심을 때 씨를 여기에 담아 뿌린다. 형태가 삼태기와 비슷하나 세모꼴 모양의 멧빵을 달아서 어깨에 엮메도록 되어 있다.

(9) 바가지와 망태

바가지는 쪽물을 푸거나 석회를 담아 두는 그릇으로 주로 박을 타서 속의 씨통을 파내고 삶아서 박속을 긁어 낸 뒤에 말려서 쓴다. 바가지는 크기에 따라 함박, 쪽박, 종가리 등의 구별이 있다. 쪽염색에 사용된 바가지는 함박 종류로 크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바가지이다.

3) 쪽밭에 거름을 주는 기능과 굴껍질석회 운반 도구

쪽씨를 뿌리기 전이나 뿌린 후 거름을 몇 차례 주기위해 필요한 도구이다.

(1) 거름통, 거름대, 장군, 소매구시, 삼태기

옛부터 거름으로 두엄(堆肥)과 사람의 분뇨(糞尿) 그리고 재를 써 왔다. 거름을 나르는 연장도 거름의 종류에 따라 크기와 형태가 달랐다.



삼태기

거름을 주는 도구로는 오줌장군, 거름통, 소매바가지, 귀때동이, 소매구덩이, 삼태기, 개똥삼태기, 소매구시, 새갓통 등이 있다. 그 가운데 분뇨를 나르는 통과 오줌장군 등은 예부터 그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시대에 따라 재료만 달라지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개분뇨 삼태기는 길에서 개나 소의 분뇨 등 비료가 될 만한 것을 작은 호미로 긁어 모아 여기에 담아 두거나 변소에 넣어서 삭인다.

여기서 짚 삼태기는 두 보유자 모두 같은 석회를 만들기 위하여 굴껍질을 담아 가거나 태워서 나오는 석회를 운반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4) 쪽풀에 물을 대는 도구

쪽채배를 위해 물을 자주 줘야 하는데 전통방법으로는 조선시대 중기의 보(漕)와 같은 관개 시설 외에 두레, 두레박, 맞두레, 용두레, 무자위, 흙통 등은 우리나라 지형과 인력에 알맞게 고안된 것으로 물을 대는 도구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다. 이 방법 이외에 현대에는 물통이나 호스로 물을 자주 뿌려준다.

5) 낫과 호미

쪽풀의 김매기와 베기 도구로 낫과 호미가 있다. 낫은 곡식을 거두는 것 말고도 쪽에 쓰이고 호미도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5개가 있다. 풀베기나 땔나무로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쓰인다.



낫과 호미

(1)벌낫

쪽풀을 베고 또한 무성하고 억센풀을 베는 낫으로 날이 크고 자루가 길며, 밀낫은 낫의 한 종류로 등 쪽에 날이 있어 풀을 밀어서 베어낼 수 있도록 만든 도구다.

(2)호미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호미날과 자루가 넓고 길며 남쪽일수록 날이 가늘고 자루도 짧아진다. 종자를 심을 때나 쪽풀의 김을 맬 때 쓰이는 중요한 도구이다. 쪽밭매기는 3월부터 음력 6월 무렵까지 쓰이고 이외 농사인 경우 세벌 논매기가 끝나면 '호미씻이' 라고 하여 호미를 씻어서 걸어둔다.

6) 쪽씨를 수확하는 도구

키는 쪽씨를 수확하여 쪽정이 검부러기를 없애는 데 쓰인다.



『해동농서』에 실린 키의 형태.



곡식의 쪽정이 검부러기를 없애는 데 쓰나 쪽일 경우 쪽씨 수확에 사용하는 도구이다.

7) 천의 마전(정련) 후 말려서 보관 및 운반 도구

농작물 및 염료 식물 운반을 위한 도구로 사람의 힘에 의한 운반은 머리, 어깨, 등, 허리, 손 등으로 나르게 된다. 여기에 이용된 연장으로는 지게, 쟁기지게, 바소거리와 지게와 쪽잎을 운반하나 쪽잎을 담아 건져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기발(바소걸이에 사용하는 대나무로 짠 삼각원뿔인 소쿠리류), 거름지게, 망태기, 주루막, 다루깨, 바구니, 광주리와 따리 등이 있다.

우리 농촌에서는 최근까지 물건이나 농작물을 운반할 때에 사람이나

짐승의 힘을 이용하였다.

대나무로 만들어 둥글고 납작하게 만든 체반이나 광주리, 대얼맹이 등은 채소를 넣거나 갈무리나 곡식 및 과일, 열매 등을 말리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쪽 담는 것이나 주로 천을 담아서 물들이고 난 후 다시 말려서 거두는 운반도구로 사용한다.

8) 잣물받기와 침전쪽(남) 받기 도구

잣물받기와 침전쪽(남) 받기 도구는 같은 원리이나 위에 놓고 사용하는 재료가 다르다. 널베기 위에 구멍이 뚫린 시루를 사용하고 가운데는 주로 삼발을 사용하는데 받침대는 두발 나무를 연결하여 받치고 있다.



대나무 체반(산데미)과 광주리 · 소쿠리, 대얼맹이

9) 쪽 염색하는 도구

(1)쪽풀을 독에 담은 후 쪽색소가 우려난 후 대나무로 삼각원뿔 식으로 엮어서 만든 기발에 쪽건더기를 건져내는 도구로 체를 사용한다.

(2)체와 열그미는 쪽을 건져내고 나머지 쪽 및 부스러기를 건져내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구운 석회를 쳐서 분말로 만들기 위해 사용한다.

또 바가지는 쪽을 담은 후 침전남을 만들고 난 후 남아있는 물을 떠내는 데 사용한다.

3)독항아리는 주로 곡물을 담아 갈무리하는 데에 사용하고, 간장, 김



젖물받기 위한 도구 널배기와 받침대(삼발: 챗다리)과 시루

치, 술 등을 담는 그릇으로도 쓰인다. 독항아리는 도자기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 공기의 유통이 가능하여 잘 상하지 않는 장점을 이용하여 옛부터 쪽물용(藍染色)으로 사용되었다.

염색하는 도구로써는 쪽풀을 담아 침전쪽(남)을 만들거나 그 침전쪽(남)을 독에 담아 발효해서 염색을 한다. 또 석회를 만들어 보관하는 독으로도 사용한다.

(4)거적은 짚을 새끼로 엮어 긴 네모꼴로 농작물을 널어 말리고 온상을 덮기도 한다. 거적이나 덕석은 석회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

3 문평 명하 쪽 염색

1. 황토 바닥 가마 석회 제조

1) 석회 제조의 특징

명하마을 쪽의 특성이라 할 만큼 전통적 황토바닥 구덩이에서 구워지는 방법인 흙바닥 가마는 두더지 가마나 도자기 가마 제조 이전의 소성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즉 땅을 파서 바닥에 솔가지를 넣고 그 위에 장작을 놓고 그 위에 굴 껍질을 넣고 그위에 다시 장작을 놓고, 짚을 얹고 불을 지피 불이 땡기면 앞공기구멍을 막아 불길을 막아 굴 자체가 충분히 타도록 이틀간 태운다. 보통 7자루 태우면 2말~3말의 석회를 얻을 수 있다.

2) 석회 수집과 황토 흙가마 준비

함평군 송벌면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굴껍질을 구해 불순물을 깨끗하게 제거한 뒤 말려 두었다가 2월에 태워 회를 만든다. 양식 굴껍질은 쪼침전에 효과를 나타내지 못해 염색에 실패하기 쉽다고 하였다.

3) 석회 제조

자연산 굴껍질을 수집하여 세척하여 말린다. 땅을 파서 만든 전통적 황토바다가마인 특유의 방법으로 구덩이(직경 100cm×높이 70cm)를 파서 밑에서 숯가지를 넣고 그 위에 장작을 쌓는다. 그 위에 가마니, 덕석, 거적을 놓은 후, 거적, 굴껍질을 넣고 다시, 가마니, 거적, 잡초 순으로 황토바다가마에 쌓은 후 앞 공기 구멍을 이용 불을 붙여 솔잎에 완전히 불이 붙어 장작에 불이 붙기 시작하여 불을 지펴 점화 후 약 한 시간 정도로 태워서 공기구멍을 막아 공기를 차단하고, 점화 후 24시간 지나면 굴껍질이 20℃ 정도로 식은 후 바닥웅덩이에서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꺼내 응달에다 놓고 거적으로 덮어서 외기와 차단하여 20일 후 분쇄하여 얼맹이로 쳐서 분말로 만든 후 다시 절구통에서 분쇄하여 아주 고운 체(지름 0.3~0.5m/m)로 쳐서 고운 분말을 만들어서 자루에 담아 통풍이 잘되는 온돌방(20℃)에서 보관한다. 최근엔 비닐 하우스에서 전기로 온도를 맞추어 보관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문화재청의 조사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기술하였지만 올해 촬영시의 작업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석회 제조의 단계별 과정

① 황토바닥가마는 지름이 약 1.5미터가 되는 원형의 흙구덩이를 파서 만든다. 안쪽은 70cm 정도 깊숙이 파고 가장자리는 둔턱을 만든다.

② 황토바닥가마 구덩이에 자연산 굴을 굽기 위해 준비한다.

③ 마른 솔나무 가지를 불쏘시개용으로 바닥에 소복이 깔아준다.

④ 참나무나 통나무 한 트럭분을 그 위에 차곡차곡 계속해서 몇 겹으로 쌓아 올린다.

⑤ 그 위에 미리 깨끗이 손질해둔 작은 자연산 굴 껍질을 세 부대 정도 쌓는다. 올려진 굴 껍질을 일일이 잘 펴서 고르게 한다.

⑥ 그 위에 거적(덕석)을 덮는다. 가마 전체를 다 덮을 정도로 넓은 거적은 굴 껍질이 타면서 튀는 것을 막고 열 손실을 적게 하며 다 구워진 후에도 굴 껍질이 제자리에 놓여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준다.

석회 제조를 위해 자연산 굴이나 굴껍질을 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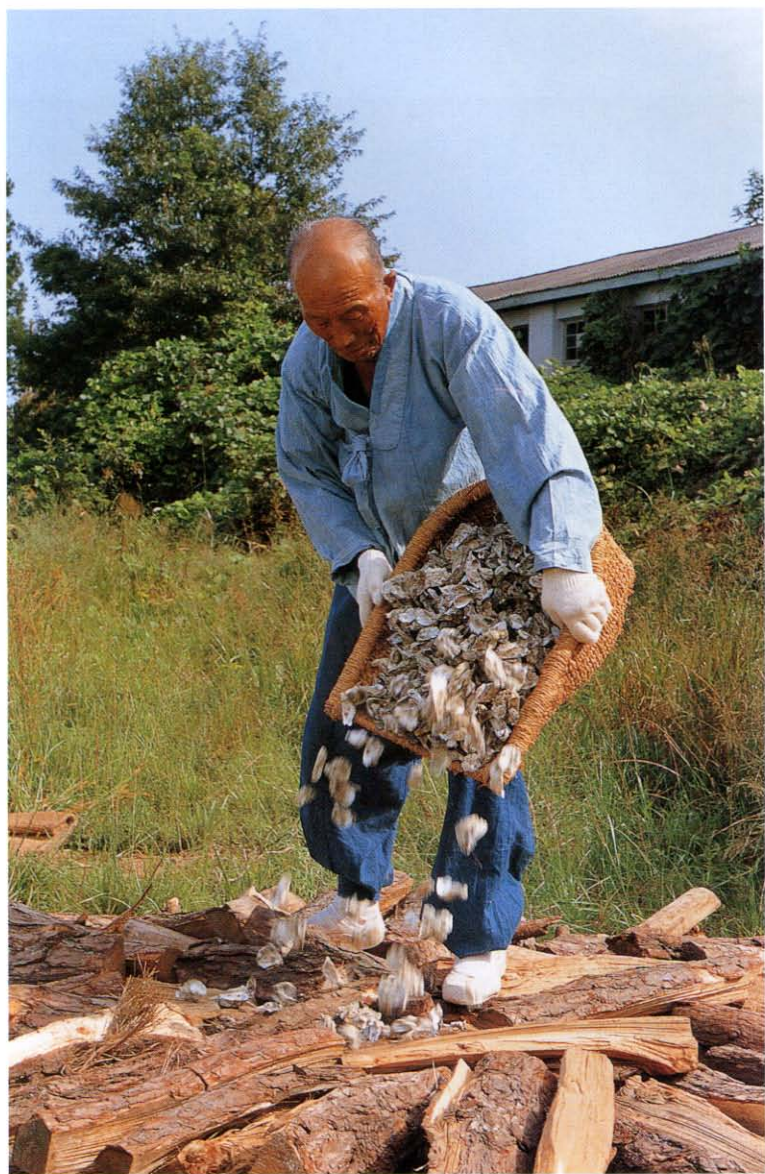
황토바닥 구덩이에 솔가지를 깎다.



솔가지 위에 통나무나 참나무를 쪼개어 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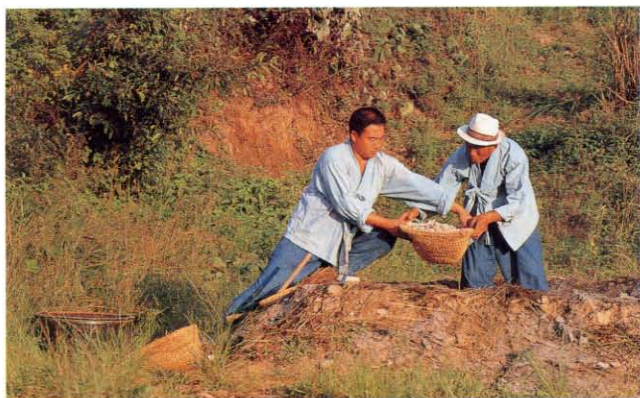
잡안의 구덩이 가마나 야외에서 바닥 구덩이 석회 가마와 잣물술을 끓여 두고 먼저 석회를 만든다.



장작 위에 굴껍질 놓기.



장작 위에 굴껍질을 소복하게 쌓기.



굵겉질을 운
반하고 있다.



굵겉질 쌓기
완성.



굵겉질을 쌓
은 후 거적을
덮는다.

⑦ 흙바닥 가마 아궁이에 솔가지를 불을 붙여서 넣는다. 원래는 가마 측면 중간의 불아궁이에 불솔가지를 넣으나 장마 관계로 평면에서 쌓아 아래 부분의 불아궁이에 솔가지에 불을 지피면 마른 가지에서부터 불이 붙어서 타기 시작한다.

⑧ 조개 껍질을 운반했던 삼태기로 바람을 불어 넣기를 20분 정도 하면 덮어 놓았던 덕석 위로 연기가 엄청나게 솟아오른다.

아궁이에 짚으로 불을 붙이고 삼태기로 부채질을 한다.



연기가 나는 구멍에 풀부스러기를 넣고 삼태기로 바람 넣는다.



엄청난 연기가 치솟아 오른다.



⑨ 거적 위에 연기가 나오는 구멍을 막기위에 생풀을 낮으로 베어 가마니 위에 가득히 얹고 구멍을 막아주고 물을 뿌려준다. 아직도 연기가 계속 나오나 불꽃이 잦아든다.

⑩ 큰 돌맹이를 주어서 아궁이를 막고 삽으로 흙을 파서 아궁이를 마감하여 공기를 차단해주지만 계속 불꽃과 연기는 나온다.

⑪ 풀을 계속 베어서 연기가 나오는 구멍을 막고 물을 퍼서 덕석 위의 풀에 뿌려 불기운을 잦아들게 만든다.

⑫ 풀로 덮어주고 물을 뿌리는 것을 4~5시간 해준다. 그때도 연기는 많이 줄어들지만 불꽃은 여전히 나오고, 굴껍질이 타는 탁탁거리는 소리가 난다.

⑬ 아침 8시부터 불을 지펴 그 다음날 12시까지 불을 계속 때어서 12시쯤 종료하는데 총 24시간 동안 굽는다. 이틀 후 가마니는 새까맣게 타있고 그 거적 위에 이슬, 서리가 내려 식어서 마치게 된다.



불을 다 때고 난후.

⑭ 하루를 식혀 땅거미가 지기 전 거적을 걷고 싸리비로 채를 쓸어내면 잘 구어진 굴 껍질이 남아 있다.

⑮ 구덩이 바닥가마에서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싸리비로 조심스럽게 꺼내어 응달에다 놓고 거적으로 덮어서 외기와 차단하여 보관 후 20여 일 후에 분쇄하여 사용한다. 보통 굴 껍질 7자루를 태우면 2말~3말 정도의 석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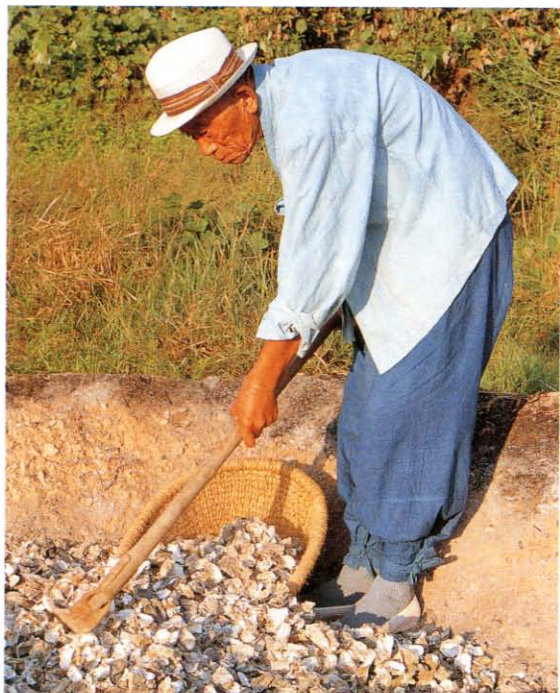


위의 것을 걷어낸 상태.



굴껍질이 타서 나뭇재와 섞여 있다.

먼저 빗자루로 재 쓸어
내고 삼태기에 굴껍질
을 긁어넣기.



다 태운 석회를 보관해
두었다가 사용 직전에
채로 쳐서 분말을 사용
한다.



2. 대량 생산 잣물 만들기

매염제로서 중요한 것은 석회 이외에 잣물이다. 미리 사용한 쪽대를 잘 펴서 벌에 말려 두었던 벚짚이나 쪽대를 음력 10월경에 들에 나가 태운다. 불길이 사그라지면 충분히 타지 않은 것은 갈퀴로 분리하고, 다 탄 재는 싸리비로 쓸어 모아 삽으로 퍼서 항아리에 담는다. 그 재를 널베기(받침 독아지)를 놓고 그 위에 삼발을 놓은 후 시루를 놓고 삼베나 형짚을 깔 후 처음에는 식은 재를 놓고 그 위에 금방 태운 재를 쌓아 놓고 그 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 그 잣물을 걸러낸다. 내려진 잣물은 한 번 더 걸러준다. 시루에 놓는 방식은 전통적인 수공업 형태인 잣물내리기지만 아래의 태우는 방법은 대량으로 재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보여주었다.



잣물을 만들기 위해 야외에서 대량 생산식으로 쪽대 말린 것을 모은다.

1) 재 만들기

① 쪽대 말린 것 2트럭 분을 마당 가운데 쌓고 짚단을 3군데 놓고 1시간 동안 태우면 40kg(쌀가마니 포대) 한 부대 정도의 재가 만들어진다. 이때 주위에 화재 위험이 있으니, 학교 운동장 같은 너른 공터에서 불을 태워 다량 생산의 재가 만들어 진다.

② 이 재를 시루에 올려놓고 뜨거운 물을 부어 잿물을 내리고, 다시 그 물을 떠서 미리 준비 해놓은 시루에 걸러 내려서 사용한다. 이때 솥을 야외에 설치하여 물을 가마솥에 끓여 시루 밑바닥에 천을 깔 다음 미리 만들어 놓은 재를 담아서 그 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 잿물을 받는다. 잿물이 완성되면 손으로 짚어 잿물의 옅고 진함을 알 수 있도록 상태를 본다.



짚을 군데군데 놓아 불사른다.



쪽대 타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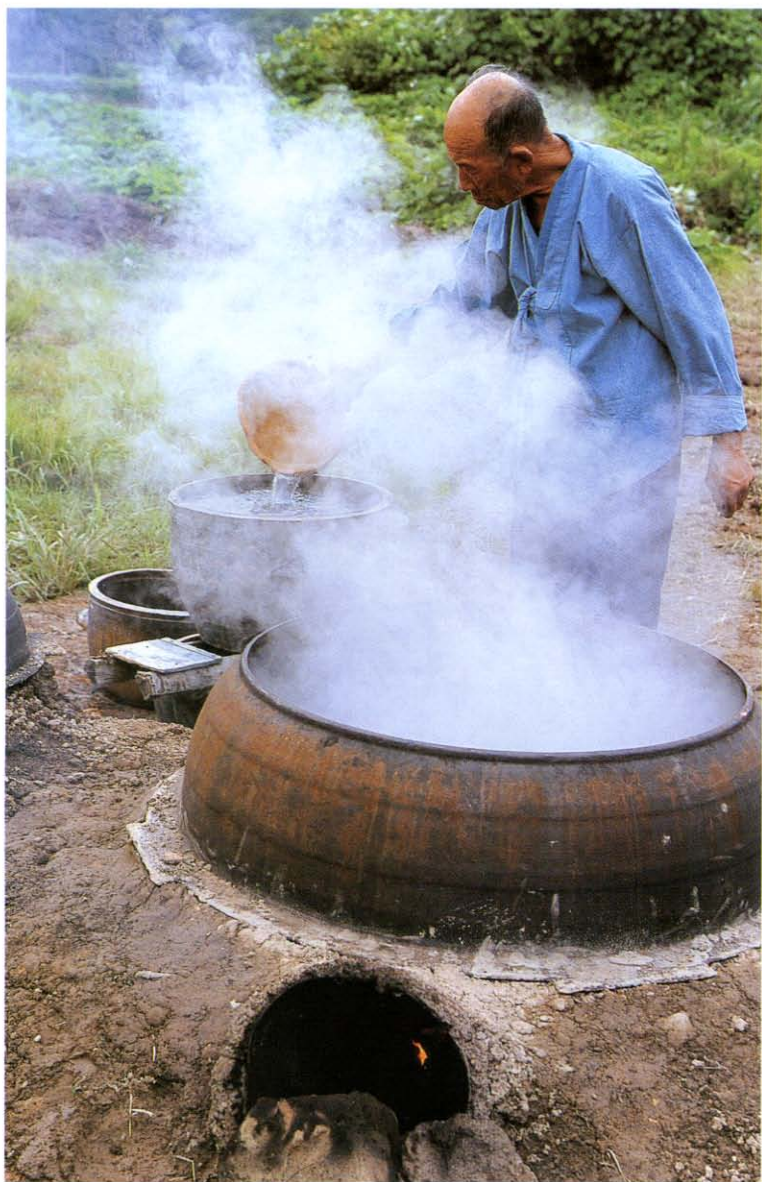
고르게 태우기 위해 뒤적이는 모습.



다 태운 재를 삼태기에 모아 담는다.



널베기 위에 삼발이나 나무 막대를 얹고 시루를 얹어 재를 넣기.



뜨거운 물을 시루에 따라 부어 잿물을 만든다.



젖물이 시루 밑으로 걸러지면 농도가 알맞은지 손으로 짚어 상태를 본다.

3. 염색 과정

1) 재료 및 명칭

쪽풀(藍草), 굴껍질을 구워 만든 석회가루, 벚짚이나 쪽대를 태워서 만든 잿물을 사용한다. 안방에 독2개 사용, 침전남(쪽앙금) 1동, 잿물 10동을 섞어 27~28℃ 정도의 온돌방에서 발효기간 2주~1개월, 겨울은 2주~1개월, 발효가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막걸리나 식혜를 가한다.

2) 쪽물의 특성

쪽은 직접 염색되는 것이 아닌 환원성 염료로 알칼리에 의해 환원되어 염색한 후 다시 산화 발색시키는 과정이다. 쪽에서 나오는 추출액은 직접 염색되지 않고 쪽풀을 물에 담가 색소를 우려내고 그 색소를 알칼리인 석회를 가하여 석회와 함께 가라앉게 하여 침전쪽(앙금:니남)시킨다. 그 침전물에 잿물을 넣고 발효시키면 다시 석회와 분리되어 그 석회는 가라앉고 색소는 염료화되는데, 여기에 천을 담가 염색한 후 공기에 산화 발색시키면 비로소 푸른색을 띄게 되는 원리이다.

3) 쪽풀 재배와 매염제

쪽풀 재배는 본인밭 3군데에서 본인이 재배, 굴껍질은 함평군 송벌면에서 구입해 본인의 평면식 황토 바닥 가마(구덩이)에서 구워내어 준비해 놓는다.

4) 명하 침전쪽 담기(쪽물 조합)

(1) 쪽물 담그는 과정

①쪽을 수확하는 시기는 팔월 초순으로, 쪽의 길이가 60~70cm 쯤 자랐을 때 쪽을 베는데, 이슬이 흠뻑 내렸을 새벽 3시쯤에 쪽대를 베어 항아리에 공간이 없도록 눌러 담고 샘물을 항아리 가득 채워서 24시간 담아둔다.

② 12시간 정도 경과하면 쪽잎과 줄기가 삭아서 항아리에서 회전할 정도로 삭으면 위 아래가 완전히 바뀌도록 뒤집어놓아 골고루 물에 잠기도록 해준다. 뒤집어 쌓은 후 쪽의 삭은 상태를 확인 후 쪽을 건져낸다.

③ 다음 날 항아리 안의 쪽대를 뒤집는데, 이때 줄기는 그대로 있고 잎만 삭은 상태이다.

밭에서 베온 쪽대를 독에 담는다.





독에 담은 쪽잎 위에 물을 붓는다.

④ 항아리 안의 쪽잎을 삭혀 쪽색소가 우려나지 않을 때 날씨에 따라 하루 또는 하루 반이나 2일간 침적한 후 쪽을 건져낸다. 쪽잎의 형태는 잎이 삭아서 잎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며 쪽대는 흐물흐물해져 있거나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형태와 같은 상태로 되어 있다. 이때, 뒤집어 쌓은 후 3~4시간이 경과하면 쪽대를 건져내는데 항아리에서 쪽대와 잎을 건져내면 항아리에 약 70% 정도의 물이 남는다. 다른 항아리에서 나온 쪽 담근 물을 퍼서 채운다(3개의 항아리를 담갔을 때 물의 양은 약 2개의 항아리 정도 됨). 항아리에서 건져낸 쪽대와 잎은 이물질이 혼입하지 않도록 하여 완전히 건조시켜야 한다. 특히 참깨대가 혼입되었을 때는 쪽물이 생성되지 않아 염색에 실패하게 된다. 쪽 색소가 우려나온 쪽물 한 독 쪽잎이 삭은 물 180 l)에 굴 헛가루 3~4홉 넣고 고무래로 위 아래로 20분 정도 반복하여 치면 작은(5 m/m의 지름인) 거품이 물표면에 생긴다.



하루가 지난 후 쪽대를 들어낸다.

⑤고무래로 30분 정도 쳐주면 작은 거품이 큰 물방울로 생긴다. 처음에 노란(연두)색이던 물이 파란색으로 점점 짙어지면서 대추알 크기의 거품이 일어난다.

⑥물색이 흰색에서 짙어지면서 깨알만한 거품이 대추알만한 거품으로 독 가득 채워진다. 다시 20분 정도 계속 젓고 있으면 거품이 차츰 없어지며 액의 색이 가지색(감청색)으로 되어야 가장 좋은 상태인데 색의



쪽대를 들어낸 후 우러난 녹색 색소액.



미리 만들어 놓은 석회를 쪽물 한 독에 4홉을 넣는다.



고무래로 저으면 옅은 쪽색과 함께 흰 거품이 생긴다.



진쪽색과 파란 거품이 인다.

상태가 완벽하지 못하고 거품이 남아 있을 경우 윤쪽물장은 이 상태의 경우 물이 싱겁다고 표현한다. 윗물색이 맑게 되었을 때 윤보유자 얼굴이 보인다.

⑦다음날 항아리 안에 있는 색소가 가라앉으면 정종같은 누우런 물이 생기면서 색소 양금이 가라앉아 침전쪽이 생겨 있다.

⑧항아리 안에 누런 물을 먼저 바가지로 떠내고 다시 독을 얹어 따라 버리고 가라앉은 침전쪽(양금)을 바가지로 독에 담아둔다.



고무래질을 하면 흰거품에서 파랑, 남색으로 변한다.



연파랑 거품에서 중
파랑 거품이 인다.



점점 거품이 크게 되
며 짙은 꽃거품이 인
다.



점다시 물바닥이 맑
아지며 거품도 줄어
든다.



쪽물 바닥에 거품이 없어지고 얼굴이 비칠 정도로 맑아진다.

⑨작은 항아리에 침전쪽을 담아둔 지 3, 4일이 지나 윗물만 따라내면 침전쪽은 두부같이 된다.

⑩시루에 포대나 삼베천 혹은 당목천 2겹을 깔고 그 위에 쪽 앙금을 담는다. 물이 완전히 빠져 묵정도로 반응고가 될 때까지 수분을 뺀다.

⑪침전쪽을 담은 시루를 얼지 않게 또한 바람이 들지 않도록 3~4개월 그늘에서 말려서 저장해둔다. 180 l 중 침전물은 약 3 l 정도가 된다.

잠시 두었다가 윗물을 바가지로 떠내버린다(윤병윤 보유자와 사남 윤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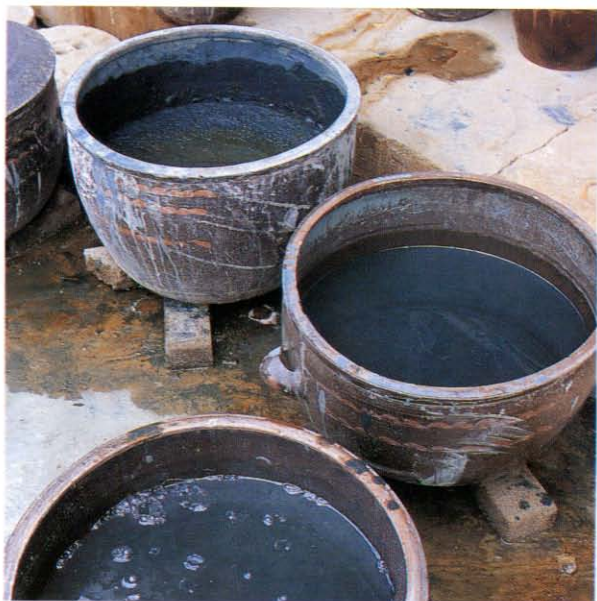




(위 왼쪽)독을 옆으로 엮어 나머지 뽕 물을 따라 버린다.



(위 오른쪽) 바닥에 남은 침전쪽(쪽앙금)을 바가지로 긁어낸다.



받아놓은 침전쪽을 쪽시루에 따른다.



쪽시루에 모여진 침전쪽.



받아서 저장해 놓은 침전쪽(쪽앙금).

5) 명하 쪽물 짓기와 염색

(1) 쪽물 짓기 과정

①마른 쪽 침전물(앙금)을 넣은 항아리에 음력 10월 콩대를 태워 만들거나 벗짚이나 쪽대를 태워 만든 잿물을 받아 이때의 침전쪽(쪽앙금 : 200g)과 잿물(20l)의 1대 10의 비율로 혼합하여 항아리에 붓는다.



침전쪽을 잿물에 넣어 담기를 준비한다.



안방에 발효 항아리를 준비한다.

② 잘 혼합한 물을 따뜻한(27~28℃) 정도의 방에 보관하고 적정온도에 다 발효가 되면 색깔은 검정색을 띄게 된다. 보관시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발효가 잘되면 색깔이 투명해지면서 약간 누런색을 띄며 구름처럼 물이 회전하기 시작하면 완전한 쪽물 제조가 된다.

③ 항아리에 잿물을 넣은 후 2주~한 달 사이에 쪽물의 색깔이 투명해지면서 검은물이 노랗게 일어난다. 이때 접시로 물을 떠보면 노란물에서 파란물빛이 돌면 염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대로 3일간 놔두었다가 염색한다.



쪽침전물의 4배의 잿물에 개어 독에 넣는다. 쪽물담기 비율은 부인 나정임 여사의 몫이다.



쪽물 담기를 한 후 짚뚜껑으로 덮기. 빨리 발효하려면 단술을 넣는다.

(2) 쪽물 제조 과정

촬영 당일 염색 기술을 상세히 제시하지 않아 간략한 내용만을 기술한다.

쪽물에 물들이되 그 쪽물에 빨리 발효시킬 때 감주를 넣으면 1주일~2주일 정도로 발효가 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발효할 때는 20일~한 달 후가 되어야 발효한다. 발효된 염액 안에 하얀 실지렁이 같은 남균이 살아 움직이는데 한 보시기 안에 10~15마리의 남균이 움직여 보인다. 생명체가 살아 움직이는 살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나 오



쪽물을 담아놓은 상태.



발효가 다 되어가는 상태.

폐수 문제와는 무관한 인간이 약으로 먹을 수 있는 발효 남균이 살아서 보이고 있다. 대부분 빨리 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내에서 염색하고 또 진하기 때문에 남균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하지만 이번에는 화창한 날씨에 마당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남균을 볼 수 있었다. 여름에 침전쪽을 만들고 날씨가 추워져서 방에 불을 지피 방에 온기가 날 때 9월말부터 발효시켜 염색한다고 하였다.

(3) 천의 정련

물들일 옷감을 잿물에 삶아 마진(정련)하여 깨끗하게 건조해둔다.

(4) 쪽물 만들기

① 염색은 새벽 3시에 미리 깨끗이 정련해 놓은 옷감을 독에 넣고 잘 뒤적이며 1시간 정도 두었다가 4시 경에 건져 밖에서 말린다.

② 다음 날 염료가 가라앉으면 또 들인다. 이 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 진한 쪽 염색감을 만들 수 있다.

③ 물들이는 방법을 반복하여 2시간 담가 두었다가 짠 후 건조시킨다. 이 과정을 10~15회까지 반복한다. 따라서 염색하는 횟수를 조절하면 연한색에서부터 진한색까지 다양한 농담색을 나타낼 수 있다.

④ 처음엔 녹색에서 연파랑, 녹색에서 남색으로 산화 발색된다.

⑤ 쪽물을 들인 후 건조 후 수세한다. 이렇게 천을 물들이는 과정은 이른 봄부터 재배로 시작된 준비과정을 거쳐 10월이 되어야만 염색이 가능하다. 이는 윤병운 보유자가 옛날 농경생활에서 농사짓는 시기와 온돌방에 불을 넣는 시기에 맞춰 염색을 하고 있었다.



쪽물이 발효가 다 된 상태로 구름무늬가 인다.



쪽물들이기.



(위)처음에는 초록색으로 물들여진다.
(아래)산화되어 푸른빛이 돌기 시작한 상태.

(위) 푸른빛으로 산화되어 가는 과정.
(아래)물에 한 번 씻기.





윤병윤 보유자와 사남 윤대중, 머느리 최경자. 쪽물을 들인 후 널기.





완성된 쪽물의 연 · 중 · 진색과 모시 · 무명의 쪽물친 두루마리.



쪽물 염색의 명도차를 보여주고 있는 쪽물친.

4 나주 샛골 쪽 염색

쪽의 생태학적 내용은 앞서 논문⁹⁷⁾에 기술했고, 쪽(남:藍)은 마디풀과 (polygona ceae)에 속하는 1년초 염료 식물이며 학명은 폴료나 틱토리아 그로스(Polyona(Persicaria) Tinctoria Gross)이다.

인류 역사상 식물 염료로서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이 쪽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은 대부분 여뀌과 식물로 줄기는 마디가 있고 뿌리 근처 줄기에는 털이 나와 있으며 키는 60~70cm가량으로 장타원형의 잎으로 어긋나게 나며 7~8월에 이삭형의 꽃이 필 무렵 앞에서 남빛 색소를 분리 추출하여 자연 염료로 널리 사용한다.

쪽색은 다른 색과는 달리 자연(自然)에서 바로 재현할 수 없고, 조갯가루와 잣물로만 만들어지는 자연 염료로 산화와 환원이라는 화학적 변화를 거쳐 살아 있는 미생물의 발효 작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 또한 많은 시간과 노력,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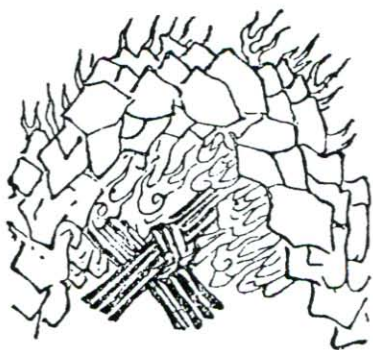
97) 정관채, 앞의 글

1. 황토 가마 석회 제조

1) 석회 제조의 특성

나주 셋골에는 1970년까지 영산강 주변에서 항아리를 구웠던 가마터가 있었고, 전통적으로 석회 굽는 방법⁹⁸⁾이 그림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는 굴석회가 아니고 청석회인 광회(磺灰)이다. 지금도 무안군 몽탄면 몽강리에서 도자기를 굽고 있다. 지역에 따라 황토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따라 정관채 보유자도 황토로 흙벽돌을 만들고 두더지 가마를 만들어 조개석회를 구워내는 방식으로 전승해 왔었다.

굴껍질 구입은 전남 무안군 현경면 톱머리 해안과 함평군 송별면에서 채취하나 대량으로 필요할 경우 남대문이나 굴생산 및 판매장에서 대량 구입하기도 한다.



석회를 만들기 위해 장작불을 놓고 구웠던 전통 방식의 가마(『본초강목』).

2) 석회 제조의 원리

석회는 굴 껍질이나 조개 껍질을 장작불에 1,000℃ 이상 구워서 아직 불기운이 남아 있을 때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항아리에 넣고 꼭 덮는다.

98) 이시진, 신주교정 국역 『본초강목』, 제3책, 행림사, 장판.

2~3일 놓아두면 공기중에 산화가 시작되고 가루 분말을 체에 쳐서 사용한다.

3) 석회 제조 과정

① 석회의 양은 1년에 7~8회 굽는데 1회에 10말(300kg)의 조개류가 든다.

② 조개류 중 가장 질이 좋고 양이 많은 것은 떡굴, 굴, 소라, 꼬막 등

바닷가나 강가
에서 굴껍질
채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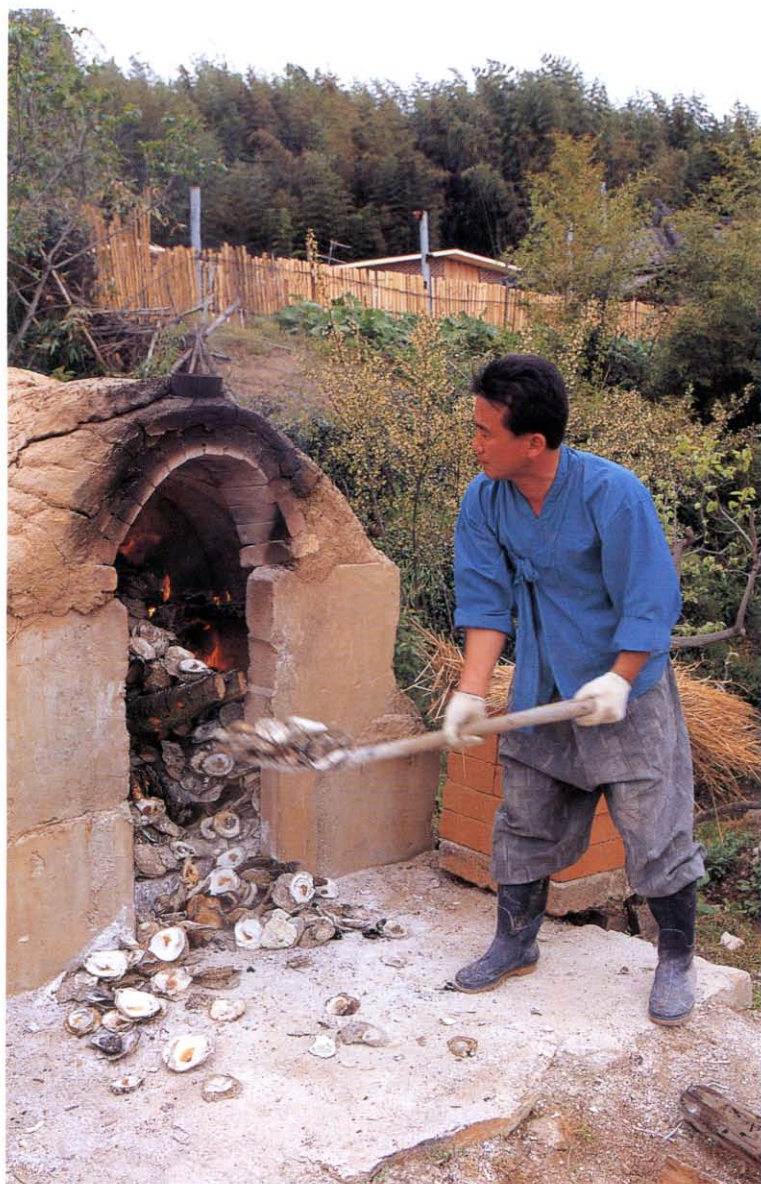


주운 굴껍질
손질하기.





준비해둔 굴과 떡갈껍질을 황토 가마에 삼태기로 담아 넣는다..



석회를 만들기 위해 굴과 떡굴껍질을 굽는 황토 가마에 삽으로 넣는다.

순서로 애용되고 있다. 그러나 많이 사용되는 것은 떡굴 종류이다. 채취한 굴 껍질은 이물질을 제거한다. 짚으로 하나하나 깨끗이 씻어 차곡차곡 준비해 놓는데 햇볕에 잘 건조시켜 준비해 둔다.

③ 불을 때는 나무는 옛날에는 정가마을의 소나무를 이용했으나 최근 은 목재소나 프라나타스나무, 패긴축자재를 이용하여 불을 때고 있는데 온도는 $1200^{\circ}\text{C}\sim 1250^{\circ}\text{C}$ 정도에서 태워야 잘 소성된 석회가루를 만들 수 있다.

④ 충분히 장작을 넣은 후에 불을 붙이면 장작은 타오르기 시작한다.

⑤ 석회는 굴껍질이나 조개껍질에서 이물질을 제거한 후 삼태기에 담아 황토석회가마 속으로 던져넣어 구워낸다.

⑥ 굴껍질을 활활 타는 불길 속에 던져 넣는 것을 반복한다.



황토 가마에서 미리 통나무를 바닥에 쌓아놓고 토종 굴껍질과 떡굴을 교차로 넣고 굽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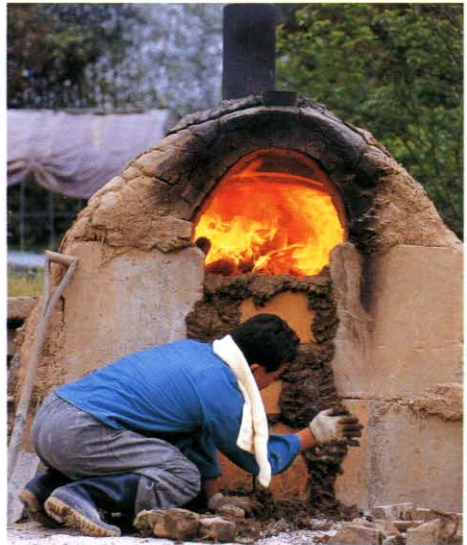
불이 붙기 시작하여 장작이 타고 굴쪽에선 연기가 나기 시작한다.

불이 활활타오르기 시작해 열이 올라간다.



다시 장작을 넣고 굴을 교차로 놓기 위해 굴껍질을 첨가하여 쌓아서 굽기.

불이 완전히 타면 입구를 황토 벽돌로 막는다.



⑦ 조개 껍질이 한겨 쌓이면서 불길의 조금 약해졌다 싶으면 그 위로 장작을 더 넣어주고 다시 굴 껍질을 던져 넣는다.

⑧ 장작과 굴 껍질을 번갈아 쌓아서 가마 속을 가득히 채우고 12시간 동안 굽는다.

⑨ 가마 전체에선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굴뚝에서는 센 불꽃이 치솟는다.

⑩ 이 때 온도는 약 1200도가 넘어 높은 열이 발생한다.

⑪ 불이 충분히 오르면 가마의 입구를 막고 진흙을 바르고 벽돌을 놓고 다시 진흙을 바른다.

⑫ 불씨가 모두 없어지면 입구의 맨 위까지 모두 막고 틈이 있는 곳은 진흙으로 꼼꼼히 발라 마무리 한다.

⑬ 밤이 되면 가마 위에 명석을 덮어준다. 외부의 공기를 철저히 차단 하여 열을 빼가지 않도록 보온을 유지시켜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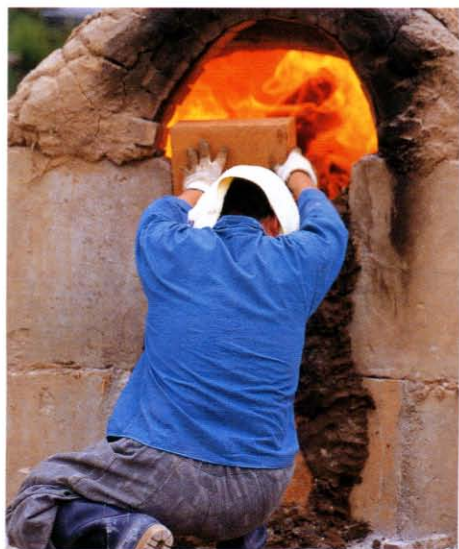
⑭ 이틀 동안 꼬박 구워서 불을 지핀 지 사흘이 지난 아침에 썩워두었던 가마니를 걷고 가마의 입구를 열어낸다.

⑮ 마당에 명석을 깔고 항아리 안에 있는 구워진 조개를 쏟아놓고 선별·분리 작업을 한다. 잘 구워진 조개 껍질은 뽕앙고 하얀색이 되어 있고, 덜 구워진 것은 검은 빛을 띤다.

⑯ 조갯가루를 항아리에 넣고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 항아리에서 김이 난다. 두꺼운 종이를 덮고 다시 한지로 덮은 다음, 뚜껑을 덮어 보온을 유지한다.

⑰ 김이 멎은 후 약 15일간 보관했다가 항아리 뚜껑을 열면 하얀 석회가루가 되어 있다. 항아리 속에서 산화되어 소석회가 되어 있는 것이다.

⑱ 석회 보관 장소를 따로 두고 바닥에는 격자로 놓아 항아리가 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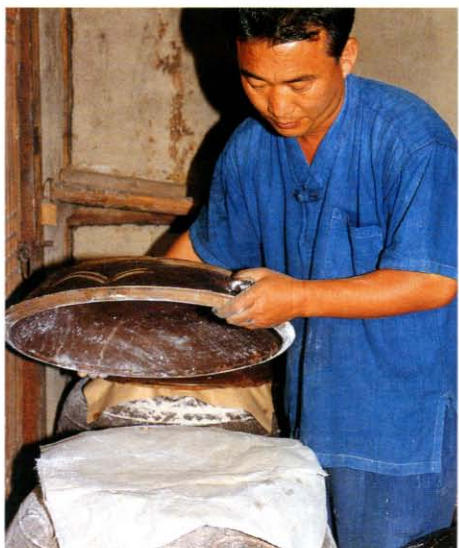


황토 벽돌로 쌓기.



황토벽돌로 완전히 가마를 막기.

식은 후 다 탄 굴겉질을 잘 구워진 것만 모아 밀폐된 독 20여일 지나면 굴겉질이 부서져 분말이 된다.
에 넣는다.



에서 떠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항아리를 놓아 습기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4) 석회 제조 과정(당일 현장 과정)

석회 굽는 방식을 상세히 기술하면 석회 제조를 위해 떡굴껍질을 태우는 방법은 큰 통나무를 밑에 깔고 그 위에 삼태기에 담아온 굴껍질을 가마에 넣고 그 후 불꽃이 약간 사그라지면 장작을 넣고 다시 조개 껍질을 넣는다. 이 과정을 7회~8회 반복하여 굴껍질을 첨가하여 쌓아 12시간 정도 완전히 활활 태워서 열이 강하게 올라간 후 앞문을 황토 벽돌과 진흙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며 막는다.

가마의 보온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마 위에 명석을 덮는다.

3일 지난 후 가마를 열어 잘 구워진 것과 덜 구워진 것을 분리 작업을 하는데 잘 구워져 하얗게 형태가 보존한 것이 비율로 보면 9, 덜 구워져 검게 남아 있는 것이 1, 정도로 분리할 수 있다. 따뜻한 상태에서 완전 소성된 것만을 항아리에 넣고 밀폐하여 따뜻한 방안에 보관하는데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 창호지나 기름종이를 얹고 뚜껑을 덮고 이불을 씌워 보관해 둔다.

항아리 안의 조개류는 차츰 산화되어 한 달이 지나면 완전히 산화가 되어 가루가 된다.

산화가 되면서 다시 껍데기 부분에 황색미를 띄거나 거기에 다시 항아리에 공기가 들어가면 흡수되어 흰색이 된다.

2.가내식과 대량 생산 잿물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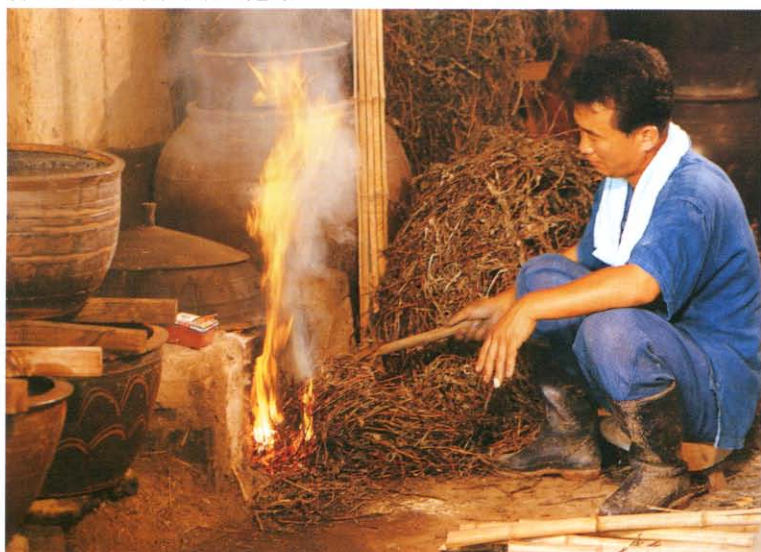
1)가내식(家內式)잿물

① 쪽염색의 매염제로는 굴껍질로 만든 석회가루를 만들며, 이외에 잿물을 준비해야 한다.

② 잿물은 콩대나 찰벼짚 또는 쪽대 말린 것으로 준비하여 사용하는 데 이번 작업은 쪽대를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태워서 재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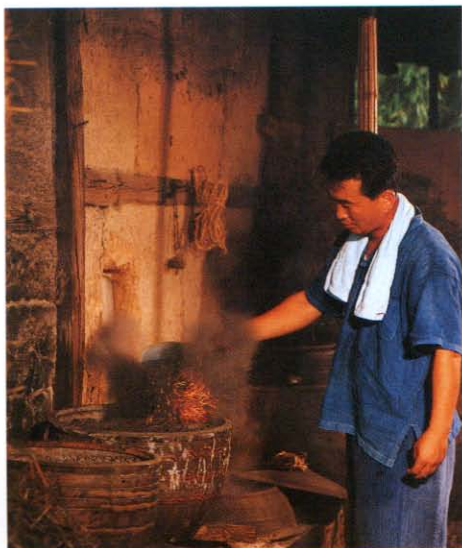
③ 널배기 위에 시루를 얹고 시루 바닥에 짚을 두껍게 깔고 그 위에 모아둔 재를 소북이 담고 그 위에 빨강게 재가 식기 직전에 얹고 끓는 물을 붓는다. 재가 빨강게 되어 바로 식어갈 때가 식은 재를 사용하는 것

잿물을 만들기 위해 쪽대를 태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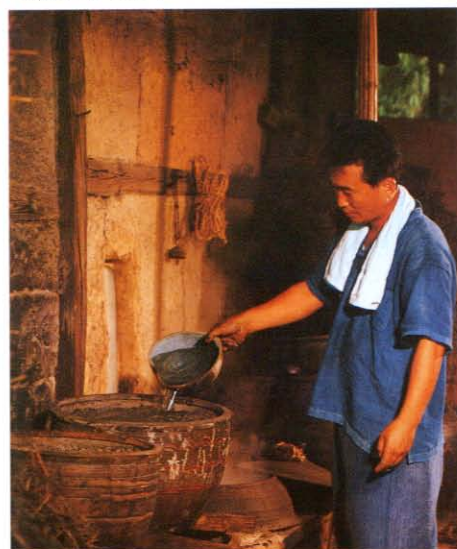


잣물을 받는 모습.



빨강 재가 사그라질 때의 재를 시루 위에 얹는다.

뜨거운 물을 붓는다.



받혀진 잣물을 두번째 부어 깨끗하게 한다.

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한다.

④ 끓는 물이 재에 스며들면서 시루 밑으로 흐르면 그 물이 널베기에 고이는데 그 물이 잿물이 된다. 2차 그 물을 다시 시루에 담긴 재에 부어서 잿물을 거르면 잿물이 진해진다. 그 후 그 잿물을 가라앉혀서 다시 체에 고운 천을 깔고 따르면 맑고 깨끗해진다.

2) 대량 생산 잿물

전통적으로 가내에서 행해왔던 잿물내기는 재가 불에서 막 사그라 질 즈음이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그때 마다 조금씩 만들어 왔다. 그러나 정 보유자는 쪽물작업을 톤 단위로 해야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외에서 쪽대를 태워 잿물을 만들기도 한다.

(1) 대량 잿물 만들기 과정

- ① 야외들에서 재를 만들기 위해 쪽대 태우기.
- ② 많이 태워 불꽃이 잦아든다.
- ③ 거의 다 태워 재가 많이 생기고 불꽃이 사라져 간다.
- ④ 널베기를 놓고 삼발(막대)를 놓은 후 시루를 놓고 짚을 깬다.
- ⑤ ④번의 준비된 위에 들에서 태운 재를 가득 담는다.
- ⑥ 뜨거운 물을 바가지로 재 위에 부어 내린다.
- ⑦ 계속 뜨거운 물을 붓는다.
- ⑧ 시루 밑의 널베기에 잿물이 내려온다.
- ⑨ 손으로 잿물을 만져 미끌한 상태를 경험으로 알 수 있다.



재를 만들기 위해 들에서 쪽대를 태우기.
불이 활활 타오른 후 불꽃이 사그라들면 재만 남는다.





넙베기에 삼발을 놓고 시루를 놓은 다음 짚을 깬다.



시루에 재를 가득 담는다.

뜨거운 물을 재 위에 부어 내린다.





계속 뜨거운 물을 붓는다.



시루 밑의 널베기에 찻물이 내려온다.

3. 염색 과정

1) 재료 및 명칭

정관채 보유자의 염색 과정의 재료 및 명칭은 쪽재배용 싹 재배판, 쪽 재배 본밭이식, 쪽채취, 석회, 황토석회가마, 잣물, 침전쪽(침전남, 쪽앙금, 니남, 쪽죽), 발효남(꽃물, 물발), 청대, 탁주, 탁주식초, 단술 등이 사용된다.

2) 재료 구입처와 구입 방법

본인 쪽재배밭 2,500평, 본채 마당 2개소에 200평 정도의 쪽을 재배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쪽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이웃 유희농토와 노동력을 이용하여 5만 평 정도의 쪽재배를 유도하여 농사짓는 대가보다 훨씬 좋은 노동력의 처우를 할 수 있도록 농산장려에 들어가고 있으므로 대량 생산을 위한 쪽물 염색의 계량 발전 방식으로 황토흙에 독항아리를 묻어 쪽 재료를 소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샛골쪽의 쪽의 생엽염과 침전쪽(남)염색

샛골쪽의 대표염색은 침전쪽(남)염이지만 생쪽으로 하는 쪽의 생엽염을 체험 교실이나 배우러 오는 연수생의 강의 시에 행하는 『규합총서』에 나오는 생즙염인 옥색 염색인 전통 방식으로 염색하기도 한다.

(1) 쪽(남藍)의 생엽염(生葉染)

남의 생즙염을 전통적인 방법을 먼저 열거하고 현대에서 행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① 꽃대가 나와 꽃이 피기 전 쪽잎(藍葉)을 물에 담가두고 쪽기는 돌을 큰 함지박에 넣어서 갈거나 나무나 돌학에 절구질을 하고 많을 때는 대량생산할 때는 디딜방아나 연자방아를 이용하여 쪽잎을 갈아 얼음을 넣고 체에 받힌 즙(汁)에 천을 넣어 염색한다.

② 농색염색(濃色染色)을 할 때는 진한 즙(濃汁) 그대로 염색하여 얼음을 넣은 물(氷水)에 담가두고 돌려주어야(각반) 하고 두드리지 말아야 색이 선명하다.

③연한색을 할 때는 얼음을 많이 넣은 쪽물(藍液)에서 염색해야 한다. 물들일 때에는 “너비를 잇아야” 즉 양쪽 손으로 천 가장자리를 잡으면 서 퍼가며 움직이면서 염색해야 하며 염색 후 베틀어지게 짜서 빨래대에 꿰어 그늘에서 힘껏 잡아당기며 공기 산화로서 건조시켜야 하며 흑씨 고무줄에 널어서도 부채질하며 공기 산화를 촉진시켜서 발색시킨다.

(2) 샛골 침전쪽 담기

침전 염색법은 전남 나주 지방을 중심으로 영산강 유역의 지리적 환경영향으로 광주, 담양, 장성, 화순군 등 영산강을 이루는 물줄기와 바닷물이 합류했던 나주는 홍수의 피해가 매우 심했던 지역이다. 이 지역의 대체작물로 성했던 쪽(남)의 침전 염색은 특히 이 지역 특성의 지역적 여건으로 꼬막이나 굴껍질로 석회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 방법은 나주 지방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남 지역에서도 굴껍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진주, 부산, 창원 지역의 기능 보유자들에 의해서도 이 침전쪽이 제조되고 있다.

① 7~8월의 꽃대가 형성되고 뜨거운 태양과 함께 수확이 시작되는데 온도가 가장 높은 삼복 더위가 좋다. 진한 초록색 잎과 줄기를 베어 독에 차곡차곡 넣고 그 위에 돌을 얹고 깨끗한 냇물로 가득 채워 24시간 침적하여 삭인다.

② 보통 20~25℃ 물에서 하루(10~24시간)가 지나면 물은 연한 녹색에서 청록색으로 색소가 잎에서 분리되기 시작한다. 물의 상태를 확인한 보유자는 쪽이 물에 잘 잠기도록 한 번 뒤집어주고는 다시 돌로 누르고 뚜껑을 덮어 둔다.

③ 2일이 지나면 심한 악취가 나면서 쪽 풀에서 색소가 완전히 분리되

쪽밭에서 베어온 쪽풀을 독에 담기.





쪽풀을 독에
가득 채우고
돌을 얹은 다
음 빗물이나
자연수를 넣고
삭인다.



쪽 담은 지 1일
째.



쪽 담은 지 2일
째 쪽대 밑에
우러난 초록 색
소물이 보인다.

지만 더 이상의 시간이 경과되면 채도가 낮은 어두운 색으로 변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다.

④ 쪽 담은 지 2일째 쪽잎 및 쪽대만의 우려난 초록 색소물이 보일 때 쪽대를 건져내고 쪽대는 잿물을 만들기 위해 말린다.

⑤ 마지막 쪽잎 부스러기를 채로 들어내고 남은 맑은 청록색 300 l 쪽물에 약 2kg의 석회(石灰)를 넣거나 전통법으로는 항아리 200 l 양에 석회 3홉을 바가지에 담아 쪽물을 넣어 독에 붓고 헛대나 당그레로 힘차게

쪽대 들어내기.



쪽대 말리기.



젓기 시작하는데 액표면의 거품색은 노랑에서 회색-갈색-보라-연두-녹
색-초록-청록색-파랑-남색-감청색으로 꽃거품의 변화가 진행된다.

⑥ 횃대(고무래)를 치면 처음에는 좁쌀만큼의 거품이 일어난다 나중에



꼭대를 들어내고 나머지를 체로 건져내기.



마지막 쪽잎 부스러기를 체로 들어낸다.



쪽잎을 모두 건져낸 후 우려낸 초록 색소물.



쪽 색소물을
석회에 부은
다음 독에 넣
는다.



석회를 넣고
당그레질을 하
면 연두 거품
과 푸른색 거
품이 생긴다.



쪽잎 속에 붉
은 색소가 포
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녹색과 남색으로 거품이 생긴다.

는 대추알 크기의 거품이 형성되는데 이때 꽃거품이라 하고 색이 깨어난다고 한다. 횃대나 당그레로 2시간 정도 치면 거품이 사라지면서 투명해지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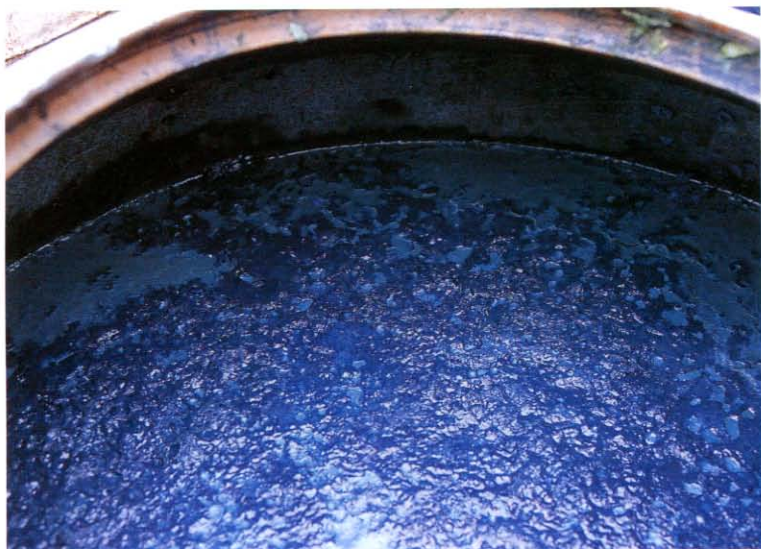
⑦ 항아리 안의 물은 연한 갈색으로 물의 변화가 시작되고 색소는 석회와 같이 남색의 쪽 물로 침전된다. 쪽 물의 색소가 석회와 함께 침전(沈澱)되기 때문이다.

⑧ 꽃 거품이 일어난지 30분 정도가 되면 쪽 색소가 가라앉는다.

⑨ 침전쪽이 가라앉고 나면 윗물은 갈색액이 되면서 얼굴이나 당그레가 비친다.

⑩ 먼저 윗물을 바가지로 퍼내고 이 물은 알카리성 석회성분을 띠고 있어 쪽밭의 천연 비료로 사용한다.

⑪ 항아리를 기울여 윗물을 따라내면 파란 남빛이 도는 침전된 쪽색



계속 당그레질을 하면 꽃거품이 일고 색은 감청색이 된다.



다시 거품이 사라지기 시작한다.



말갱게 거품이 사라지고 정관채 보유자의 얼굴이 비친다.

소(침전쪽)가 항아리 안의 1/10정도 남는다.

⑫ 항아리를 기울여 바닥에 침전된 침전쪽(쪽앙금)을 퍼낸다.

⑬ 미리 준비해둔 널베기 위에 삼발을 놓고 시루를 놓고 그 위에 삼베나 무명천을 깔고 침전물을 다루어 붓고 물기를 빼준다.

⑭ 항아리 밑에 남은 침전 물은 형끓을 깔고 시루에 넣어 고체 상태가 되도록 3일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⑮ 시원한 응달에 보관하거나 물기를 완전히 뺀 후 보관해두었다가 언제든지 물들일 수가 있다.

⑯ 이것을 모두 합하면 50말 정도의 색소 농축액이 되고 이것을 염료로 만든다.

⑰ 일수(두진)를 한 후 2수(이진)를 하여 새로 나온 것으로 수확을 한 색소도 20말 정도여서 모두 합하면 1년에 1,000평에서 쪽침전물을 50말 정도 생산한다. 그 해 농사가 잘되면



잠시 두어 침전물이 가라앉으면 처음에는 바가지로 물을 떠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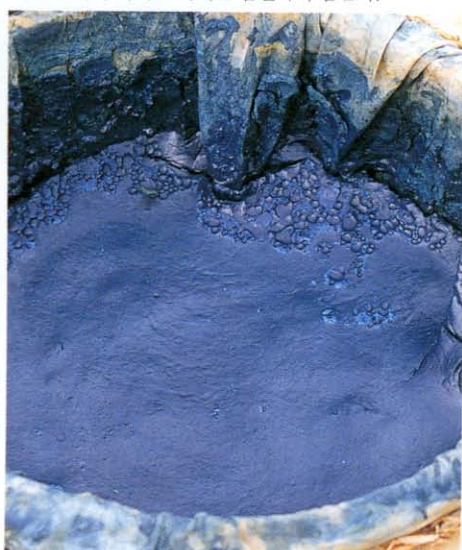
쪽물을 따르고 난 후 침전쪽을 독에서 떠낸다

쪽앙금을 붓는 모습.



침전쪽을 따라 붓기.

침전쪽을 시루에 천을 깔고 다시 앉혀 3일이 지나면 아래는 물기가 빠지고 위에는 침전쪽이 남는다.



3수(삼전)도 가능하다.

⑱ 침전물만 남기고 상등액은 pH 10.5정도의 알칼리성 석회 성분이라 쪽 밭에 뿌려 주면 병충해를 방지하고 물론 식물이 잘 자라는데 좋은 영향을 주는 환경 친화적인 천연 염료가 되는 반면에 화학염료의 폐수는 강한 독성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키는 큰 문제점이 있다.



침전쪽 저장하기.

4) 싻골 쪽물(꽃물) 짓기와 염색

꽃물 만들기란 쪽을 발효시켜 염료로 만든 것이라고 했으며 그 방법을 요약하면, 싻물과 저장해둔 침전물을 혼합하여 보통 7일~10일동안 발효 과정을 거치면 침전물의 색소와 석회가 분리되며 꽃거품이 피어난다. 꽃물이 형성되는 것으로 염료 물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

이 꽃물이란 완성된 최고의 쪽물 염료를 말하며 그 꽃물은 전통 발효 과정으로 만들어진다.

벚짚이나 콩 대, 쪽 대, 메밀 대를 태워서 잿물(pH 10.5~11)을 만들어 잿물 10말에 쪽 침전물 1~2말의 비율로 쪽 침전(沈澱)물을 잘 주물러서



저장해둔 침전쪽을 손으로 훑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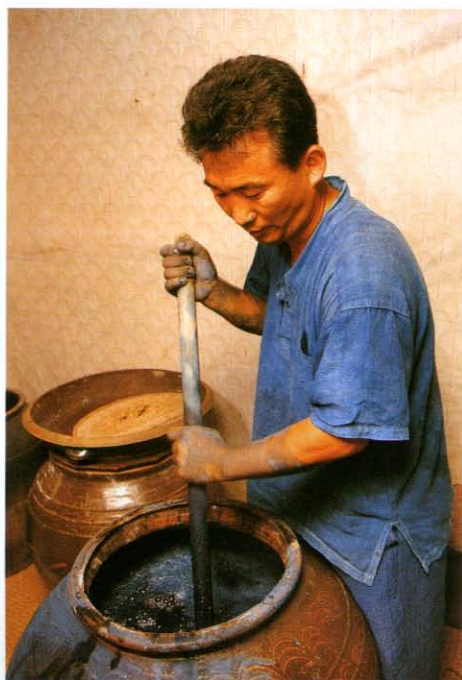
침전쪽(쪽앙금)을 잿물에 넣는다.

항아리에 넣고 당그레로 저어준다. 빠르게 발효를 하려면 탁주초나 단 술을 넣어 온도 30~35도를 유지하며 쪽물 색소를 분리할 때처럼 힘차 게 저으면 대추알 크기의 꽃거품이 생긴다. 매일 3~4회씩 젓는다. 이때 보온이 되도록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로 싸서 보관하고 부정기 있는 사람은 접근(接近)을 금하는 주술적인 의식도 있다. 이렇게 매일 한 두 번 저으면서 물발이 생길 때까지 계속한다.

빠르면 3일 후부터 30여 일 까지 보통 꽃물이 형성되는데 보통 7~15 일 이내에 쪽물 염료(染料)로써 완성(完成)된다. 이것을 물발이 섰다고 한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1년 이상이 경과해도 꽃물이 형성되지 않는다.



쪽물을 빨리 발효시키기 위해 단술을 넣는다.



쪽물짓기를 위해 하루 한 번씩 고무래로 돌려준다.

물발이란 대추알 크기의 꽃거품이 생기고 당그레로 저을 때 가느다란 실타래 모양으로 저을 때마다 맺었다 풀리고 하는 반복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 보랏빛 거품이 일고 석회는 노랑갈색을 띠고 남색



따뜻한 온돌방에서 쪽물을 담고 그 위에 이불이나 면포로 싸두어 발효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킨다.



쪽물이 발효가 되면 물발이 선다.

띠의 물발이 형성된다. 쪽물 염료가 만들어진 것이다. 전통적인 쪽물 염색 방법은 과학적인 기준이 없어 많은 경험과 느낌으로 이루어지지만 현대 과학으로는 환원과 산화의 과정을 거쳐서 발색되는 전통적 남(藍) 염색이다.

5) 쪽물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⁹⁹⁾

쪽물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는 잿물의 농도가 높을 때(짜다고 표현, PH 11 이상), 잿물의 농도가 낮을 때(싱겁다고 표현, PH 9 이하), 물의 온도(溫度)가 낮을 때, 침전물의 색상이 탁하고 석회 성분이 많을 때 등이 있다.

물이 짭 경우는 석회가 많다는 것으로 약간 잿물을 더해주고 싱거울 때에는 석회를 약간 더 한다. 그래도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술이나 식초를 넣어 농도를 조절한다.

완전히 중화되지 않으면 오래 놓아두어도 옷감에 착색(着色)이 되지 않아 염료로써의 가치가 없다.

6) 옷감의 마전(정련)

옛부터 쪽염색은 나주의 샛골나이라고 불리던 무명을 물들이는 데서 시작하였고 샛골염색과 샛골나이는 같은 지방에서 발달하여 함께 어우러진 전통을 나타내 주는 전통공예이다. 염색할 옷감은 무명을 쓸 경우 이웃동네의 친척인 무형문화재 제28호 샛골나이 무명을 구해 사용한다. 잿물에 옷감을 넣어 삶아 베짖 때 사용했던 호료나 기름때를 빼고 염색

99) 석주선, 문화재 보고서를 재인용

이 고르게 되도록 또 섬유올과 올 사이에 모공을 넓혀줘 염착이 잘되도록 한다. 이 정련과정을 전통적으로 마전이라 한다.



이웃동네 친척인 중요무형문화재 제128호 섯골나이 무명을 구해 사용.



염색하기 전에 천을 정련(마전)한다.

7) 쪽물 들이기와 후처리

이처럼 꽃물이 형성되면 천을 정련하고 옷감을 물에 적시여 처음 쪽물에 옷감의 양쪽 천을 잡아 차례차례 담가 넣고 다시 전체를 들추어 가며 골고루 물이 잘 들도록 하여 착색(着色)시킨다. 이러한 옷감을 물에 적시여 쪽물에 넣어 골고루 들추어서 착색이 되면 건조시키고 하여 1~8회까지 반복하면 진한 쪽색을 얻을 수 있다. 처음 꽃물에 넣으면 연녹색이었다가 공기 중에 퍼면 녹색, 파랑으로 변화해 간다. 물들이는 방법은 구겨지지 않도록 쪽 퍼서 몇 번이고 담갔다가 꺼내는 염색방법 등의 여러 방법이 있는데 방안에서 물들이는 때는 쪽물에 염색할 천을 약 1시간 정도 담구어 두면서 골고루 염색되도록 2~3회 뒤집어서 완전히 염색시킨다. 야외에서 물들이는 경우 널베기에 필요량을 들어내어 염색하는데, 촬영 당일은 실내에서 원하는 색이 어둡게 나와 야외에서 실행하였다. 흰 무명이나 모시를 넣고 물들이는데, 처음에는 연두에서 청록으로 바뀌고 뒤에 쪽물색인 청색으로 산화된다. 원하는 색이 될 때까지 염색하고 꼭 짜서 건조시키고 진하게 물들이고자 할 때는 앞의 염색 방법을 반복한다.

가장 진하게 들이려면 20회까지 반복하지만 보통은 8회 정도로 진하게 물들이진다. 옛문헌에 나타난 색깔 이름은 벽색, 청색, 아청색, 남색, 갈매색, 검푸른색, 반물색, 심청색 등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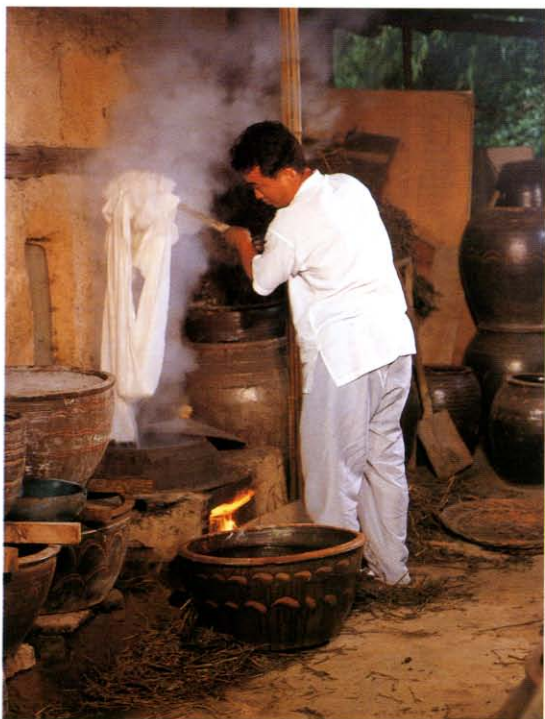
염색이 끝나면 맑은 물에서 수세하고 반복해서 잿물을 완전히 빼서 건조시킨다. 이렇게 염색한 쪽물은 옷이 다 훼손될 때까지 탈색되지 않는다. 빨래를 너는 보유자 정관채와 이희자 모습. 전통적인 방법으로써는 흐르는 강가나 냇가에서 수세하고 잿물을 뺀다. 야외 냇가에서 수세

하고 자갈돌 위에서 말린다. 반복 염색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얼룩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공기에 불규칙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산화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염색이 끝나면 잿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다듬이질하여 보관한다.

쪽 염색은 연한 색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얼룩이 가지 않도록 하는 상품을 최상의 염색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 완성 후 명주나 무명, 면일 경우 다듬이질을 하여 윤기 있는 쪽물천을 만든다. 쪽물을 한 필씩 물들여 연·중·진 등의 다양한 색깔로 물들여진 쪽물천을 만든다.



정련한 후 천을 건져낸다.





물들인 천이 청록으로 산화되고 있다.

(왼쪽 위) 정련한 천을 널베기에 가지고온 쪽물에 물들인다.

(왼쪽 아래) 연두에서 청록으로 변화된다.



다시 두 번째로 담근다.



물들인 것을 짜낸다.

모시를 연색·중색·진색으로 쪽물들여 빨랫줄에 널고 있는 정관채 보유자와 부인 이희자.







쪽물을 들인 후 빨랫줄에 널어 말린다.

강변에서 그간 물들여놓은 쪽천들을 씻어 잿물빼기.





쪽천들을 강물에 수세하기 위해 들고 가고 있다.

쪽천을 흐르는 물에 흔들어 빨기.





강가 자갈돌 위에 펴서 만들기.

다듬이질 하기. 정관채의 보유자의 부인과 장모가 함께 다듬이질을 하고 있다.





쪽물들여 완성된 모시, 삼베, 명주, 무명천들.

쪽물의 연·중·진의 농담색이 나타난 단 천들.



5 나주 쪽염의 전수와 발전

1. 윤병운 보유자의 쪽 염색 전승과 활용

1) 명하쪽의 환경과 생성 배경

나주 큰길에서 그 부락까지 자동차로 가면 60리를 돌아 문평 명하 마을로 들어서면 나주의 특징인 배꽃이 피어 있고 산 속에 복숭아 매화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이 눈에 띄이며 명하마을 입구에 흐르는 냇물은 예부터 물이 맑아 쪽물을 손쉽게 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 눈이 뜨인다.

보유자 윤병운 쪽물장집으로 들어서면 담장 넘어 박태기 나무, 목련, 정원수 등이 눈에 띄이고 집 입구에 쪽밭이 아담하게 자리잡고 있다. 본채 옛기와 두 칸집과 아래채, 옆채 창고 2개소를 지나 골목으로 들어가면 입구쪽밭 2배의 넓은 땅에 쪽밭이 펼쳐져 있어, 뒤에 작은 것까지 합쳐 모두 600평의 쪽밭을 일구고 있다.



민들레



소리쟁이

다시 들어가면 오른쪽에 비닐 하우스가 있는데 그곳엔 고추를 말리고 작년에 구웠던 석회가루를 보관하고 있었다.

보온 건재를 위해 전기를 넣어 놓았다. 옛날에는 온돌방에 넣어 보관 하였으나 최근은 수요자가 많아 현대적 장치를 하여 보온 건조할 수 있도록 장치해 놓았다.

문평 쪽 생성 배경은 1968년 석주선 교수의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에 나타나 있듯이 쪽물 조사시 쪽물 재배지와 장인이 마을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는 특징을 제시하였고 그 밀집되었다고 조사되었던 문평면 송산리 지산 부락, 상하, 명하부락 중 최초롱 할머니의 집은 문평면 송사리 지산부락으로, 함평군 맨 끝에 있는 명하부락에서 멀리 바라다 보이는 부락이라는 것에서, 간격을 두고 떨어져 마을을 중심으로 쪽밭을 일구었음을 알 수 있듯이 윤병운 보유자도 선대를 중심으로 명하마을에서 현재까지 그 쪽물 비법을 전수해 왔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2) 전승 계보와 경력

염색장인 쪽물 중요 무형문화재 115호 윤병운¹⁰⁰⁾은 출생지로는 전남 나주시 문평면 북동리 608 명하마을(061) 336-5557)이며, 거주지는 상동, 아들 4, 딸1, 3대째 가업으로 쪽 염장이 생활을 해왔다.

성장배경은 종가집(태어나서 현재까지 거주), 집 28평과 아래채가 있다. 윤병운은 쪽염을 생업으로 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13세부터 쪽염을 시작하였다. 그가 23세 때 결혼한 나정임은 쪽염 지역 출신으로 쪽 염색을 접할 수 있었으며 윤 보유자는 1974년 일본에서 쪽 종자를 가져와 다시 쪽

100) 전남 나주시 문평면 북동리(명하마을), 80세.



자택에서 윤보유자 내외와 삼남과 사남이 함께했다.

염색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전통 재래 방법을 지키며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건강 상태는 연세가 80세의 노령에 비하면 건강한 편이나 침전남의 제남시에 당그레질을 하다가 아들이 번갈아 바꾸어 가며 행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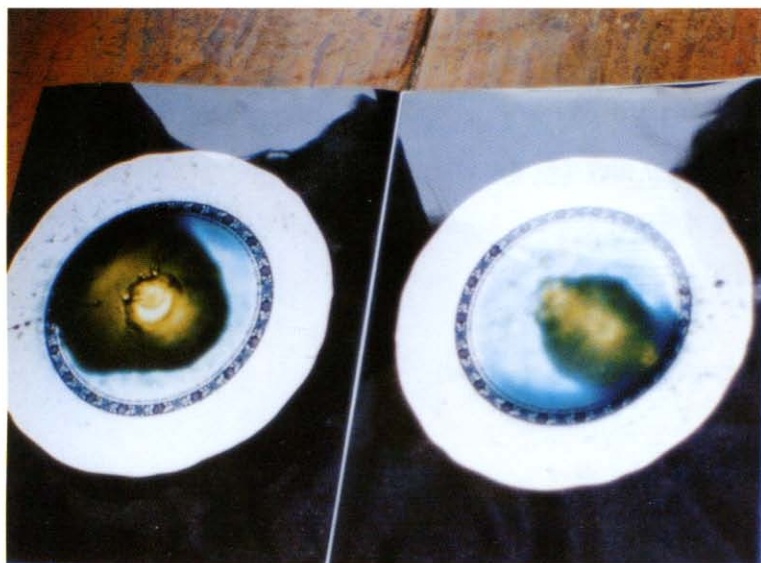
가족 관계는 부인인 나정임씨와 아드님 4분, 따님 1분이며 쪽물일은 쪽물 담기, 잿물 내리기 등은 부인몫으로 되며 가족이 힘을 합쳐 일을 하고 있었다. 그중 장남은 식물 염색한 천으로 생리대를 만들어 생산, 판매 단계에까지 되고 있었다.

전승 계보는 조상대대로 생업인 가업으로 농사와 함께 전승 되어왔다. 전승 계보는 윤치문→윤태홍→윤주식→윤병운 순으로 이어 왔다.

경력으로는 1921년 쪽염을 생업으로 하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1934~1950년 전통식물염색을 생업으로 종사하여, 1950~1974년 6·25 혼란기에 의해 휴업하였다. 1974년 쪽 재배를 시작하여, 1989년 MBC 광주방송 '문화싸롱' 방영, 1990년 MBC 차인태 '출발 새아침' 방영, 1990년 조선일보 '잊혀진 쪽물 염색' 취재, 1991년 KBS '한국의 미' (잃어버린 색을 찾아서) 방영되었다.

1992년 전승공예대전 무명 염색 출품과 1993년 전승공예대전에 모시 염색을 출품하였고, 1994년 '옷과 그들' (김유경 지음)에 참여하였으며, 1994년 전승공예대전에 입선(모시 한복 2점 출품)하였다.

1995년 아름다운 우리의 옷 출품하였고, 1995년 산업인력관리공단 기능 전승자로 선정되었으나 현재는 중요무형문화재 염색장(쪽물장)으로 선정되어 기능 전승자는 취소되었다. 1997년에는 자랑스런 전남인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발효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구별하기 위해 집시로 쪽물을 떠본다. 삼남(윤형대)이 착안했다.

삼남 윤형대가 상업적으로 개발한 생리대



3) 공방의 위치와 규모

전남 나주시 문평면 북동리 608의 본가의 생활터전과 밭, 본채건물 옛 기와 2칸집, 아래채와 옆채, 창고 2개소, 비닐 하우스 1개, 밭 600평을 3개소에 재배되고 있음. 2중 1개소 쪽 밭은 2수 채취, 1개소는 1수 채취한 상태였다.

4) 명하쪽 보유자의 전수와 그 활용

(1) 쪽물의 전수

윤병운 보유자 부부는 쪽물 염색 지역의 가정에서 태어나 일찍이 단절된 쪽염색을 전승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1976년부터 복원에 노력해온 사람이다. 윤병운 보유자는 13세부터 보아왔다고 하며, 부인인 나정임 씨 또한 어머니로부터 쪽염색을 보아왔다고 한다.

이들 부부는 결혼 후 관심있게 쪽 염색 과정을 보아온 듯하며 이들의 고향 나주와 문평지역은 70년대 초부터의 석주선 전문위원의 조사 보고서에서도 이 나주 지역이 가장 늦게까지 염색한 곳이었다. 이 지역의 이불감을 비롯한 옷감, 생활용품감 등 무명과 모시의 쪽빛 염색은 생활 속의 직물색 중 80%쯤 차지하는 색으로 대부분이 무명 쪽빛 이불과 모시 쪽색 치마, 보자기 등이 장 속에 그득하였다. 이것을 보며 생활한 그들은 6·25 동란의 해인 1950년까지도 이 문평 명하 마을에서 쪽염색을 활발히 하였다고 한다(이때만 해도 1자에 5원 정도씩 받고 염색을 해주었다고 함). 그 후 1976년부터 서울에서 쪽씨를 얻어 재배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쪽 농사부터 석회 제조, 쪽 앙금 제조 과정과 물들이기 등을 선조로부

터 이어온 쪽염의 전과정이 이들 부부와 이웃 지역에서 전승하여온 정 관채 모친과 함께 쪽 복원이 되어 호남 지역으로서는 제일 먼저 시작되었다.

조사시에는 남의 침전 과정과 염색 과정에 필요한 기능을 제시하였고 염색된 천과 본인들이 입는 옷가지 2종류를 보여주었으며 물들이는 과정은 10월이 되어야만 한다고 하여 옛날 농경생활에서 쪽 물들이는 시기와 방법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다.

즉 침전남을 만드는 시기는 여름(7·8월)이나 발효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10월이 되어 온돌방에 불을 넣어야 그방에서 따뜻하게 하여 쪽물을 담아놔기 때문에 그 계절에 맞게 행하고 있었다.

(2) 쪽물의 활용

천을 물들여서 집에서 사용하고 주로 주문 생산을 하고 있는데 천을 가지고 오는 것이 대부분인데 1필에 물들여 주는 값이 20~30만원.

그간 본인의 집에서 주문을 하거나 사 가지고 간 인명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데 130명의 인명(人名)이 기록되어 있어 최근 염색이라고 자처하거나 본인이 물들여 옷을 만든다는 한복가 및 패션 디자이너와 공대 교수까지 다양하게 그의 이름도 많이 눈에 띄었다. 각자 서로의 전공영역과 분야의 발전을 위해 천연 염색은 누가 물들였다는 기록을 남겨주어야 함에도 이러한 천연 염색이 누구든 쉽게 할 수 있는 전공처럼 가볍게 취급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1년 쪽 농사 지은 것을 그 다음 익년으로 넘어갈 분량이 남지 않고 매년 소비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쪽염의 발전적 활용

3남 윤형대가 착안한 발효가 되었을 때와 안되었을 때의 구별을 하기 위해 접시에 쪽물을 떠보아 노랑물에서 파랗게 변하는 것을 확인한 후 염색을 함으로써 쪽물을 계량한 발전된 모습이며 쪽이나 자연 염색으로 생리대를 만들어 상업적으로도 활용화하고 있었다.

나주 지역에 피어 있는 야생초 꼭두서니.



2. 정관채 보유자의 쪽 염색 전승과 활용

1) 샛골쪽 환경과 생성 배경

다시면의 정관채 쪽물장의 집으로 찾아 가는 도중에 광활한 나주평야의 한가운데를 가로 질러서 가는 논밭과 쪽밭 가운데 1999년, 대대적인 발굴을 거친 복암리 고분의 96석실 석실분 내에 옹관을 배치한 특이한 무덤 구조로 되어 있는 옛날 백제 계통의 석실분과 영산강 유역의 고유 묘제인 옹관묘가 융합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유적이 있는 고분군이 보인다. 그리고 신촌리 9초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은 현재 국보 제295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정가마을로 들어서면 모든 분이 정가친척으로 쪽밭을 일구고 거둘 때 모두 합심하여 도와주고 있는 옛동네 그대로이다.

특히 같은 다시면의 동당리 청림마을의 노진남은 무명베를 짜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28호로 친척인 셈이다. 예로부터 무명베들을 샛골장(다시장)에 나와서 팔았다. 샛골나이란 샛골에서 짜는 무명베를 일컫는 말이며 동시에 무명베를 짜는 사람을 뜻하기도 한다. 샛골의 무명베는 보름새가 넘는 극상품이 많았는데 이때 쪽물을 이 무명베로 물들여 샛골장에 팔았다. 이 샛골마을에서 예부터 쪽물을 들여 왔다는 근거 중의 하나로 특히 침전쪽(쪽양금)을 새우독에 넣어 팔았다는 샛골장터 할머니의 이야기와 물들이는 방법을 들을 수 있었다. 이렇듯 영산강 주변의 기름진 땅과 홍수시에 대체작물로 심었던 쪽 농사의 흔적이 지금껏 남아 있음을 볼 수 있다. 영산강 다리 근교 하천 뚝에는 유채꽃이 노랗게 피어 있고, 쪽두서니, 땅비싸리, 자운영, 들모시, 오이풀, 돼지풀, 민들레, 소루



영산강 주변의 유채꽃.

나주지방의 특산물인 배 과수원의 배꽃.



쟁이 등의 염재 야생초들이 피어 있어 염색장인을 배출하게 된 환경적 요인이 저절로 수궁이 간다.

정가네 골목에 들어서면 골목 어귀에 나주 특유의 황토들이 눈에 뜨여 광물염색도 할 수 있고 골목으로 들어서는데 탕자나무와 대나무로 담을 이루어 대나무와 탕자염색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다.

집 입구에는 등나무 꽃이 가지런히 흐드러지고 동백나무에서 빨강 토종 동백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다.

왼쪽 입구 창고 밑에는 토종쪽이 계란 모양으로 탐스럽게 자라고 있다. 그 옆에는 앵두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오래된 선인장나무에서 근방 고치닐 동물벌레가 나와 동물염색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도 준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조개, 굴, 떡굴이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을 지나 오른 쪽에는 석회를 구워내는 황토 두더지 가마가 눈에 들어온다.

아름드리 큰 장작과 황토벽돌, 가마 속에는 이미 나무를 깔고 그 위에 조개류 등을 놓아 쌓여서 불꽃을 튀기며 타고 있었다. 하루를 지나 가마 앞을 막는 정관채 장인의 벌겋게 불 앞에서 달아오른 모습이 안쓰럽기까지한 쪽물장의 참 모습을 본 것 같았다.

그 옆에는 역시 쪽밭과 각종 야생초가 피어 있는 자연 그대로의 풍경이 아름다웠다. 가운데는 조상 대대로 부모님에게서 물려 받은 옛 고가(古家)가 문창살 장짓문과 함께 쪽물장이의 기쁨과 애환이 함께 스며 있었다.

2) 전승 계보와 경력

중요 무형문화재 염색장(쪽물장) 115호인 정관채는 출생지로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295번지이고 조상 대대로 이어온 집을 현재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거주지는 나주이며, 성장 배경을 살펴보면 부친(정순홍) 모친(최정림) 사이에 형님, 본인(정관채)이 태어났고 본인과 부인인 이희자 사이에 아들 정찬연이 태어났으며, 셋골 마을은 정가마을로 그 동네가 모두 정씨 친척들로 모두 큰일에 상부상조하고 살아온 염장인이며 정관채 보유자는 전라도 신지식인 1호가 되었다. 그간 은행에 나갔던 부인이 몇 년 전부터 직장을 그만두고 오로지 염색장(쪽물)의 아내답게 쪽물 일듬기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건강상태는 건강하며, 전승계보는 가족이 대를 이어 전수되었고 증조부 정재숙(鄭在淑부), 조부 정기현, 부 정순홍(鄭淳弘), 정관채로 현재까지 이어가고, 또 1915~1950까지 외조모 이소례 할머니에게서 전수받은 동시에 모친 최정림 여사(1994년 작고)에게서 전수받아 현재 남아있는 모시 애기옷을 보관하고 있다. 1977년 1월부터 2002년 현재까지 본인 정관채씨가 염색에 종사하고 있으며 아들 정찬연도 벌써부터 쪽 염색에 관심을 보여 TV “아빠와 함께 해보기”에 출연했다.

경력으로는 증조부(정재숙)로부터 대대로 이어온 쪽장인 가업을 계승받아 이소례(최정림 모친, 1915~1950, 쪽 염색), 최정림(정관채 모친, 1942~1965, 이소례 모친으로부터 전수)을 거쳐 현재(정관채, 1978~현재, 최정림 모친으로부터 전수)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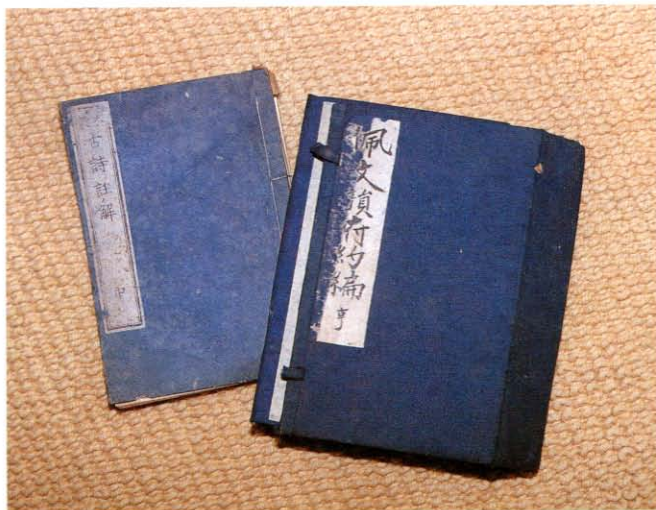
전통 남(藍:쪽) 염색 경력 23년으로, 전국 천연염색 공개 강좌 4회(1997



정관채 보유자의 집이며 증조부
대부터 모친 최정림, 본인까지 이
곳에서 쪽물들이기의 맥을 이어
왔다.



정관채 보유자의 모친 최정림 씨
가 평소에 만들어 입혔던 쪽 모시
애기옷(유물).



쪽물 서첩(유물, 정관채 소장)

쪽물 철릭(유물, 정관채 소장)



~2002년 한국전통 쪽염색, 강사), 서울대학교 등 각 대학 특강 47회, 천연 염색 전시회 8회(세계화랑 등), 천연염색 작품전시 및 시연회(1997년 한국 전통 공예 미술관), 제1회 경주 세계 문화엑스포 작품전시 및 시연회(1998년 경주 문화 엑스포) 등을 가졌다.

또한 한국 전통 고유 기술(천연 염색) 전문 평가위원(1996년 통상산업부 장관), 한국 전통 고유 기술(천연 염색 부문) 프로젝트 참여(1996년 통상산업부, 전라남도 자연 염색 특화 사업에 참여했으며(2000~2003년 전라남도), 제22회 전승공예대전 입선(1997 천연 염색), 제24회 전승공예대전 장려상(1999, 천연 염색), 제24회 전승공예대전 입선(1999, 천연 염색), 1998. 07. 01 자랑스런 전남 도민의 상 수상, 1998. 11. 30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 1999. 05. 15 교육부 장관상 수상, 1999년 한국 신지식인으로 선정, 1999년도 광주, 전남 교육계를 빛낸 10인에 선정(미래교육 신문사), 2002년까지 사단법인 한얼전통천연염색전 출품, 2000년 10월 3일 개천예술제 초빙 쪽시연, 2002년 부산시립박물관 쪽 전시 및 시연, 2002년 나주 문화원 체험의 장 시연, 2002년 나주문화예술회관 지역 특산 쪽염전시, '새 천년의 빛' MBC TV등, 언론에도 다수 소개되었다.

현재 (사)아시아 민족 조형문화 연구소 재단이사, (사)한얼 전통 천연 염색 연구협회 재단이사, 셋골 쪽(藍)염색 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하고 있고, 전통 쪽술, 쪽떡, 쪽국수 등 전통식품을 개발·발표(나주 목사내에)하였다.

3) 공방의 위치와 규모

전남 나주시 다시면 가흥리 295번지 350평, 기와고가 한채(증조부 때부

터 살았던 가옥), 창고1채, 발효실(전통 방법) 1동, 쪽물 염색의 대량 생산식 염색실 1채, 현대 개량식으로 다량 생산을 위한 쪽염시설을 2000년 시설 하여 현재까지 많은 연수자들에게 전수를 시키고 있다.

4) 셋골 쪽물보유자의 전수와 그 활용

(1) 쪽물의 전수

정관채 장인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쪽 장인으로 계속 일하면서 한국전 통문화학교 초빙 교수와 나주시 영산포중학교 미술 교사로 재직중이다. 정관채 보유자의 남빛으로 온통 물든 손을 보고 학생이 전하는 말 속에 “선생님, 오늘도 쪽물 들이셨군요” 하는 말과 함께 또 하나 유명한 학교에서의 명물 이야기는 손수 아이들 머리를 깎아주는 일이다.

학교에서의 봉사활동과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쪽공방으로 돌아와 토요일, 일요일, 방학때면 늘상 공방에서 살고 있는 염장이의 생활로 돌아와 있다. 촬영일에도 나주문화원의 주최로 어린이의 체험행사인 쪽물 들이기로 와글거렸던 어린이들의 밝은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나주셋골의 쪽 발상지의 역사를 보면 나주 셋골의 쪽은 그 주변의 지리적 상황과 천혜의 조건이 완벽히 구비된 쪽재배지가 아닐 수 없다. 광주를 비롯 담양, 장성, 화순군 등 영산강을 이루는 물줄기와 바닷물이 합류했던 나주는 여름 장마철이면 홍수의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지역이다. 그런 연유로 홍수대체 식물로 재배되었던 것이 바로 이 쪽이다. 쪽재배지로 한창 성황했던 1900년대 초경에는 영산포 선착장에 전국은 물론 일본, 멀리 중국에서까지 쪽 염료를 구입하러 오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고 한다. 조그만 젓갈옹기에 담긴 고체상태의 쪽색소(쪽앙금)가 쌀 한 가

마니와 맞바꿀 만큼 고가에 매매가 이루어졌다. 광복전까지만 해도 혼수품으로 쪽물로 들인 아청이불을 꼭 해 가지고 가야 할 만큼 인기가 좋아 논이나 밭작물 대신 쪽 풀을 심는 농가가 늘어나 이를 국가에서 금지했을 만큼 성황이었다고 한다. 현재도 나주시장에서 쪽을 했던 이와 쪽을 보았다는 사람이 많이 보이는 쪽 고장에서 대대로 가업을 이어 왔던 정관채씨의 쪽 침전 과정의 기량을 현대의 PH나 온도계 없이 측석에서 침전쪽(쪽 양금)과정, 발효과정, 본인 스스로 만든 황토 가마에서 구워서 만들고 있는 양질의 석회 만들기과 쪽물염색의 기능을 갖고 있다. 또 전통색을 구현하기 위해 찾았던 유물인 철릭과 신발, 쪽 책표지, 저고리, 쪽이불 등의 수집과정과 더불어 쪽물염색의 기량이 하나도 빠짐없이 나타내 보이는 우수한 장인이었다.

(2) 쪽물의 활용

재배면적은 5000평(염료 4톤 생산) 정도로 넓게 재배하고 있는 곳으로 본인이 직접 재배하는 것은 2500평 정도이며 그 이외 위탁재배로 5만평을 재배하고 있다. 공방마당에도 쪽종류가 2가지로 토종쪽엔 붉은 꽃이 피고 있었다.

염료(쪽 침전물) 판매는 1,500kg으로 생산기술연구원, 대구염색공단이 나 개인 등에 판매되고, 대학교 및 연구 기관에 무료제공으로 200kg 정도 하고 있다.

주문염색은 모시 80필, 삼베 30필, 면 50필 200yd, 실크 150yd 정도를 하고 있다. 모시 1필을 판매할 경우 100만원 정도로 판매하고 천을 가져갈 경우 천에 따라 40~100만 원에 물들여 주고 있다. 그러나 공익적인 행사나 초청 강연시에는 재료원가의 경비만 받을 뿐 초청 강사료를 그



나주 문화원의 전통체험교실의 한 행사로 정관채 보유자 공방에서 어린이들이 체험하고 있다.



쪽물에 글씨를 발염·발색시켜 글씨 병풍을 제작.



나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특산 쪽염 전시를 하고 있다.

이상 줄 경우 반려하기도 하고 공익적인 행사시에 필요할 경우 봉사의 시연도 많이 해주고 있다.

마침 촬영일 나주문화원의 전통체험교실의 한 행사로 정관채 보유자 공방에서 체험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만났다. 그리고 나주문화예술관에서 주최한 지역특산 쪽염전시를 하고 있는 작품전과 서울시립미술관 초대전 및 일본 초대전, (사)한얼전통천연염색연구협회전 등 다수의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으며 쪽작품 중 쪽물을 발색시켜 만든 쪽병풍이 새롭다.

쪽시연도 국립민속박물관, 석주선 민속박물관, 부산 시립박물관, 제주도 박물관, 명지대 대학원 전통공예과 특강, 부여 전통공예학교에도 강의를 나가고 있다.

(3) 전통 쪽염 방법의 발전적 계승

전통 염색을 하면서도 정가 마을의 유희 농토 활용 목적으로 시도한 대량방식으로 쪽을 침적할 수 있도록 개량하여 5000톤의 쪽을 한번에 침적시켜 녹색쪽 색소액을 받아 침전 쪽물을 만들 수 있도록 시설해 놓았다.

그리고 쪽물 발효도 황토에 항아리를 묻어 겨울철이나 언제든지 염색할 수 있도록 계량 발전시켜 많은 체험 교실 및 시연 희망자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황토흙 속에 항아리를 묻어 항시 물들일 수 있도록 했다.



전통을 하면서도 마을의 유희 농토 활용 목적으로 시도한 대량생산방식의 쪽 침적 광경.



대량 생산 방식의 녹색 쪽색소액 상태.

3. 나주의 문화 환경과 쪽 발전의 지역적 조건

1) 나주의 문화 환경

(1) 영산강

호남정맥의 서편을 따라 흘러 내리고 있는 강으로, 영산강(榮山江)의 명칭은 여러 시대의 기록을 통해 수많은 이름이 통용되어 왔다.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보면 나주동쪽에 흐르는 강을 광탄강(康灘江)이라 했고, 영산포 부근에서는 남포강(南浦江), 금강(錦江), 목포강(木浦江)이라 했으며, 강폭이 넓어져 양양한 흐름을 보여주는 동강면에서는 사호강(沙湖江), 더 아래로 내려가 심하게 곡류하는 곳에 이르면 곡강(曲江)이라 불렀다.

오늘날과 같이 영산강이라는 이름은 영산포의 형성과 관계가 깊다. 고려말 왜국의 노략질을 피해 흑산도 사람들이 나주 남쪽 남포강가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이곳을 영산현(永山縣)이라 했다. 영산현은 고려 공민왕 12년에 영산군으로 승격하였으나 조선시대 초 행정구역 통폐합 때 나주목에 폐합되었다.

이후 영산조창이 설치되어 호남 17개 고을의 세곡이 모여들어 창성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세곡이 중앙인 한양에 보냈으니 가장 중요한 국가 시설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이영산광 앞을 흐르는 강을 영산강 또는 영강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보인다고 나주시 문화원 기록¹⁰¹⁾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외 정가마을과 얹힌 전설에 의해서도 영산강이라 부르게

101) 나주시문화원 : 영산강 유역의 중심나주(역사와 문화이야기), 2001.

102) 나주시 문화원 : 前掲書, p. 121.

된 연유도 찾아 볼 수 있다.¹⁰²⁾ 촬영시 영산강 주변에 유채꽃이 광활하게 활짝 피어 있었다.

또한 나주평양의 대부분은 영산강 범람원이다. 2~3년에 한 번씩 범람하는 영산강은 그로 인한 피해도 많았지만 물이 가져오는 퇴적물로 다시 풍요로워지고 새로운 땅모양을 만들어 낸다. 수많은 냇강에서 흘러드는 물과 양암부근의 병목현상은 곧바로 영산포 새끼내들의 홍수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서 대체작물과 쪽농사로 그들의 삶을 지혜롭게 이겨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나주의 상징 금성관

19세기 나주목과 의향나주의 상징 금성관은 나주목의 객사로 전국 최대의 규모(97평)를 가진 건물이다. 이 곳은 매월 초 하루와 보름에 중앙



영산강 포구의 등대와 맞은편의 유채꽃밭.

을 향해 배례하는 곳이며 또한 국난극복을 위해 나주유림들이 논의하는 장소였다. 나주목 이외에 훗날 쪽물 교류의 해상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3) 나주인의 고향 : 금성산

금성산은 나주의 진산(鎭山)으로 고려시대 이후 국가에서 향, 축, 폐백을 보내 제사를 지내던 영산(靈山)으로 금성산신을 모시던 신당이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5개가 있었던 곳이다.

(4) 영산강의 절경 : 지석강

영산강의 세 줄기 상류 가운데 가장 맑은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지석강이다. 쪽빛처럼 푸르고 맑아 강 안쪽 마을이 “물돌”이라 불릴 정도다.

(5) 영산강의 절경인 정자교가 있는데 정자교 유원지에 가면 세 가지의 시원함이 있다. 귀에 들려오는 물소리의 시원함, 바람의 시원함, 눈에 비치는 풍경의 시원함이 그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라 일컫고 있다.

(6) 영산강의 상류댐 나주호와 나주평야가 유명한데 나주호는 영산강 상류의 4개 댐 가운데 가장 넓은 인공 호수로 나주호와 다도면의 많은 사찰, 그리고 가을이면 단풍이 아름다워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고 나주평야는 우리나라의 곡창지대인 김해, 김제, 만경의 호남평야 등과 함께 곡창지대로서 유명하고 또한 대부분 이 영산강의 범람원이다.

이 외 절경인 앙암, 석관정 나루, 내류 하천이 있는 등대, 완사천 궁삼면토 지회 수투쟁, 웅관고분시대의 유물과 유적, 웅관가마터 발굴, 나주에서 최초로 발굴된 구석기 유적 및 청동기 시대 주거지, 나주향교, 임란의 병장, 김천일 선생, 금성산 다보사, 사찰인 불회사, 심향사의 아미타여래좌상, 죽림사 세존캐불탱화 등 유물이 많은 지역이다. 이러한 문화환경과 전통 공예가들의 출현은 당연히 느낄 만큼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쪽재배와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다.

2) 쪽(남:藍) 발전의 지역적 조건

남(藍)은 전국적으로 재배가 가능하고 특히 고온 다습한 나주 지역은 쪽풀 지배에 좋은 조건으로 염색방법이 다른 지역의 염색방법이 가장 전통의 쪽색을 만들 수 있는 장인들이 많다. 또한 재배방법, 염료추출, 쪽 염색작품의 상품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나주 섯골의 쪽(남:藍) 염색과 문평 명하 쪽(남) 염색이 발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나주는 쪽 염색의 역사와 지리적 조건이 특히 좋은 풍토를 보유하고 있다.

(1) 호남 평야의 기름진 토양(土壤)과 남부 지방의 고온 다습한 온도가 적당하고 일조량(日照量)이 충분히 튼튼하고 충실한 쪽을 재배하는 데 기후조건이 알맞다.

(2) 조개류 등 매염재가 많다.

영산강 하류는 바다를 끼고 있어 지천에 매염재로 사용되는 굴껍질과

조개가루를 쉽게 얻을 수 있다. 강가에 널려있는 굴이나 조개껍질을 무안군 몽탄면 몽강리를 중심으로 영산강을 따라 옹기를 만들었던 가마가 많이 있어 쉽게 질 좋은 조개가루를 얻을 수 있었다.

(3) 영산강(榮山江)은 굽이 굽이가 많아 지형적으로 홍수의 피해가 심했다.

자주 범람했던 영산강의 홍수 피해로 채소나 콩등 작물이 수확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습지에서 잘 자라는 남(藍)은 홍수의 대체작물로 재배되었다.

(4) 육상과 해상 운송이 편리한 조건이다.

특히 나주 영산포는 사통팔달(四通八達)의 교통의 중심지요 해상 운송이 중요한 상업도시로 생산과 남(藍) 염료 시장의 중심이 되었고 지금도 선착장의 등대는 활성화되었던 그 시대를 말하고 있다.

(5) 집단적으로 쪽물을 많이 생산했다.

남(藍) 염색조건이 좋아 1945년 해방이후 셋골 마을을 중심으로 가장 집단적 생산지가 되었다.

(6) 기능보유자가 많다.

조상으로부터 전수받아 가업으로 이어짐에 따라 쪽 생산지가 되었고 윤병운 보유자와 정관채 보유자 등 많은 기능보유자가 있다.

6 국가적 지원과 향후 과제

1. 국가적 지원

이처럼 천연쫄(남.天然藍)은 조상대대로 이어온 민족의 감성의 역사와 광대한 재배지의 우수한 환경적 농업기술을 필요로 하여 전수되어 왔다. 또한 중노동도 견뎌야 하는 힘든 제작과정의 인내를 요구하기도 한다. 현재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대신에 전승 후계자가 되어도 경제적으로 혜택이 없고 노동에 대한 가치가 환원되지 않아 생산량이 격감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특수한 희소가치가 인정되는 고급 공예품에 한정해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그렇게 소량 한정적 생산 때문에 지금은 귀중품이 되어 상품의 대중화가 곤란하고, 계약재배 등의 생산방법을 이용한 유통 구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제 나주시에 역사적 근거와 여러 이점이 있는 연유로 인해 각기 특징있는 윤병운의 문평명하쪽과 정관채의 나주 새골쪽으로 염색장(쪽물장)인 중요무형문화재 115호로 지정 된 후, 올해 2002년도 사업으로 염색장인들의 쪽물을 중심으로 지역에 나는 염재를 이용한, 천연 염색 단지설립계획하에, 체험의 장, 생산의 장, 관광공예품의 판매장 등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 계획이 추진되면 두 염색장(쪽물장)인을 중심으로 지역과 전국관련대학의 연구자들과 염색협회 회원들과의 교류와 문화 상품 판매도 활성화되리라 예측된다.

2. 향후 과제

이상의 침전쪽 방법 이외에 고문헌에 기록된 쪽염의 방법은 침전염색 이외에 앞서 기술한 논문¹⁰³⁾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염색법이 규합총서, 임원경제지, 산림경제 등과 기능보유자들의 상담, 구전을 통해 고찰연구하여 발표한 다음의 방법이 기술되어 있는 내용으로 다양한 지방마다의 특징있는 전래된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103) 김지희, 앞의 글.

104) 쪽의 생염염 : 이 염색의 색채는 옥색(玉色), 남(藍)이나 취남(翠藍)으로 생염염색의 연, 중, 농 등으로 색이 연하되 약간의 연두나 옥빛을 띤 연한 비취색을 나타내는 색이다.(『규합총서』)

105) 남의 침출액(浸出液)의 잿물염색은 석회가루를 쓰지 않는 특징을 규합총서에는 반청(靛靑) 및 반물이라 기록되고 있는 염법이다. 반청색은 쪽잎을 24시간 담귀 두었다 꺼내어 쓰기 때문에 3일 정도이상 담귀 놓는 아청(鴉靑), 또 잿물을 쓰는 침전염 보다는 투명하고 맑은 색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반물은 석회를 쓰지 않고 잿물만 넣어 염색한 것으로 농색인 경우 25회부터 50회에 이르기까지 수회 반복하여 얻을 수 있는 진하고 고운 반물을 일컫는다.(『규합총서』)

1) 쪽의 생염염색¹⁰⁴⁾ 2) 쪽잎의 침출액과 잣물과의 염색¹⁰⁵⁾ 3) 침전쪽(남)염색¹⁰⁶⁾, 4) 남의 복합염¹⁰⁷⁾이 있는데 그 속에 (1) 쪽(남)을 가열시킨 숙남(익은쪽)과 생남(생쪽)의 복합염¹⁰⁸⁾, (2) 쪽(남)의 가열 숙남과 괴화와의 복합염색¹⁰⁹⁾, (3) 침전쪽(남)과 생쪽(생남)의 복합염¹¹⁰⁾의 방법이 있다.

이 중 가열염색은 인도에서 행하고 있는 가열염색이 우리나라에도 전래되어 있어 그 내용만 자세히 제시한다.

쪽을 담는 방법의 하나로 산림경제지에서 가마솥에 삶아 생쪽과 복합하는 방법의 '쪽의 가열염색'과 '쪽의 복합염'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106) 남의 침전쪽(浸沈藍) : 염색 방법은 침전남염(沈沈藍染)이라고 하고 또 니남(泥藍) 염색이라고 한다. 이 염색 방법의 석회량은 쪽물 10에 석회 1의 비레나 쪽물 7에 석회3 등 석회의 성분에 따라 맞추어 넣어 물 당그레질을 하면서 거품을 낸다. 그후 쪽물은 석회가루와 함께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이 생기는데, 이 상등액은 제거하고 남은 가라앉은 침전쪽(침전남 혹은 쪽앙금)에 잣물을 부어 발효시켜 염색하는 방법이다.([『임원경제지』])

107) 쪽을 가열시킨 숙남과 생남과의 복합염 : 우리나라 염색은 복합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남(쪽)과 복합한 염색이 가장 많다. 복합염일 경우 너무 진하거나 알카리가 많을 경우 비단에 물들이기가 마땅치 않아 가열 추출한 남액에 복합염을 함으로써 원하는 색을 얻을 수 있다.([『규합총서』])

108) 쪽의 가열염색과 타염재와의 복합염 : 7월에 쪽을 베어 쪽 한 짐에 물 한 지개, 잎사귀와 줄기를 잘게 썰어 가마솥에다 함께 삶아 여러번 끓여서 찌꺼기가 없어지도록 한다. 그 즙을 항아리에 담은 비율을 익은 쪽(숙남) 세장(3倂)에 생쪽 한장(1倂)으로 하였다가 잎사귀를 마반(가는 돌) 위에 건져 놓고 손으로 세 차례 짤 비비고 익은 즙을 붓고 걸러 서로 혼합되게 하여 정결한 항아리에 담는다.([『산림경제』])

109) 침전쪽과 생쪽(생남)의 복합염 : 쪽잎을 끓여서 그 염액으로 1차 염색 후 괴화염색으로 2차 물드리는 복합염색을 하면 규합총서에는 초록을, 천공개물에는 황벽으로 1차 염색한 후 2차로 가열하여 달인 쪽물로 염색하면 두록(豆綠)이나 초두록(草豆綠)을 얻는다고 하였다.([『규합총서』]) 기록은 괴화와 쪽으로 초록을 염색할 때 사용한 숙랍(熟藍) 방법으로 "반은 가마에 물 붓고 쪽대 켜 진하게 고아 식은 후 열음을 많이 채워 둔다.([『규합총서』, 『천공개물』])

110) 이 방법도 남색은 묵혀두었던 침전남과 생남을 넣어 복합하는 방법이기에는 검은 빛이 많은 흑색이나 청현색(靑玄色)이 된다.([『산림경제』와 기능 보유자의 구전])

“7월에 쪽을 베어, 쪽 한 짐에 물 한 지게를 붓는데 잎사귀와 줄기를 잘게 잘라 가마에다 함께 삶아 여러 번 끓여서 찌꺼기가 없어지게 한다. 그 즙(汁)을 항아리에 담는 비율을, 익은 쪽 세 정(停, 양의 단위)에 생 쪽 한 정으로 하엿다가, 잎사귀를 마반(磨盤) 위에 건져 놓고 손으로 세 차례 짤뭇 비비고, 익은 즙을 붓고서 걸러 서로 혼합되게 하여 정결한 항아리에 담는다. 속방(俗方)에는 “색 쪽즙 2할에다 익은 쪽즙 1할을 섞어서 염색해도 오히려 전부 생 쪽으로 한 것만 못하다. 쪽즙은 흐려지기 쉬운데 흐려버리면 빛깔이 거칠어지기 때문에 마반(磨盤)에다 얼음을 장치하고 가는 대로 즉시 염색하는 것이 좋다.” 했다. 쪽 뿌리는 그대로 두고 꽃이 피어 열매 맺기를 기다리며, 8월에 거두어 두었다가 봄에 심는다.”¹¹¹⁾

위의 다양한 방법은 상기의 각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방마다의 특색있는 쪽물 기능 보유자를 도·시 단위에서 발굴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111) 홍만선, 『산림경제』의 「신은지」에서

【참고 문헌】

원전 · 영인본

『高麗圖經』, 亞物亞文化社, 卷20, 卷21.

『高麗史』, 조선조 세종, 中卷, 연대동방학연구소, 1955.

『高麗史節要』, 卷 1.

『攷事新書』, 중국문헌, 卷之十農圃門 上 種藍.

『農政全書』, 중국문헌, 卷 3, 草類의 재배법.

『本草綱目』, 上冊, 人民衛生出版社.

『사시찬요』, 『山林經濟志』에 수록된 중국 문헌.

『三國三國志』, 卷 13, 卷 97.

『三國史記』, 卷 第三十三 雜志第二 색복(色服)

『三國遺事』, 卷 4, 卷 39, 卷 40, 잡지 직관 乙酉文化史, 1976.

『隨書』, 제81 · 列傳 제46.

『신은지』, 『山林經濟』에 수록된 중국 문헌.

『朝鮮王朝實錄』

『周書』, 卷 49

『閑中錄』

『海東農書』, 중국문헌, 卷 3, 草類의 재배법.

『後漢書』, 卷 15, 卷 105.

憑虛閣李氏, 『閨閣叢書』, 寶晉齋, 1975.

徐有渠, 『林園經濟志, 展工志』, 保景文化社, 1983.

宋應星, 『天工開物』, 明鍾廣言注釋, 中華書局出, 1978.

延喜式, 800년대 日本 平安朝初期의 官選法文. 朝廷年中儀式, 百官臨時

作法, 諸國의 定例 등을 상기시킨 古典.

英祖 28年, 『尙方定例』, 1752.

李圭景, 『五州衍文長箋散稿』.

李肯翊, 『燃藜室記述』.

李時珍, 『本草綱目』, 高文社, 1973.

李時珍 原著, 新註校定『國譯 本草綱目』 제3책, 杏林出版社 藏版, 1979.

崔世珍, 『訓蒙字會』

韓致潤, 『海東繹史』, 조선 영조 71권 20중, 권18, 권20.

許浚, 原本『東醫寶鑑』, 南山堂, 1969.

洪萬選, 『山林經濟』, 숙종대(18세기).

黃喜, 太宗實錄, 卷一十六年七月十面.

저술 · 논문 · 보고서

국립대구박물관, 『한국전통복식 2천년』, 2002.

김광언, 『한국의 농기구』, 문화재관리국, 1969.

金英淑, 『韓國服飾資料選覽』

김영자, 『복식미학의 이해』, 경춘사, 1998.

金鍾太, 『中國繪畫史』, 一志社, 1977.

金芝希, 『樂學軌範』, 『服飾과 儀物의 색채』, 國立國樂院, 國樂院論文集
第3輯, 2001.

金芝希, 『染料植物栽培 및 染織物 製作에 關한 研究』, 92교육부 지역개
발지원금, 1993.

金芝希, 『韓國傳統織物染色』, 대구광역시 문예진흥기금, 영남식물염색
보존회, 1992.

- 김지희 · 박성실 · 이양섭, 『문화재청 조사보고서』, 2000.
- 나주시문화원, 『영산강 유역의 중심나주』, 역사와 문화이야기, 2001.
- 渡邊素舟, 『中國古代文樣史』, 雄山閣.
- 문교부편, 『식물도감』, 三和出版社, 1974.
- 閔吉子, 『우리나라 고대직물연구』, 國民大 論文集, 17, 1980.
- 山崎青樹, 『草木染技法 全書 I』, 『薩染瀟浸染基本』 美術出版社, 1997.
- 石宙善, 『無形文化財 調査報告書』, 第48號 1968.
- 石宙善, 『韓國服飾 研究』, 寶晉齋, 1971.
- 芮庸海, 『人間文化財 無形文化財 調査報告書』, 문화재관리국, 1973.
- 柳喜卿, 『韓國服飾史 研究』,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77.
- 유희경, 김문자, 『한국복식문화사』, 교문사, 1998.
- 윤영숙, 『植物染色에 관한 現況研究』,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
과정, 1991년.
- 李能和, 『朝鮮女俗考』.
- 李丙濤, 『韓國古代史研究』, 傳英社, 1976.
- 李英珠, 『韓國古代染織文化에 대한 고찰』 『홍익미술』, 10호, 1989.
- 李濟, 『섬유의 시초 및 역사』.
- 전은주, 『우리나라 전통복식의 계층별 착용색과 색명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 정관채, 『한국 전통남염의 현대적 이용방법』,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0.
- 정명호, 『쪽물조사보고서』, 전 동국대 교수, 1990.
- 정종미, 『우리 그림의 색과 칠』, 학고재, 2001.
- 조선총독부 증추원, 『고려시대 풍속관계자료 제요』, 1945.

趙孝順, 『朝國服飾風俗史研究』, 一志社, 1988.

中國, 紡織大學(現 同和大學), 纖維博物館 현지 조사 2002. 1. 14.

최재석, 『正倉院 소장품과 統一新羅』, 일지사, 1996.

『韓國文化史大系』, 卷 3,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68.

Encyclopedia Britannica, Vo. 22. Dyeing.

글 · 김지희

대구가톨릭대학교수, 문화재위원

『날염 디자인』(공저)

『한국 전통 천연염색 공예』(공저)

사진 · 최원진

해천대 영상디자인학과 조교수

「한발문화제 멀티미디어 영상전」 기획, 전시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초판 인쇄 | 2002년 12월 20일

초판 발행 | 2002년 12월 26일

기획 | 국립문화재연구소

글 | 김지희

사진 | 최원진

발행인 | 허만일

발행처 | 화산문화

등록 | 1994년 12월 18일(제2-1880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6 효자상가 A 201호

전화 | 02)736-7411~2 팩스 | 02)736-7413

E-mail | hwasan1939@yahoo.co.kr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2

ISBN 89-86277-66-2 93380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

염색장

전통적으로 천연 염색은 아름다운 색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의 꽃이나 열매, 잎, 뿌리, 껍질, 그리고 동물, 광물, 해조류, 이끼류 등에서 색을 나타내는 물질을 추출하여 이용해 왔다. 우리 나라의 전통 염색은 현재 젊은 여성들 사이에 가장 선호하는 전통 공예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천연 염색의 역사와 개념, 쪽염의 재료와 도구, 문평 명하 쪽염색, 나주 샛골의 쪽염색, 그리고 쪽염의 전수와 발전 방안을 다루고 있다. 특히 쪽염의 재료와 도구에서부터 염색 과정의 현장을 사진 자료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값 12,000원

ISBN 89-86277-66-2